천년을 세우다
묘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78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2월 25일) 2024년 4월 3일 수요일

위안부 할머니 모두 위중 '나눔의집' 사업 전환 시급

존립 기로 선 '나눔의집'

〈上〉 나눔의집 존립이 위험하다

윤호섭 · 이민우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겪은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나눔의집'이 존립 위기에 봉착했다. 나눔의집 개원 이후 30년 넘는 세월을 함께하며 위안부 문제를 알려온 할머니 세 분이 건강악화로 요양병원에 있기 때문이다. 모두 90대 중반 이상인 세 할머니가 별세하면 나눔의집에는 더 이상 위안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때 30~40명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낸 나눔의집에는 현재 생존자가 박옥선·강일출·이옥선 할머니 총 3명뿐이다. 1992년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며 많은 할머니들이 별세하고, 현재 남은 할머니들도 초고령인 상황. 박옥선 할머니는 지난해 100세 상수연을 했고, 다른 두 할머니의 호적상 출생연도는 1928년이다. 세 할머니 모두 건강상태가 위중해 요양병원에 입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집
할머니 양로시설 문 닫으면
사회복지법상 역할 사라져
교육 · 추모로 사업전환 필요

후원금 감소해 9억원 손실
재정상 존속기간 5년 전망
필수인력 제외 권고사직도

나눔의집은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이 아닌 주거시설인 양로원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거주하려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야 한다. 나눔의집 측은 "30여 년 전 설립 당시 할머니들의 연령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 기준을 '요양'이 아닌 '양로'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나 거동·인지가 불편해진 할머니들이 나눔의집을 벗어나 요양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생존자 세 할머니의 병세가 깊어진 만큼 나눔의집에는 존립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존립 근거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한 명도 없다면 시설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나눔의집 측은 할머니들의 건강상태가 향후 1년을 보장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3월 2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대두됐다.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 스님은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양로시설이 폐쇄되면 부설기관인 역사관만 운영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상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역사를 후대에 알리는 차원으로도 역사관 존치는 필요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가능할지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집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별세로 양로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위안부 피해 문제를 알리는 역사관을 운영할 법적 근거도 함께 상실한다는 뜻이다. 이제는 양로가 아닌 역사 기록과 추모, 교육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위가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게다가 이사회 감사보고에 따르면 갈수록 후원금도 감소해 최근 2년간 약 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나눔의집은 이 같은 추세라면 법인과 시설의 존속기간이 향후 5년 내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나눔의집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 전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했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을 택한 셈이다. 법인 폐쇄 시 기본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나눔의집 이사 일운 스님은 이사회에서 "과거 여성가족부 차관이 왔을 때 이런 시설은 특정 종교인이나 시민단체가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엔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겠냐고 물었다"며 "역사관의 자료는 살아있는 문화재일 수 있고 역사 그 자체의 증언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작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전 장관 사임 이후 후임 장관이 공석이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은 '역사관 존치'를 기본 입장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운영, 특수법인 설립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지만 뚜렷한 타개책을 찾지 못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나눔의집은 1992년 10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개소한 이후 명륜동과 혜화동을 거쳐 1995년 12월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현 부지를 기증받아 설립된 위안부 할머니들의 안식처다. 태공당 월주 대종사가 생전 '나눔의집건립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모금활동을 주도해 흩어져 지내던 할머니들을 안정된 주거공간에 모신 것. 이런 월주 대종사의 원력과 불교계 관심이 고스란히 담긴 나눔의집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비롯해 청소년 역사교육, 일본의 과거사 참회 촉구 등을 펼쳤다.



가천대 · 경동대 · 서울여대 · 성신여대 · 성균관대 불교동아리 회원들이 손수 만들고 색을 입힌 장엄등을 선보였다.

"대학생 불자들이 만든 장엄등 기대하세요"

가천대 · 경동대 등 장엄등 제작
"젊은 열정으로 연등회 원만 회향"

부처님오신날(올해 5월 15일)을 봉축하는 연등축제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3월 23일 서울 나무갤러리 옆 공간이 떠들썩한 활기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대학생 불자들이 올해 연등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할 장엄등 만들기로 한창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주현우, 이하 대불련) 소속 가천대·경동대·서울여대·성신여대·성균관대 불교동아리 회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 이들은 주말도 반납하고 모여 골조에 직접 풀을 바르고 조심스레 한지를 붙이며 각자만의 노력과 열정을 쏟아냈다.

기존 장엄등이 오래돼 교체가 필요했던 서울여대·성신여대·성균관대. 올해 처음으로 연등축제에 참여하는 가천대와 경동대가 대불련 측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날 다함께 장엄등을 제작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대불련 차원에서는 지금껏 서울·경기 지역 22개 학교가 연등축제에 참여해 왔는데, 새로 창립한 가천대와 경동대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올해는 총 24개 학교가 제등행렬에 동참한다. 학교별로 5명씩 참석한 이들은 3월 24일까지 골조, 배접, 밑그림, 채색, 꾸미기 등의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학교 마스코트가 담긴 특별한 '장엄등'을 완성할 계획이다.

3~4년 정도 사용한 장엄등이 녹이 슬어 다시 만들게 됐다는 서울여대 불교동아리 회원들의 실력은 제법 능숙했다. 장엄등 만들기에 경험이 있는 정선아 불교동아리 회장 덕분이다. 정 회장은 "지난 몇 년 동안 동아리 활동이 저조했는데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올해는 학교를 대표하는 장엄등을 새로 만들어 더욱 시작이 좋다. 활발한 동아리 운영을 이끌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신여대 불교동아리 역시 학교 공식 캐릭터인 '수룡이'를 활용한 장엄등 제작에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다. 무엇보다 성신여대 학생들은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데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다. 곽유진 부회장은 "장엄등을 처음 만드는데 이렇게까지 세심한 과정이 필요한지 몰랐다. 그래도 오늘 신입생 법우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어 기쁘다"며 "유네스코에 등재된 연등회에서 우리가 직접 만든 등을 들고 거리에 나설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무척 설레고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 재창립 돼 자그마치 110여 명의 학생이 활동하는 가천대 불교동아리는 처음 참여하는 연등축제에 회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엄등 만들기에만도 자원하는 회원이 많아 선착순으로 인원을 모집했을 정도다. 한규리 회장은 "처음 제작하는 장엄등에 조금 헤매기도 했지만 점점 친구들과 손발이 맞아가고 있어 결과물이 궁금하다"고 전했다. 가천대 불교동아리는 연등축제 등을 계기로 단체가 함께할 수 있는 불교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진행할 예정이다. 한 회장은 "불교 교리는 물론 등산과 사찰을 접목한 프로그램 등 많은 인원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친숙한 방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동대 불교동아리는 지난해 11월 창립해 다양한 불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등회도, 장엄등 제작도 모든 게 처음이라 낯설고 어색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세상이 되길 발원하며 작업에 몰두했다. 조현주 회장은 "(장엄등을) 눈으로만 봤을 때는 쉬워 보였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서울 한복판에서 저희가 만든 등을 들고 1시간 이상 행진할 생각을 하니 뿌듯하고 영광스럽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또 "오늘처럼 다른 대학 법우들과 만나 소통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5개 대학의 장엄등 만들기를 돕기 위해 현장을 찾은 이경목 대불련 서울지부장도 "연등회를 앞두고 각각의 대학과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모든 준비 과정이 연등회의 원만한 회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기원한다"고 응원했다.

대학생 불자들이 손수 만들어 색을 입힌 장엄등은 오는 5월 부처님오신날 종로 한복판에서 대중 앞에 선보인다. 김내영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는 영남알프스(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합니다

영남알프스라 함은 1천미터가 넘는 가지산 운문산 천황산 재약산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 고헌산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입니다. 이 영남알프스에는 영축총림 통도사를 비롯하여, 운문사 표충사 고헌사 석남사 등 천년고찰이 즐비하게 깃들어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해도 되는 정복 대상이 아닙니다. 불교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임을 설파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온 종교입니다. 편리함과 이윤추구를 위해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불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는 이미 2014~2015년 당시 울주군이 공영개발로 추진하던'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동의 결정을 함으로써 영남알프스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후인 2019년부터 민자로 개발한다면서 통도사가 자리하고 있는 영축산과 가장 가까운 노선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간월재 노선의 상부정류장은 영축산 정상에서 약 4km 북쪽에 있었으나 이번 신불재 노선 상부정류장은 2km밖에 안 됩니다. 영축산과 가장 가까운 노선으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영축총림 통도사에 대한 도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영축총림 통도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첫째,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경관을 훼손합니다.

둘째, 각종 희귀동식물과 뭇생명의 삶의 터전을 빼앗게 됩니다.

셋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통도사를 감싸고 있는 영축산 일대 환경을 해치게 됩니다.

이밖에 안전과 경제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생략합니다. 이렇듯 반환경적이고, 영축총림 통도사의 수행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남알프스케이블카는 반드시 철회시켜야 합니다. 이는 비단 영남알프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것이냐,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오만함으로 공멸의 길로 갈 것이냐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쳤고 본 환경영향평가는 졸속으로 통과시키고 7월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회한이 될 것입니다. 불자들이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일동

조계종 비구니 복지체계 구축 나선다

전국비구니회, 주요사업 확정
회원 장례 · 돌봄지원사업 만전
비구니 디지털 인물사전 구축
5월 독립운동 비구니 뮤지컬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8차 정기총회. 회원스님들이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올해 전국비구니회원장(葬)과 돌봄지원 사업 등 비구니 복지 체계 구축에 진력한다. 일생을 승가 일원으로 살았지만 도제 및 연고가 없어 홀로 지내다가 마지막 회향을 여법하게 하지 못하는 스님들을 위한 돌봄과 장례 서비스 등이 그것이다.

전국비구니회는 3월 26일 회관 3층 만불전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이날 총회는 △결산 승인의 건 △2024년 사업계획 예산 승인의 건 △조직 개편 승인의 건 △기타안건 등으로 진행됐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인사말에서 "제13대 전국비구니회 출범 4개월 동안 비구니회지 발간, 노스님 복지, 수행결사 추진 등 불교홍포와 전법실현을 위해 진력했다"면서 "앞으로도 출범 당시 공약을 늘 상기하면서 6000여 비구니를 대표하는 전국비구니회 위상을 지키려 노력하고, 임기 동안 이러한 마음가짐과 실천을 위한 행보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비구니스님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구축에 진력한다. 첫 번째는 '전국비구니회원장'을 위한 준비다. '전국비구니회원장'은 장례절차에서 49재까지의 장례복지 서비스로 도제 또는 연고가 없는 비구니스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데 사업목적이 있다. 임종 시 속가에 의존하지 않고 장례부터 49재를 여법하게 치름으로써 승가의 일원으로 살다 간 스님들의 마지막을 잘 회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회와 연결도 고려, 49재를 지회소속 사찰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홀로 사는 비구니스님 돌봄지원사업에도 힘쓴다. 홀로 절에 거주하는 스님들의 증가로 인한 승가공동체 해체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를 공유해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12대 집행부 사업인 비구니스님을 위한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사업의 확장으로, 19곳 지회장스님들과 연계해 정서돌봄지원서비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교 웰다잉 안내도 함께해 여법하게 열반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구니승가공동체 장례문화시스템인 전국비구니회원장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용 스님은 "지속적인 방문, 반찬나눔 등을 매개체로 건강돌봄과 마음나눔을 통해 전국비구니회가 든든한 울타리로 승가의 동반자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비구니 연구와 활용에도 적극 나선다. 12대부터 4년간 이어온 한국비구니의 역사성과 정통성, 사회적 인지도 등을 총망라한 〈역사 속 한국비구니〉가 6월경 출간을 앞두고 있다. 또 디지털 한국비구니 인명사전 '비구니위키' 활용사업도 추진한다. 비구니위키는 '한국비구니수행담록'에 실린 329명의 비구니들을 디지털 인물사전으로 제작한 것이다. 역대 한국비구니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디지털화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연결망 구축으로 자료 연동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비구니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연구, 언론, 법문 문화 등에서 다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한 독립운동과 관련된 비구니스님 3명을 조명하는 뮤지컬도 5월 선보일 계획이다.

종단협, 30개 회원종단 현황 파악 추진

2014년 이후 10년 만…자격조건 준수여부 파악

한국불교 30개 주요종단 협의체인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회원종단 현황 파악을 추진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오는 12월까지 회원종단 현황 파악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진행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 질병과 재난 발생 시 사회 안전망 확보에 필요한 자료 활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정관에 명시한 회원의 자격조건 준수 여부와 회원종단의 의전서열 정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회원종단 현황 파악 주요 내용에는 종지종풍과 소의경전, 총무원 및 연간예산, 전체사찰 현황, 종헌종법, 출가자 및 신도교육 체계, 중앙종무기관 기구 현황, 산하시설 등이 포함된다. 현황을 조사할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종단협 사무총장인 진호 스님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조계종 사회부장 도심 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신혜 정사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원효종 총무원장 향운 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만혁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고봉 스님이 참여한다. 특위는 오는 12월까지 현황 조사서 발송과 수령을 비롯해 종단 실사, 심의 회의 등을 거쳐 이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회원종단 연수교육은 5월 28~29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다. 약 80명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은 △일상 속 선명상 동행하기(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 △전법 포교 이야기(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 △AI와 불교(해인사승가대학장 보일 스님)가 구성안으로 제시됐다.

이 밖에 종단협은 지난 2월 21일 화재로 대웅전이 전소된 조동종 총본산 수락산 도선사의 복구를 위해 재난기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창녕 법성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관음종과 법상종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상월결사 인도순례 1주년 "전법 화두 여전"

조계사 대중 3월 23일 기념법회
인도순례 동참자도 일부 함께해
해봉당 자승 대종사 유훈 되새겨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 1주년 기념식에서 사부대중이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영전에 삼배를 올리는 모습.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지난해 3월 23일 해봉당 자승 대종사가 인도순례를 마치고 대중을 향해 던진 전법의 화두가 1년이 지나 다시 조계사에 울려 퍼졌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는 3월 23일 경내 대웅전에서 인도순례 회향 및 전법선언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당시 인도순례에 동참한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과 부주지 탄보 스님, 중앙종회의원 삼조 스님, 혜장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1주년 기념식은 기획 당시 인도순례 동참 대중이 모여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다 같이 모이는 대신 각자의 수행처에서 전법의 의지를 다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계사 기념식에는 인도순례 8조였던 주윤식 중앙신도회장과 정충래 만해마을 원장, 이규민 전 국회의원, 김형규 법보신문 전 대표 등 우바새들이 참석했다.

사부대중은 이날 자승 대종사 영전에 추모 삼배를 올린 뒤 인도순례 전법 영상을 시청하며 1년 전 인도에서의 고행을 되새겼다. 일부 불자들은 자승 대종사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영상 시청에 이어 사부대중은 상월결사 108원력문에 따라 108배를 올리며 '부처님 법 전하자'는 자승 대종사의 유훈을 다졌다.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은 사부대중을 대표해 전법 다짐에 나섰다. 이 회장은 "인도순례는 몰락해가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목숨을 건 43일간의 대장정이었다"며 "자승 대종사님께서 세워놓은 큰 가르침을 주지스님과 함께 하나씩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기념사에서 그간의 상월결사의 여정을 소개하면서 인도순례가 한국불교 중흥과 전법의 원력을 굳건히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명 스님은 "인도순례는 지난해 펼쳐졌지만 실제로는 2020년부터 준비한 결과물이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부처님 원력과 가피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순례를 마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스님은 이어 "꽃샘추위를 이겨낸 뒤에야 꽃이 피듯이 인도순례 역시 결코 쉽지 않았다. 이번 생은 전법이라는 각오로 사부대중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호섭 기자

서울 불광사-하늘안과의원 MOU

3월 28일 업무협약…스님 · 신도 전문안과서비스 기대



서울 불광사(주지 동명 스님)와 하늘안과의원(원장 김동수)이 승려복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성화 스님)는 3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광사·하늘안과의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광사 소속 스님들은 병원에서 상담과 접수, 진단, 치료, 퇴원 절차에서 일반인과 구분된 서비스와 진료비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불광사 신도들 역시 하늘안과의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은 "고령화된 불광사 스님들과 신도들이 안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 걱정이 컸는데 때마침 하늘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무척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동수 하늘안과의원 원장은 "2007년 개원 이래 17년 동안 전문적인 안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을 살려 본원을 방문한 스님들과 신도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승려복지회는 이번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사찰과 지역전문병원의 승려복지 업무협약 체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승려복지와 지역포교 발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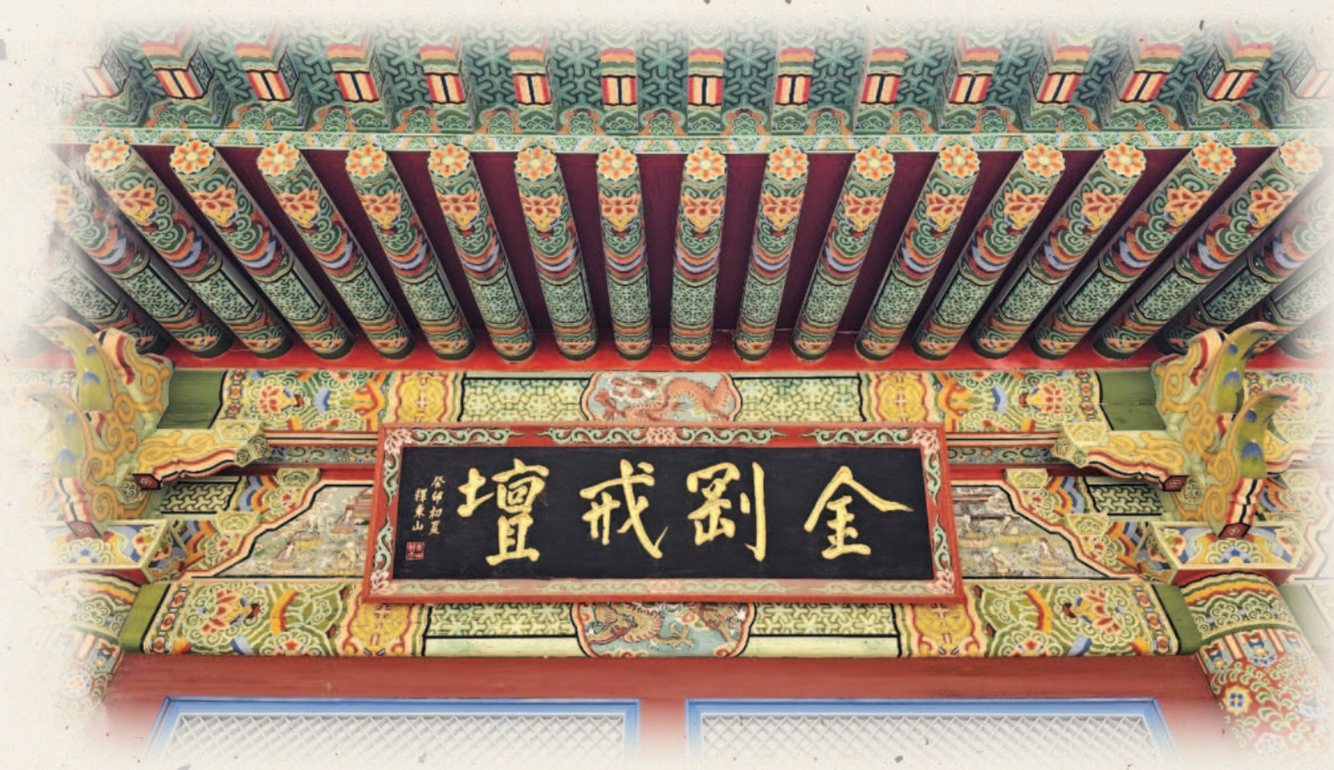
이민우 기자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금강계단 제124회 보살계 수계산림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오래된 제124회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를 봉행합니다.
팔만사천 법문의 실천 요체인 범망경 보살계는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들에게 전하신 심지법문으로 불교의 수많은 수행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보살계를 받아서 생사해탈의 큰 인연 공덕으로 진정한 불제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불기2568(2024)년 4월 22일~23일
(음3월 14일~15일) 오전 10시
장 소 | 범어사 금강계단
접 수 처 | 범어사 원주실(051-508-3636)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전계대화상 범석 수불
주 지 산해 정오

“선명상 보급, 이래서 필요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열반절 법회 · 군승안거에서
‘선명상’ 강조 특별법문 설해

이민우 기자 · 유재상 충청지사장


진우 스님은 조계사에서 봉행된 열반재일 법회에서 직접 분필을 잡고 판서하며 선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제37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인 ‘선명상 보급’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진우 스님은 3월 24일 서울 조계사에서 ‘출가·열반재일 특별정진기간’의 회향을 맞아 선명상의 목적과 중요성을 설한 데 이어 28일 계룡대 호국홍제사에서 봉행된 군종특별교구 ‘2024년 군승 안거·포살법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문을 했다.

진우 스님은 열반재일 법문에서 출가재일 때와 같이 다시 한 번 분필을 잡고 선명상의 의미를 짚었다. 스님은 “즐거움이 생기면 그와 같은 크기의 괴로움이 생긴다. 고락의 감정은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인과에 의거해 괴로움이 없다면 즐거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상에는 옳고 그름이 없음을 청소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우 스님은 ‘꽃’을 예시로 들었다. 스님은 “꽃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많지만 꽃은 흙에서 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꽃을 보고 좋아진 기분은 우리가 감정에 따라 내린 평가”라며 “현상을 평가하는 것은 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행동이지 현상 자체에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우 스님은 연기와 인연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세상에서 고락은 필연적이기에 명상으로 감정을 분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마음을 편안히 하고 감정이라는 업을 소멸하기 위해 지금 느끼는 감정을 가라앉히는 명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방법과 장소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면 업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군승 안거에서 장병들을 위한 선명상 지도를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사람들이 익히 들어 아는 명상에 불교의 선(禪)을 얹은 것은 불교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수행하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안내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간단하게 말하면 스스로 감정을 계속 내려놓고 그로 인해 편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선명상의 의미를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나이에 군대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청년 장병들이 혈기왕성한 만큼 감정의 기복도 클 것으로 내다보며, 이를 지도하는 군승들에게 장병들의 마음공부가 가능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스님은 “중생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고, 나 스스로도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기 때문에 불교의 목적은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요즘 젊은이들은 센스가 뛰어나기 때문에 왜 선명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 “승가대학 교육과정 조정 계획”

운문승가대학 동문회 연수서
종단 교육 관련 복안 드러내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연수에서 승가대학 교육과정 개편 계획을 밝힌 진우 스님.

거듭된 출가자 감소로 중앙승가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승가대학까지 정원을 채울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할 묘책이 나올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승가대학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진우 스님은 3월 28일 충남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 연수에서 법문을 마친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운문사승가대학 35회 원법 스님은 중앙종무기관의 총무원 일원화 추진을 언급하며 “운문사승가대학은 그동안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데 (총무원 일원화로 인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 미래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총무원 일원화로 인해 교육원과 포교원의 업무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중앙종무기관 통합 이후에도 종단의 교육·포교사업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원장을 역임한 진우 스님은 “업무 분장 개념으로 보면 (교육·포교원이 별원이어서) 좀 막히는 부분이 있다. 여러 부서에 협조를 구해야 하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 어렵다”며 “통합한다고 해서 교육원이나 포교원의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부서 조정을 통해 보강할 건 더 보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현재 입산하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지방승가대학에 들어가는 학인 숫자도 적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올해 안에 지방, 중앙승가대학이 살 수 있고 행자교육원을 포함해 전반적인 교육과정을 합리적으로 보강하려고 막바지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운문사승가대학이 축소되거나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고 단언한 진우 스님은 한문교육 세대를 지난 현대사회에서 한국어로 해석된 승가 경전교육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과정 보강의 연장선상에서 교과 내용도 일원화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진우 스님은 또 “좀 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교과 내용으로 다시 구성을 하려 한다”면서도 “모든 종도들, 모든 학인들, 모든 교수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묘책이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진우 스님의 이 같은 발언은 교육원장 재임 시절 승가대학 32개 교과를 27개 교과로 정리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해 현재 교육원과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진우 스님의 복안은 총무원 일원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윤호섭 기자 · 유재상 충청지사장

조계종 국제교류위원에 혜민 스님

제10기 추가 위원으로 위촉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위원장 도심 스님)가 3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차 국제교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제10기 국제교류위원으로 혜민 스님을 추가 위촉했다.〈사진〉

국제교류위는 혜민 스님(전 미국 햄프셔대학 종교학 교수)을 신규 국제교류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전 세계적인 위기 극복 방안을 찾고자 하는 불교계와 종교 간 국제회의가 늘어나는 상황에 발맞춰 풍부한 국제 경험을 바탕으로 종단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3월까지 진행한 국제팀 주요 업무와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국제교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다뤄 진행됐다.

올해 하반기 주요사업으로는 국제포교사, 불교 외국어 통·번역가 및 기타 불교관련 외국어를 사용하는 단체 대상 불교외국어인재 워크숍과 9개국 주한외국대사 및 대사부인이 참석하는 한국불교문화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이어 5월엔 ‘제19차 UN베삭데이’ 참석, 9월 말 국제선명상대회, 10월경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행사, 제2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등 불교 관련 해외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민우 기자

류완하 총장 “글로컬대학 경쟁력 구축”

동국대 WISE캠, 총장 취임식



새로 취임한 류완화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이 “역사·문화·관광 특성화를 통해 동국대 WISE캠퍼스를 글로컬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고 취임 일성을 내놨다.

동국대 WISE캠퍼스는 3월 26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류완화 WISE캠퍼스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류완하 총장의 취임을 맞아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의 방법과 체계를 혁신하고 전통과 현재와 미래가 융합하는 창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란다”며 “‘동국발전이 불교중흥’이라는 기치 아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전법을 실천해 인재 양성에 용맹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완하 WISE캠퍼스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다. 류 총장은 “우리 대학은 혁신과 융합을 통해 학문 간의 벽 허물기, 탈캠퍼스, 지·산학 연계를 통해 대학을 혁신해 가고 있다”면서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 에너지와 역사문화, 관광 두 가지 방향으로 대학을 혁신하고 융합한 글로컬 학제로 새롭게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국대의 역사와 전통, 건학 이념을 계승하고, 지역의 미래 산업과 역사·문화·관광 분야의 특성화를 통해 글로컬 대학으로서 경쟁력을 갖춰 미래를 향해 새롭게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류완하 WISE캠퍼스총장은 동국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계명대 예술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7년부터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로 재직하며, WISE캠퍼스 동국미디어센터장·도서관장·평생교육원장·기획처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을 맞아 익명의 기부자,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태영장학회, 동경장학회, 동국후원의집, 동국대학교 직할경주동창회, 조경학과 총동문회, ROTC 총동문회, 삼보장학회, 진불선원 주지 무아 스님,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가정교육과 현직교사 동문회에서 WISE캠퍼스 발전기금으로 8억6000만원을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2024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4년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 · 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4)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화신청(팩스로 받을 수 있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금)**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상반기 7월 / 하반기 12월 지원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 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분한신고미필 및 결계 미등재 스님(전 결계 등재 시 지원됨)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문의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8(2024)년 4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성 화

사라질 위기서 다시 태어난 성보를 만나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성보문화유산 보존처리 모습.

◀ 훼손돼 사라질뻔한 위기에서 전문적 보존처리로 다시 태어난 〈용주사 감로도〉. 1790년, 화성 용주사효행박물관 소장.

불교중앙박물관, '수보회향' 4월 4일~6월 30일 제1 · 2전시실

10년간 보존처리해 온 성보 47점 공개…'용주사 감로도' 눈길

1790년(조선 정조 14)에 조성된 〈용주사 감로도〉는 1984년 도난됐다가 2018년 환지본처했다. 도난 당시 상하 회장이 절단됐으며 도난 후 세로로 말아 보관하는 과정에서 세로 꺾임이 많이 발생해 바탕 재질의 2차적 손상까지 발생됐다. 2021년 습식 클리닝 후 기존 배접지를 제거하고 결손부를 메운 후 새롭게 배접하는 보존처리가 실시됐다. 처리 후 기존에 제거된 상축과 하축을 새롭게 조성해 부착했으며 굵게 말아 축과 보관상자를 제작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했다. 훼손돼 사라질뻔한 위기에서 전문적 보존처리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다.

비지정 문화재로, 관리 사각지대에서 재탄생한 성보들이 대중에 선보인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은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박물관 제1·2전시실에서 기획전 '수보회향(修補廻向), 다시 태어난 성보'를 개최한다.

수보(修補)란 보존처리 작업을 뜻한다. 조계종은 문화재청과 2014부터 비지정문화재이긴 하지만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는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해왔다.

이번 기획전은 10년간의 작업을 결산하는 자리다. △가치의 재발견 △진면목으로의 회복 △진단하고 예방하다 등 3개의 주제로 그동안 보존처리한 35건 47점이 공개된다. 성보 수보에서 회향에 이르는 과정을 담은 설명글과 영상도 함께 구성됐다.

〈용연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천은사 팔상전 영산회상도〉 〈파계사 치성광불도〉 〈방장유산시첩〉 〈대방광불화엄경 권제79-81〉 〈도갑사 명부전 목조도명존자입상·목조무독귀왕입상〉 등 대중에 처음 공개되는 성보도 다수 전시돼 눈길을 끈다.

이번에 공개되는 수보를 마친 모든 성보는 국가·시도 지정 문화유산(국보, 보물, 유형문화유산 등)이 아닌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더한다. 비지정 문화유산은 지정 문화유산보다 상대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훼손을 입은 경우가 많은데, 사업을 통해 이러한 성보를 발굴하고 조성 당시의 모습을 되찾도록 지원했다는 점에서다. 성보의 가치를 회복하고 후대에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은 매우 의미있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1724년 조성된 순천 〈송광사 웅진당 석가모니후불도〉는 수보작업 후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 1790년 조성된 〈쌍계사 팔상전 신중도〉도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대중이 멸실 위기에서 다시 태어난 성보를 친견함으로써 한국 불교문화의 수승함과 환희심을 몸소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면서 "성보를 수보하는 지난하고 치열했던 일련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훼손의 과오를 범하지 않고 성보 수호에 진력하기 위한 마음의 경책이 되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앞으로 멸실 위기의 성보를 더욱 주목해 전시와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통해 부처님 법향이 성보를 통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정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획전 개막식은 4월 3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개막식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치하하고 사업 시행 10년을 기념하고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115개 불교 기관에 2억7850만원 지원

진흥원, 제8기 지원사업 선정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불교 기관 및 단체 115곳에 2억7850만원을 지원했다.

진흥원은 3월 25일 '제8기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진흥원은 불교 기관·단체의 포교 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질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행(수행), 학술, 문화, 포교, 복지, 미디어 등 6개 분야 단체를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제8기 지원사업 선정 대상은 '불교 신행(수행) 실천' 분야에 가야산 선원 등 12곳, '불교 학술세미나 및 학술지 발간' 분야에 가야문화진흥원 등 19곳, '불교 문화 행사' 분야에 경기불교문화원 등 23곳, '불교 복지 활동' 분야에 보리수아래 등 9곳, '불교 포교 활동' 분야에 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 47곳, '불교 미디어 포교 활동' 분야에 불교상담연구소 등 5곳이다.

진흥원은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은 대내외적으로 포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각 분야의 기관·단체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작지만 큰 원력을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각 분야의 소모임이나 단체를 적극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불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수많은 불교 단체가 불교의 싹을 틔우는 풀뿌리불교의 토대를 마련해 이 시대를 밝히는 새로운 불교 중흥의 꽃을 피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불교 기관·단체 지원사업 공모'를 매년 2회 실시하며, 선정된 기관 및 단체의 당해년도 사업추진에 대해 연 1회 지원한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474개 단체에 총 10억9247만원을 지원했다. 제9기는 올해 6월에 지원 대상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신혼부부 위한 사랑 가득 템플스테이

불교TV · 대원사 '절로 갈까'

부부 10쌍 대상으로 소통시간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BTN불교TV(사장 구본일)와 가평 대원사(주지 선일 스님)가 4월 27~28일 대원사 경내에서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한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3년 4분기 대한민국 출생률 0.65명으로,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위기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가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육체적 휴식과 정서적 안정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러브템플스테이 '절로갈까'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 10쌍을 초대해 신혼부부를 위한 커플 레크리에이션, 소통과 공감특강, 스님이 들려주는 부모이야기, 스님과의 포행, 차담, 마음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전문 MC 심목민 아나운서와 김경선 하제심리상담연구소장, 대원사 회주 보인 스님이 각각 맡았다.

'절로갈까'는 종교에 상관없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3월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불교TV 홈페이지 붓다회 공지사항이나 전화 1855-0108(BTN불교TV 붓다회 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내 성격 유형에 어울리는 신행은?"

조계종 포교원, 에니어그램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발표

안내책자, 검사 링크 개발

9가지 유형별로 신행 제시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에게 맞는 신행은 무엇일까?"

각각의 성격 유형별로 맞춤 신행과 명상법을 제시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삶의 올바른 성장을 이끄는 안내서가 개발·보급돼 주목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선업 스님)은 에니어그램을 기반으로 한 성격유형 안내서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을 개발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포교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이윤정 마인드코칭연구소장과 간단한 심리검사와 불교 콘텐츠를 접목한 연구에 돌입, 그 결과인 '부처님 마음, 내 마음' 안내책자(사진)와 리플릿, 성격유형 검사 링크(www.bulgyoenneagram.co.kr) 개발을 완료한 것.

성격유형 검사는 45개의 불교적인 질문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문항을 선택해 성향·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각 유형별 안내에는 성격의 특징과 대화 방법, 어울리는 직업, 성장을 위해 필요한 조언, 추천 신행 등이 담겼다. 특히 부처님 제자를 각 유형 대표 인물로 설정하고, 초기 경전에서 인용한 부처님 말씀을 첨가해 스스로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특징이다.

3월 28일 열린 '부처님 마음, 내 마음'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윤정 마인드코칭연구소장은 "현대사회를 살아갈 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많다. 늘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가 도태됐다고 비판하기도 한다"며 "이번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은 내 안에서 어떻게 집착을 버리고 잠재력을 일깨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길을 일러준다"고 말했다.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은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것은 물론 상대방을 이해하는 소통의 도구로 젊은 세대들에게도 재미있고 유익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교원은 향후 '부처님 마음, 내 마음'을 신행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사찰과 종립학교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질문과 방식을 개선하고, 젊은 층 포교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내영 기자



佛性 受戒 共同體
불성의 자리에서 수계 공동체를 이루는
金剛戒壇
보살계산림
普 薩 戒 山 林

입재 2024년 4월 13일(음 3.5) 토요일
회향 2024년 4월 15일(음 3.7) 월요일

동참금 | 5만원 접수처 | 화엄전 전화 055-381-1288 팩스 055-372-7010
차량안내 | 부산지하철 온천장역 1번 출구 앞 오전 8시~9시

불지종가 ·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현지 교육에 사업 초점…새로운 연꽃 피워내겠다”

그대는 자비보살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2004년 창립 로터스월드 이끌어
BWC센터 부지 찾아 ‘동분서주’
씨엘립주지사 무상임대 제안해
2006년 BWC설립해 사업 전개

단순 구호보다는 ‘자립’에 초점
“교육으로 현지인들 자립 유도”
L뷰티, 두부공장 등 사업 진행


3월 20일 주석처인 수원 보현선원에서 인터뷰에 응하는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수원=이민우 기자 alsdn285@naver.com

사람들이 불교를 떠올릴 때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는 바로 ‘연꽃(Lotus)’이다.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진흙보다 더한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을 꽃피우고자 하는 불교를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다.

한국불교 국제구호 NGO단체 ‘로터스월드’도 빈곤이라는 고통으로 가득 찬 세계에 부처님의 자비를 연꽃처럼 꽃피우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 뿌리를 내리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현지인들에게 부처님 자비를 전한지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두 번이 지났음에도 변함없이 로터스월드를 이끌고 있는 이사장 성관 스님. 3월 20일 수원 보현선원에서 만난 스님은 20년의 소회를 담담하게 풀어냈다.

“기쁘다는 감정보단 미안하다는 감정이 먼저 드네요.”

성관 스님의 ‘미안하다’는 감정은 20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되돌아본 것에서 비롯됐다. 스님이 미안함을 느끼는 대상은 바로 그동안 자신을 믿고 함께 달려와 준 로터스월드 직원들과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활동가들, 로터스월드를 믿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준 후원자들이었다.

“제가 부족했음에도 로터스월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갖은 고생을 한 직원들과 활동가들, 타국의 낯선 이들에게 기꺼이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준 후원자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죠.”

어려움을 수행 삼아 정진하라

2004년 출범한 로터스월드가 20년 동안 동남아 불교국가에서 피워낸 연꽃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다. 언어도, 문화도, 민족도 달랐지만 부처님 자비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 위에 학교와 도서관, 위생시설,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교육을 통한 미래를 수놓았다. 의료봉사와 긴급재난구호캠페인 등도 빼놓을 수 없다. 보다 더 나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와 다른 NGO단체들과 협력했다. 그 결과 로터스월드는 현지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주민들에게는 희망을 선물할 수 있었다. 물론 로터스월드가 이토록 찬란한 연꽃을 피워내기까지 장애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열정과 희망으로 시작한 로터스월드는 첫 걸음부터 거대한 역경과 마주했다. 캄보디아에 지부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려는 로터스월드에 시급했던 것은 열악한 환경과 가정형편상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현지 아이들을 품을 ‘아동센터’ 건립 부지였다.

MOU를 맺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부지를 소개받아 순조롭게 출발하나 싶었지만 해당 부지는 이미 부동산 투기가 진행돼 땅값이 많이 오른 상태였다. 첫 걸음마를 뗀 로터스월드의 역량으로는 치솟은 땅값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부처님 자비를 연꽃처럼 피워내겠다는 일념으로 출범한 로터스월드였기에 성관 스님은 포기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어딘가 있을 다른 부지를 찾기 위해 뛰고 또 뛰었다. 그러던 중 기적이 일어났다.

“우리의 계획을 전해들은 씨엠립주지사가 새로운 부지와 함께 무상임대를 제안해왔습니다. 그 부지가 바로 BWC아동센터(Beautiful World of Cambodia)가 건립된 1만2000평의 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의 일을 기적이자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성관 스님은 “만약 그때 계획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로터스월드는 없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2006년 건립된 BWC아동센터를 시작으로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에서 꾸준히 자비를 실천했다. 낙후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신축 및 개보수하고 김안과 병원이나 다른 의료봉사단과 협력해 무상의료봉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현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농업교육으로 현지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초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연꽃을 피워나가던 로터스월드는 2014년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 NGO를 획득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역경과 마주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대면활동이 주를 이루는 NGO로서 코로나19는 치명적이었다. 봉쇄된 국경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지 지원 사업을 가로막았다.

“모두가 힘든 시간이었죠.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도 힘들었는데 저개발국가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동안 해온 모든 것이 끝이니까요.”

성관 스님은 ‘어려움을 수행 삼아 정진하라’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로터스월드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피운 연꽃을 지키기 위해 활동가들은 현지에 남았고 직원들은 밤을 새워가며 전략을 짜냈다.

“그런 모두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마음으로 뭉쳐 좋은 생각과 뜻을 낼 수만 있다면 코로나라는 큰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성관 스님을 중심으로 뭉친 로터스월드의 눈에는 곧 코로나19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 사찰과 스님들이 들어왔고, 이들을 위한 지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7차례 진행된 캠페인에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를 비롯한 전국 사찰들의 참여했고,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의 53개 사찰 1만3430여 명의 스님들이 안정적으로 사찰운영과 수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시련과 고통을 자기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더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터스월드와 함께하며 마주친 어려움들 또한 수행이자 정진이라고 생각하니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로터스월드는 나의 모든 것”

성관 스님에게 “20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스님은 “현지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는 순간”이라고 답했다.

성관 스님은 20년 동안 수없이 동남아를 방문해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눴다.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달랐지만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성관 스님의 믿음은 로터스월드가 현지인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됐다.

“저는 아직도 캄보디아 아이의 인터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로터스월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기자의 질문에 그 아이는 ‘나의 모든 것’이라 답했습니다. 아이의 답은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싶다는 우리의 진심이 통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성관 스님의 진심은 특히 청년들에게 크게 작용했다. 어느 때보다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불안을 느끼는 현지 청년들에게 성관 스님은 훌륭한 멘토가 돼주었다.

“청년들에게 ‘쉼없이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줬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고 정진해 깨달음을 얻으셨듯 청년들도 쉼없이 정진하고 부단히 공부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했죠.”

로터스월드는 오는 4월 7일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한-아세안 문화교류 한마당’을 열고 스무번째 생일을 자축한다. 이는 로터스월드가 그동안 피워온 연꽃들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밑거름 삼아 다시 한 번 20년을 향해 나아가는 장이기도 하다.

“20주년 기념 한-아세안 문화교류 한마당은 로터스월드가 달려온 20년을 결산하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만드는 장이 될 것입니다. 로터스월드를 믿고 후원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그동안의 성과를 보여줘 보람을 느끼게 하고 활동가와 직원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행사가 되길 기대합니다.”

현지인 스스로 미래 열어가야

올해 로터스월드 추진 사업의 방향성은 ‘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지원사업과 프로그램, 캠페인을 축소 없이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현지인들의 자립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에도 힘쓸 계획이다. 단순히 물자만을 지원하는 단순 구호는 해당 국가의 비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다.

“단순한 구호는 수혜자로 하여금 의타심만 키워줍니다.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자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로터스월드의 비전은 바로 현지인들이 스스로 현재를 가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되 의타심을 가지지 않도록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교육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현지 로터스월드를 직접 이끌어 새로운 연꽃을 피워나가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로터스월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비로 밝힌 국제구호 20년…현지인 자립까지 이끌다

국가별로 본 로터스월드 20년

로터스월드 in 캄보디아(2004~)

로터스월드는 캄보디아 정부와 MOU를 맺고 무상으로 임대한 약 1만2000평의 부지에 2006년 아동센터 BWC(Beautiful World of Cambodia)를 건립했다.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현지 아이들에게 한국어, 영어, 태권도 등 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온 결과, 지금까지 50여 명의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했고 17명의 아이들이 현재 아동센터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에도 나서 낙후된 학교·도서관 등 교육시설 30여 곳과 화장실 등 위생시설 100여 곳 이상을 보수·신축하고 통학을 위한 자전거를 지원했다.

2008년에는 김안과 병원과 협력해 아동센터 내 안과병원을 개원하고 의료봉사단과 함께 현지주민을 위한 무상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의료봉사가 지난해 재개됨에 따라 오는 6월에도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이다.

2011년부터는 로터스희망미용센터와 사회적 기업 ‘L 뷰티’를 설립해 현지 청소년들에게 미용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023년까지 216명의 졸업생이 취업과 창업을 통해 자립하는 결실을 맺었다. 또 수원시와 함께 2012년부터 프놈끄라운-수원 마을을 지원하고 인프라 개선 및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로터스월드 in 미얀마(2010~)

로터스월드는 미얀마 군부정권이 방치한 현지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KT&G복지재단 등 여러 단체와 손을 잡았다. 아웅툭카-KT&G 중고등학교 등 현대식 학교 보수·신축, 위생시설 보급, 도서관 책 지원 사업을 펼쳐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캄보디아 로터스희망미용센터에서 교육받는 학생들.


미얀마 아웅툭카 학교에 설치된 정수 시설.


라오스 버섯재배사업지 나팁 마을을 찾은 로터스월드.

식수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해 현지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양곤 주변 학교와 빈민마을에 다기능필터가 장착된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2018년 사회적 기업 ‘두부공장’을 설립하고 현지 청년들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데 이어 현지에서 생산된 콩을 정당한 가격에 수매함으로써 지역민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양곤 내 대형마트와 한식당 등에 한국식 두부를 납품하여 얻은 수익은 고스란히 미얀마 아동 생활지원에 쓰인다.

로터스월드 in 라오스(2013~)

로터스월드는 비엔티안주 7개 마을 농민들의 농업생산성 증대와 소득 증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한라농촌개발연수원과 손잡고 농촌공동체 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농민들에게 체계적인 소 사양관리사업, 버섯재배사업, 목초재배사업을 교육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조성한 결과 현지 농축산물의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농민 소득 증대의 목표를 달성했다.

소수민족 단위로 분리돼 있던 라오스는 라오어가 있음에도 소수민족 언어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에게 라오인이라는 공동체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라오어 수업을 교사 역량강화사업으로 진행했다. 현지 교사들에게 라오어교수법을 비롯해 학생관리·상담교육 등을 실시해 교사 역량을 강화한 이 사업은 교사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그와 발맞춰 수업 교보재를 갖추지 못한 학교들에 책걸상과 칠판, 컴퓨터, 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민우 기자

오색빛 연등물결, 佛都 부산 수놓는다

전통문화 산실 부산연등회, 4월 26일 개막점등

호기놀이로 봉축분위기 높여
전통문화체험·전통등 전시로
취약계층 돕는 자비나눔 실천
부산연등회는 5월 11일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도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부산연등회가 4월 26일 개막점등을 시작으로 봉축기간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에서 불이 켜진 봉축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불도(佛都) 부산 전역을 오색빛 연등물결로 장엄하는 '부산연등축제'가 올해부터 '부산연등회'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찾아간다. 부산시 무형문화재 등재 추진을 위한 변화로, 주최 측인 부산연등축제조직위원회도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부산연등회봉행위원회(위원장 정오 스님)는 3월 27일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가오는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부산연등회와 부산연등문화제를 기획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 석산 스님은 "호국불교의 중심인 부산불교는 민족을 위한 희생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는 전통문화로 자리해왔다"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인 부산연등회를 통해 불교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부산연등회의 막을 올리는 건 호기놀이다. 고려말에서 조선초에 성행한 전통풍속 호기놀이는 아이들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연등을 만들 재료비를 구하는 활동이다. 부산연등회봉행위는 매년 호기놀이를 재현해 종교적 특색이 강한 연등행사가 민가에 깊이 뿌리내렸음을 알리고 있다. 올해 호기놀이는 4월 26일 오후 7시 송상현광장에서 진행되는 부산연등문화제 개막점등식에서 펼쳐진다. 더불어 호국영령위령재와 느티떡 만들기 체험으로 봉축기간 시민들의 불심을 북돋는다.

연등문화제는 또 이날부터 다양한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5월 4~5일에는 사찰비빔밥을 맛볼 수 있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의 '무차만발공양'이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간다. 같은 날 전통문화체험한마당도 함께 열리며, 전통등 전시 및 소원등 달기는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소원등 달기를 통해 모연된 수익금은 자비나눔으로 회향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매년 봉축행사 회향 이후 청소년·장애인 시설에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봉축행사의 백미인 부산연등회는 5월 11일 오후 4시 부산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연희단 어울림한마당'으로 시작을 알리며 오후 6시 봉축연합대회가 봉행된다. 어울림한마당은 부산연등회에서 처음 선보이는 행사로 불자들의 장기자랑을 뽐내는 자리다. 수상자들에겐 각각 상금이 주어진다.

연등행렬은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며 연희단의 화려한 의상과 율동, 아름다운 행렬등이 도심을 수놓는다. 연등행렬은 부산시민공원에서 출발해 하마정교차로, 양정교차로, 송공삼거리를 지나 송상현광장에서 회향한다.

한편, 부산연등회봉행위는 시민과 함께하는 SNS 공모전을 연다.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화엄승가회, 대학 불교동아리 9곳 지원

창립 9주년 맞아 900만원
부산불교교육대학 지원도


화엄승가회와 불산불교교육대학 스님들, 각 대학 불교동아리 지도교수와 학생들이 화엄승가회 창립 기념법회에 함께했다.

봉사하는 스님들의 모임 화엄승가회가 불자 대학생들의 신행활동을 돕기 위해 9개 대학 불교동아리에 지원금을 전달했다.

화엄승가회(회장 자인 스님)는 3월 23일 부산불교교육대학 대강당에서 창립 9주년 기념법회봉행하고, 화엄승가회 소속 스님들의 모교인 부산불교교육대학 발전기금 300만원과 대학 불교동아리 지원금 100만원씩을 희사했다. 지원금을 받은 불교동아리는 부산대·인제대·부경대·대동대·동명대·동아대·해양대와 동아리 창립을 준비 중인 동의대·부산교대다. 더불어 학교별 1명씩 총 9명에게는 모범신행상과 부상을 수여하고 학생들의 포교활동을 격려했다.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불교동아리를 지원한 건 불교를 접하는 대학생들을 편안하게 잘 안내해달라는 격려의 의미"라며 "늘 봉사에 함께해주신 회원스님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창립을 기념해 회원스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장 범혜 스님은 "화엄승가회는 모교출신이신 스님들의 모임으로, 모범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펼쳐 모두의 귀감이 돼주셨다. 화엄승가회가 부산불교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아 정말 자랑스럽다"며 "어려운 형편에서도 7년째 대학 불교동아리에 지원금을 전달해주시는 스님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격려사를 했다.

권성렬 부산교수불자회장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부산에 있는 대학 불교동아리 학생 수가 많이 늘었다. 이것은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지도교수님과 신심을 내어준 학생들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화엄승가회 스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화엄승가회는 이날 관음사 천웅 스님을 상임부회장으로, 보현암 보현 스님을 부회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7명의 새로운 회원스님들에게 회원증을 전달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행사에는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화엄승가회 회원스님들과 권성렬 부산교수불자회장을 비롯한 불교동아리 지도교수, 부산불교교육대학 회장단, 김은정 대불련 부산지부장 및 각 대학 불교동아리 대표자들이 함께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불지종가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 연다

4월 13일 입재불공 이후 설계, 15일엔 수계식

불지종가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경내 금강계단에서 '불기 2568년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한다. 입재법회는 첫날 오전 9시 30분 경내 설법전에서 입재불공을 시작으로 입재식과 설계(設戒)가 이어진다. 14일에는 불공과 설계, 4월 15일 회향일에는 계첩 배부 후 수계식 및 영축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된다. 이후 수계동참자들은 계첩을 등에 메고 금강계단 앞에서 연비를 받은 후 사리탑을 돌며 회향한다.

이번 보살계 수계산림에서는 전계사 영축총림 율주 덕문 스님을 비롯해 3사 및 7증사 스님들이 3일 동안 〈범망경〉 보살계본에 근거해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를 설할 예정이다. 또한 통도사는 매년 보살계 동참자를 격려하기 위해 특별한 시상식을 마련한다. 보살계 동참 10회와 15회, 20회에 참여한 수계자에게 메달을, 25·30·35·40회 수계자에게 성만패를 수여한다.

통도사는 "자장 율사의 계율정신을 되새기고 부처님 지혜광명을 잇고자 갑진년 금강계단 보살계 산림법회를 봉행하오니 널리 동참해 세세생생의 불연을 맺는 인연공덕 되시라"고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나눔기금 마련 위한 '일일맛집' 개최

미소원청년회, 취약계층 지원



사단법인 미소원 산하 미소원청년회(회장 류강렬)가 3월 22일 부산 범일동 미소원 법당에서 나눔 기금 마련을 위한 일일맛집을 개최했다.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기획한 일일맛집은 다양한 음식이 마련됐으며, 평소 음식 나눔에 앞선 미소원 봉사단의 손맛이 더해졌다.

지도법사 청명 스님은 "미소원에서 만나는 인연이 너무나 소중하다. 바로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미소원 청년들의 활동으로 더 많은 이들이 부처님 법을 만난다면 더욱 기쁠 것"이라고 격려했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인재불사를 위해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다"며 "기금 마련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 미소원이 생각하는 청년불사에 동참해주시는 성원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남 문화재 지킬 청소년들 모이다

경남파라미타 문화지킴이 발대



경남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김재호)는 3월 23일 마산 정법사 문수원에서 청소년 문화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경남파라미타 총재 광우 스님, 성주사 법안 스님, 불인사 송산 스님, 황룡사 법진 스님, 길상사 월서 스님, 정법사 초일 스님, 불인사 응공 스님을 비롯해 김재호 경남파라미타 회장, 하병형 수석부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김재호 경남파라미타 회장은 인사말에서 "내 고장 문화재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지역 문화재 보존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경남파라미타 총재 광우 스님은 "문화지킴이 활동을 통해 국보와 같은 자신을 발견한 계기가 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제561회 사명대사 춘계 향사
일시 : 2024년 4월 13일(토) 10시 장소 : 표충사 사당
대한불교조계종
밀양 표충사
주지 진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로1338 전화 055)352-1150

현대사회는 '정신건강', '마음건강'이 매우 중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해치는 중요한 원인에는 '빙의', '신기운'의 폐해가 매우 큽니다! '의학적'으로도 규명이 안되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해법을 찾으십시오!!"

[상담하면 도움이 되는 분]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신기운,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 가지 영적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빙의와 신기운으로 인한 문제는 병원에서도 안되고, 최고의 심리상담으로도 안되고, 무속굿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 영적기운을 환자로부터 제거하고 몸 밖으로 분리하고, 차단하고, 다스릴(천도)줄 알아야 해결이 됩니다!!

[빙의로 인한 대표적인 증세]
▣ 만성우울증·가위눌림·심한 불면증·공황장애·공포증·심한 불안증세 ·악몽 자주꿈·망자 자주 꿈에 나타남·몸이 매우 무거움·만성피로감 이 심한 경우! ▣ 환청·환각증세 심한경우!
▣ 증세는 있으나 병원에서는 진단이 이상 없이 나오는 경우! ▣ 혼자 중얼거림 심한 경우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이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어느 시점 이후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이상행동)!
▣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 등. ※ 자살충동 심한경우(손목긋는 자해행위 자주함)
▣ 병원에서 낫지 않은(희귀병),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감정 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계속되는 심한 우환, 사고, 줄 초상나는 경우, 매우 심한 가정불화 (의처, 의부증 심함)
※ 애완견 천도 가능, 조류(새종류), 개, 돼지, 소, 닭, 오리, 뱀종류, 구렁이, 어류(장어, 물고기 종류일체), 식물령(큰나무등), 모든 동·식물령 천도가능함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밤에만 증상이 심하고 밤에 주로 나가는 경우
※ 신병 앓고 있는 분: 신기운 떼어내고자 하는 분 환영!
※ 특히 기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탈(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이 나신 스님, 타 종교인, 성직자, 재가 불자, 일반인(종교와 무관함) 상담 환영 합니다!(비밀보장, 출장 상담도 가능)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환자 직접 오지 않아도 됨) ※육지계신 분 : 당일 정성가능(아침비행기, 오후 비행기) 공항에서 10분이내 거리

49재·천도재 전문도량 전국최고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상담원
마음치유·정신건강치유 전문상담원 제주불교조계종금강선원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연동 271-22) 3층 상담문의 : ☎ 064) 746-0789

“대학생 열정으로 부처님 가르침 전하겠다”

해인사, 진주보건대 불교학생회 창립법회 봉행

보경당서 100여 대학생 동참해
혜일 스님 “진리 향한 지혜 얻길”
상월결사, 기금 1000만원 전달

성낙두 경남지사장

지역 보건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진주보건대학에 불교학생회가 창립됐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는 3월 23일 경내 보경당에서 진주보건대 불교학생회 ‘반야’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 해인사 부주지 학암 스님,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 총무국장 향록 스님을 비롯해 반야 지도법사 적민 스님, 김훈희 지도교수, 김용진 국립경상대 지도교수, 해인사 소리길 합창단, 진주보건대학생과 대학생 전법 영남결사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진주보건대 불교학생회 ‘반야’는 지난해부터 해인사 대중스님들과 지도법사 적민 스님, 김훈희 지도교수와 함께 준비기간을 거쳤다. 불교학생회 홍보활동과 학생모집을 통해 27명의 회원을 확보했으며, 정식 동아리로 등록 후 이날 창립법회를 맞았다.

진윤주 진주보건대 불교학생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한국불교의 현실 앞에 사부대중의 마음은 무겁지만 대학생의 열정으로 희망을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 녹여내는 모범이 되고자 한다”면서 “오직 전법으로 많은 이들이 부처님 법 앞에 다가서고 수행정진하는 불제자들의 열정으로 세상을 비추겠다”고 서원했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과 참석자들이 창립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인사 주지 혜일 스님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스님들 수행과 불교의 외형 확장에 힘쓰느라 정작 청년 불자들에 대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2년 안에 지역 학교 모두에 불교동아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를 신행함으로써 우리는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된다”며 “불교동아리 활동은 우리 생의 근본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수행하면서 성불의 길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이날 창립한 진주보건대 불교학생회 ‘반야’의 지도법사와 지도교수, 불교동아리방 운영지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일감 스님은 “상월결사는 지난해 입적한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원력과 노력으로 그동안 100여 곳의 불교학생회를 재창립했고, 20곳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올해 안에 약 200개의 불교학생회가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상월결사에서는 불교학생회의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국립경상대 지도교수도 축사를 통해 “학생들이 불교적 소양을 키워나가고 수행과 봉사활동을 열심히 임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대보살의 길로 나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창립기념법회를 마친 학생들은 해인사 율원장 금강 스님을 전계사, 해인사 율감 종선 스님과 무착 스님을 인례사, 지만 스님과 적민 스님을 증명법사로 삼귀의계와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불자들 합창, 빛고을에 울려 퍼지다

조계종 호남본사주지협, 전국불교합창제 개최

3월 27일, 광주예술의전당서
각 지역 10개 합창단 참여

빛고을 광주에 전국 불교인들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

조계종 호남본사주지협의회(회장 경우 스님, 선운사 주지)와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정혜신),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광주전남지회(회장 채송화)가 주최한 ‘2024전국불교합창제’가 3월 2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소운 스님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여해 축하했다.

5년 만에 다시 열린 이날 합창제는 강원지회, 서울경기남지회, 제주지회, 충남북지회, 상월청년합창단과 상월비보이, 부산지회, 전북지회, 대전지회, 광주전남지회 등 각 지역 10개 합창단이 아름다운 불교음악을 선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불교의 수행과 전법, 이 두 가지는 불교를 이끌어가는 힘이다. 전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음악 포교”라며 “최근 한국불교는 ‘선명상’을 전국에 보급하고 K-명상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합창 또한 선명상의 일환으로 전법에 최고의 방법이며, 자긍심을 갖고 사부대중에게 공유하면 좋겠다”고 격려했다.



‘2024전국불교합창제’가 3월 27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빛고을 영무장 농악단의 대북공연으로 시작한 합창제는 전국불교합창단연합회 강원지회를 시작으로 10개 지회에서 마련한 2곡을 노래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특히 상월청년합창단과 상월비보이팀이 힘 있는 노래와 춤을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한 전국합창단들은 마지막으로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를 합창해 전법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포페스테라의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역사, 인물로 읽어내다

국립전주박물관 · 금산사
3월 22~23일 학술대회

김제 금산사와 관련된 인물들이 한국사와 불교사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룬 ‘인물로 보는 금산사’ 학술대회가 김제 금산사 처영기념관에서 열렸다.〈사진〉

3월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과 연계해 개최됐다.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이 주최하고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 스님)와 한국고대사탐구학회(회장 조범환)가 주관한 학술대회는 ‘인물로 보는 금산사’라는 주제로 오랜 세월 전북민의 곁에서 미륵신앙의 성지로 법등을 이어 온 금산사와 관련 인물들이 한국사와 불교사에 미친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룬 논문들이 발표됐다.

3월 22일에 진행되는 1부의 발표 주제는 △진표(眞表)의 점찰경에 관한 관점과 두 가지 계승(이병욱, 고려대) △금산사에서 법주사로, 점찰법의 확산과 영신(永深)(박미선, 명지대) △신라 하대 심지(心地)의 진표계 법상종 계승과 동화사 창건(임평섭, 서강대학교) 등 3건의 논문이 발표됐다. 23일 2부는 △금산사와 견훤(홍창우, 전남대) △고려 왕실과 혜덕왕사 소현(1038~1096)(김아네스, 한경대) 등 2건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 후에는 한국고대사탐구학회 조범환 회장을 좌장으로 5개 주제의 발표에 대해 신선혜(호남대), 백미선(충남대), 옥나영(홍익대), 진정환(국립익산박물관), 김수연(이화여대)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금산사 스님들의 사상과 업적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지 통찰의 기회를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산 정법사 수자타 아카데미 특별강좌 개강

수인 스님 ‘정화요리’ 특별강좌
10개월간 제철 채식요리 강의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가 3월 28일 경내 수자타 공양간에서 정법사 문화강좌 ‘수인 스님과 함께하는 정화요리’ 채식 특별강좌 개강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특별강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등의 심각한 현실에서 지구 환경을 지키는 채식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정화요리전문가와 국가환경교육사로 알려진 수인 스님을 강사로 초청해 12월까지 매월 셋째주 목요일마다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다. 각 강의에서는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을 중심으로 강의당 3가지 요리 조리법을 선보인다.

개강식에서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음식 철학을 정법사 신도님들과 공유하고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면 좋겠다”며 “잘 배워서 스님들을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좌를 진행할 수인 스님은 “채식과 환경은 맞닿아 있다는 생각에 비건채식 강의와 메뉴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비건과정과 접목해 강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곡사, 취봉 스님 열반 22주기 추모다례

취봉장학금 전달식도…청소년 6명에 500만원

취봉 스님 열반 22주기를 맞아 생전 후학 교육에 힘쓰고 인재불사에 진력했던 스님의 유지를 이어가기 위한 ‘취봉 스님 2주기 추모다례재 및 장학금 전달식’이 3월 24일 창원 불곡사 관음전에서 열렸다.〈사진〉

올해로 4회를 맞은 취봉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부산보건대 주가희, 수원 아주대 조하윤, 부산과학기술대 구동현, 창원 대암고 조예준, 창원 봉곡중 이정민, 창원 명곡여자중 문상화 학생 등 6명에게 총 500만원이 전달됐다.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은 “문중 여러 스님들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도움과 나눔을 통해 이타적 보살정신을 실천하는 취봉장학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담문도회 취봉장학회 대표 묵암 스님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학회로서 나눔을 통해 행복과 즐거움, 괴로움을 함께 나누겠다”며 “학생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안 마이산 탑사, 자비의 쌀 기부

자원봉사센터 통해 100가구에 1000kg 전달

진안 마이산 탑사와 (사)붓다봉사단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자비의 쌀을 선물했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스님)와 (사)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은 3월 26일 지역의 홀몸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해 자비의 쌀 1000kg(10kg 100포대)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요섭)에 전달했다.〈사진〉

자비의 쌀은 마이산 탑사 신도들이 부처님 전에 올린 공양미를 모은 것으로 진안군 11개 읍면, 100가구에 전해졌다.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최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불자들의 정성이 담긴 자비의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 마이산 탑사는 자비의 쌀 나눔, 연탄나눔, 김장김치나눔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참당암 3000일 지장참회기도 회향

용왕대재 함께 봉행…4000일 참회기도 입재도

고창 선운사 참당암(참당선원장 법만 스님)이 3월 24일 경내 대웅전 앞 야외법단에서 3000일 지장참회기도 회향 및 용왕대재를 봉행했다.〈사진〉 회향법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운집한 불자 1000여 명이 동참했다.

2015년 7월 5일 삼독과 과거 업장 소멸을 기원하며 입재한 참당암의 3000일 기도는 2018년에 1000일 기도를, 2021년 4월에 2000일 지장기도를 성만했다.

참당암 선원장 법만 스님은 “수행과 참회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깨달아 인생의 참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가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목 스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이 진행됐다. 유나방송 진행자 정목 스님은 “3000일 기도를 해본 뒤에야 비로소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세상 모두가 참회할 일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3000일 지장참회기도를 회향한 사부대중들은 4000일 기도를 입재하고 지속적으로 참회기도를 이어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 정관암 제8회 차· 시· 락의 밤 개최

울산연주인의 상에 정희성 하모니카 연주자

울산 정관암(주지 대활 스님)이 3월 23일 경내 야외 특설무대에서 차와 시, 음악이 함께하는 ‘제8회 차시락의 밤’을 개최했다.〈사진〉

정관암 주지 대활 스님은 “문수산 자락에 자리 잡아 자연을 벗 삼아 지낸 지 15년의 세월이 지났다”며 “힘든 여건과 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열게 된 조촐한 행사지만 즐거움이 가득한 힐링의 시간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공연에 앞서 울산연주인상 시상이 진행됐다. 올해 울산연주인상은 정희성 하모니카 연주자가 수상했다. 이어진 차· 시· 락의 밤 공연에는 경담문화 시낭송퍼포먼스, 울산 숟가락난타 공연, BTN불교TV중창단, 황보배 바이올린연주, 미스터트롯 가수 양지원이 출연해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주변에는 사진전시, 진달래 꽃길 걷기, 화전놀이, 떡메치기, 전통차맛보기. 주먹밥 식사 등이 열려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봄기운을 만끽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네팔, 모든 부처님 예경…'삼약 마하단' 성료

'올바른 보시의 큰 축제' 뜻해
파탄지구 축제로 1653년 시작
140여 불상에 공양 올리며 자선
5년에 한번 개최…연등불 예경

박영빈 객원기자


축제를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연등불 불상들. 사진출처=마이 레퍼블리카

네팔 불교에서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삼약 마하단' 축제가 지난 3월 14일 성만했다. 카트만두 각 사찰에 모셔진 불상을 한 곳에 모아 예경하는 이 축제에 대해 '사우스 아시아 뉴스 네트워크' '네팔리 타임즈' '마이 레퍼블리카' 등 현지 언론과 외신들이 특별보도했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의 파탄지구 더르바르 광장 근처에 위치한 낙바하 공원에서 열린 삼약 마하단 축제는 3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네팔 파탄 사원 연합회의 회원인 히라 라트나는 "삼약 마하단이란 '올바른 보시의 큰 축제'라는 뜻이다. 이름에도 있듯이 보시행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사람들은 이날 특별히 더 많은 보시와 공양을 올리며 불보살을 예경한다"고 설명했다.

삼약 마하단 축제는 카트만두 각 지구에서 열리며 개최시기 또한 다르다. 박타푸르지구에선 매년 열리고, 카트만두 중심지에서는 12년에 한 번씩, 랄릿푸르에서는 50년에 한 번씩 열린다. 기록상에 남은 가장 오래된 삼약 마하단은 1015년에 개최된 랄릿푸르지구의 축제이다. 이번에 열린 삼약 마하단 축제는 파탄지구의 축제로 1653년에 처음 시작됐다. 파탄지구의 삼약 마하단 축제는 1805년까지는 매년 개최되었으나, 축제를 위한 관리기금과 인원 통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5년에 한 번 개최되는 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축제의 기원에 대해선 7세기경 네팔의 거상이었던 순데르 사르트 바후의 전설이 전하고 있다. 계속되는 사업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랄릿푸르의 황금사원에 모셔진 연등불의 불상을 본존으로 카트만두의 각 사찰에 있던 중요한 불상들 한자리에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푼 것이 삼약 마하단 축제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이번 파탄 삼약 마하단 축제에는 파탄지구의 여러 지구에서 140여 구의 불상들이 낙바하 공원으로 이운됐다. 불상들은 축제의 기원과 관련된 연등불 불상이 126구였고, 나머지는 협시보살상, 혹은 평소에 공개되지 않는 작은 불상들이었다. 연등불 불상을 공원의 둘레에 따라 봉안하고, 공원 중앙엔 보살상과 불화 등을 전시한 예불 장소를 마련해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참배할 수 있게 자리가 마련됐다.

양일에 걸쳐 진행된 축제에서 참가자들은 각 불상에 꽃과 등불, 과일, 불전 등의 공양물을 올리고 각 사원에서 불상을 모시고 나온 수행자들에게도 공양물을 보시했다. 한 참가자는 "평소와는 달리 모든 부처님들이 한 곳에 계시고, 또 보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크게 열리는 것은 귀한 기회다. 축제가 열릴 때마다 항상 참가한다"고 말했다.

中, 북위시대 사찰 유적 발견

대형 불탑 중심…관영사찰 가능성도


다퉁시 유적에서 발굴된 불두와 벽화편. 사진출처=신화통신

중국 '신화통신'이 3월 14일 "중국 산시성(山西省) 고고연구원이 최근 같은 성 다퉁(大同)시 핑청(平城)구에서 불탑을 중심으로 하는 북위시대 사찰 유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고고연구원 측은 출토된 유물과 사찰 규모에 따라 이 유적이 관영사원이나 당시 황실과 관계된 사찰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해 눈길을 끈다.

다퉁시 고고연구소는 지난해 6월 도시 개발 중 발견된 고대 유적에 대해 중국국가문물국의 인가를 받아 2개월간 긴급발굴조사를 실시했다. 발굴 조사 결과 유적이 북위시대(386~589)에 조영된 사찰 유적임이 밝혀졌으며,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다량 출토됐다. 리슈윈 다퉁시 고고연구소 부소장은 "유적 중심부에는 1변이 16m에 달하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탑 기단이 발굴됐다"면서 "특히 당시로선 매우 고급 건축에 사용되는 기법이 활용됐다"며 일반적인 사찰 유적과는 다름을 밝혔다.

발굴구역 주변의 조사에서는 탑의 기단을 중심으로 북쪽과 서쪽의 구역에서 각각 건물의 유구가 발견되고 있어 이 유적이 불탑을 중심으로 하는 사찰이었음이 드러났다. 특히 탑기단의 중앙 부분에서 정사각형의 복장공이 발견됐으며 구멍 바깥의 주변에는 진주가, 구멍 바닥에서는 진주와 산호, 구리반지 등이 출토된 것도 동시대의 다른 유적들과 다른 특이점으로 꼽히고 있다.

다퉁시 고고연구소 측은 "사원 유적 근처의 다른 유적에서 발견된 철갑옷의 파편에서 해당 사찰이 이곳 핑청을 수도로 삼았던 북위 평성시대(398~494년)에 세워진 사찰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리슈윈 부소장은 "북위 평성 시대의 불탑 건축 형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실물 자료가 드러났다"면서 "사찰이 당시 궁성 유적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곳에 있고, 출토한 불상들의 섬세함과 채색된 격에서 원래는 관영사원이나 황실과 인연이 있는 사찰이었던 것이 추측된다"고 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개조가 전한 이타행 가르침 이어가겠습니다"

신뇨엔(眞如苑), 3월 28일 신뇨 교슈사마 탄신118주년 대재

한국 서울·부산정사 동시 진행
교도 대표 "고난에 자애 관철"


서울 정사에 모인 신뇨엔 교도들이 교슈사마 영전에 꽃을 올리고 있다.

신뇨엔(원주 게이슈사마)은 3월 28일 일본 총본부 및 응현원을 비롯한 신뇨엔 전 세계 의처에서 신뇨엔 개조 교수사마 탄신 118주년을 기념한 탄신재를 봉행했다.

이날 탄신재에는 진언종 총본산 제호사 좌주이자 제호파 관장, 대본산 삼보원 문적인 카베세 유우가 대승정을 비롯하여 진언종 제호파 총무부장 나카다 준에이 등 제호사 관련 임원들이 내빈으로 참석했으며, 교도 1만여 명이 함께 동참했다. 서울정사와 부산정사에서 생중계로 일본과 실시간으로 탄신재를 함께 거행했으며, 서울정사 100여 명, 부산정사 130여 명이 동참했다.

탄신재는 성지 오야소노(親苑) 진징사 오쿠노인(奧阮)에서 봉수되어진 등불을 부처님 존전과 신뇨엔 상주 본존 영존에 이운 점화하는 등명향화 의식을 시작으로 신뇨엔 원주 입장과 〈대반열반경〉 독경, 축원문 봉독, 신뇨엔 개조 이또신죠, 소오야(總親) 사마의 생전 가르침 영상, 카베세 유우가 진언종 대승정의 축사, 신뇨엔 원주의 서교(법문) 등이 이어졌다.

신뇨엔 원주는 "신뇨 교슈사마(개조)는 '어떠한 괴로움과 고난에도 자애를 관철하며 목숨과 맞바꾼 구제에 걸었다'고 술회하셨다"며 "탄생 118년의 의미는 신뇨엔 상주의 빛을 널리 비추는 이타행에 있다. 이타를 통한 보은의 길, 법부모의 자애를 전하는 길에 함께 나서자"고 당부했다.

교도를 대표하여 이시카와현 사회복지협에 근무중인 에다 씨는 "신뇨엔 가르침 속에 자라 복지관련 대학에 진학 현재 봉사와 지역지원에 매진하고 있다"며 "지진 등 재난에도 나무신뇨(南無眞如)를 다짐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구제를 위한 마음을 항상 내고 있다. 수해와 각종 재난에서 신뇨의 구제가 펼쳐지고 있다. 심신이 피폐해져 불평불만이 생길 때도 이타에 대한 마음으로 이를 바꿔 꾸준히 정진해가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올렸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교사로 봉직 후 미국교구를 일구고 있는 페드라자 마리 씨는 "성지 오야소노 근처 미국 공군기지서 태어나 어려서 신뇨 가르침을 접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로 옮겨와서도 이 가르침을 되새겨 살고 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빈곤 문제나 학생 안전 문제에서 그 가르침이 항상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탄신재는 교도연합부와 청년회, 봉사단체대표 들이 자비실천 맹세를 담은 헌등과 헌화로 끝을 맺었다.

한편, 신뇨엔은 개식 전 영존 료도 지사마를 선두로 신뇨엔 교도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다치키와 시내를 행진했다. 신뇨엔은 3월 31일 제2정사 상량식 봉행과 함께 11월 17일 일본 진언종 제호사 개창 1150년을 축하하기 위한 신뇨엔 제섭회가 제호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그리스 최초 '선 센터' 개원한다

아테네 케라메이코스 선 센터 등 2곳


카이산지 선 센터 항공사진. 사진출처=선 센터 아테네

지난 3월 16일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는 그리스 최초의 선 센터 개원 예정 소식을 전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케라메이코스 선 센터와 세리포스 섬의 카이산지 선 센터 2곳이 개원 예정이다.

두 개의 선 센터는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을 재해석해 설계했다. 선 철학을 공간적·경험적으로 구현하여 수행자 스스로 진정한 본성에 대한 인식을 깨닫도록 돕는다.

케라메이코스 선 센터는 38명의 수행자를 위한 명상 공간과 무술과 요가 수행 공간이 50여 평 규모로 조성되며 2~3층에는 입방자와 강사를 위한 방사와 공양간이 들어선다.

카이산지(海山寺) 선 센터는 천혜의 자연을 품은 그리스 휴양지 세리포스 섬에 건립 중이다. 명상 공간과 요가 수행 공간, 휴식 공간을 중심으로 설계했다. 또한 출가자와 장기 수행자를 위한 10개의 방과 공용 욕실, 넓은 주방이 있으며 센터 외부의 방에는 3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선 센터에서는 좌선, 요가, 거합도, 합기도, 태권도 수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는 선원장의 선 입문 수업이 예정되어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제40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4년 4월 13일~6월 8일
매주 토요일 오후 1:30~5:30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문 의 : 031-470-3200/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이모육불도〉 왕진붕, 중국 원, 14세기 전반, 보스턴미술관. 석가모니의 이모이자 양모로 최초의 여성 출가자가 된 대애도(大愛道)를 그렸다. 한국 첫 전시.

여성 관점서 한·중·일 불교미술 만나다

호암미술관, 6월 16일까지 기획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국내외 27개 컬렉션 92건 출품…'수월관음도' 등 최초 공개 9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호암미술관이 동아시아 불교미술에 담긴 여성의 번뇌와 염원, 공헌을 조망하는 대규모 기획전을 연다. 3월 27일~6월 16일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불교미술을 후원하고 제작했던 여성들을 조망하는 전시로 눈길을 끈다.

전시 제목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Unsullied, Like a Lotus in Mud)은 석가모니부처님의 말씀을 모아 놓은 최초의 불교 경전 〈숫타니파타〉에서 인용한 문구다. 불교를 믿고 불교미술을 후원, 제작했던 '여성'들을 진흙에서 피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연꽃'에 비유했다.

기원후 1세기경 부처님 가르침이 동아시아로 전해진 이래 여성은 불교를 지탱한 옹호자이자 불교미술의 후원자, 제작자로서 기여해 왔다. 당시 여성들은 불교를 통해 원(願)을 세우고 이뤄가는 성취감과 이로 인해 쌓은 공덕을 타인에게 돌리는 고귀한 기쁨을 알아갔다. 이 전시는 진흙에서 피어난 청정한 연꽃처럼 사회와 제도의 제약에서 벗어나 '나'로 살고자 했던 여성들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호암미술관은 전 세계 27개 컬렉션에서 모은 불화, 불상, 사경과 나전경함, 자수, 도자기 등 다양한 장르의 불교미술 걸작품 92건(한국미술 48건, 중국미술 19건, 일본미술 25건)을 한자리에 모았다. 작품 중 한국에서는 리움미술관을 비롯해 '이건희 회장 기증품' 9건을 포함한 국립중앙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 등 9개의 소장처에서 국보 1건, 보물 10건, 시지정문화재 1건 등 40건을 선보인다. 해외에서는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보스턴미술관 등 미국의 4개 기관, 영국박물관 등 유럽의 3개 기관, 도쿄국립박물관 등 일본의 11개 소장처에서 대여한 일본 중요문화재 1건, 중요미술품 1건, 현지정문화재 1건 등 52건을 전시한다. 전시 작품 중 〈금동 관음보살 입상〉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1-7〉 〈아미타여래삼존도〉 〈수월관음보살도〉 등 9건은 국내에서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이다. 또 해외에 흩어져 있던 조선 15세기 불전도의 일부인 〈석가탄생도〉(일본 혼가쿠지)와 〈석가출가도〉(독일 쾰른동아시아미술관)를 세계 최초로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석가여래삼존도〉(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47건도 한국에서 처음 전시하는 작품이다.



일반에 첫 공개되는 〈금동 관음보살 입상〉 백제, 7세기 중반, 개인소장.

전시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다시 나타나는 여성'에서는 불교미술 속에 재현된 여성상을 인간, 보살, 여신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지난 시대와 사회가 여성을 바라본 시선을 이야기한다.

1부는 첫 번째 섹션 **'여성의 몸:모성(母性)과 부정(不淨)'**에서는 조선 전기와 후기를 대표하는 불전도와 중국 원대의 백묘화, 고려시대의 변상판화, 일본 에도시대의 회화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불화의 향연을 통해 불교미술 속에 시각화된 여성의 유형과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2섹션 **'관음: 변신(變身)과 변성(變性)'**에서는 본래는 남성이지만 모든 중생의 어머니가 돼 달라는 뭇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대자대비하고 자유자재한 관음보살의 응신들이 눈앞에 동시에 현현한 듯한 특별한 공간을 만날 수 있다.

1부 마지막 섹션 **'여신들의 세계: 추앙과 길들임 사이'**에서는 고려시대 왕실과 민간에서 활발히 신봉했던 마리지천과 일본과 중국의 불화 속 부처님의 감화를 받아 선신(善神)으로 거듭난 귀녀(鬼女)의 이야기를 통해 여성을 교화시키고 길들여야만 하는 존재로 바라본 과거의 시선을 살펴본다.

2부 '여성의 행원(行願)'에서는 찬란한 불교미술품 너머 후원자와 제작자로서 여성을 발굴해 사회와 제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자기로서 살고자 했던 여성들을 만나 본다. 저고리 안에 쓴 발원문, 사경 말미에 금물로 적은 기록, 불화의 붉은색 화기란에 빼곡히 적힌 여성들의 이름과 바람들에 주목한다.

2부의 첫 번째 섹션 **'간절히 바라옵건대:성불(成佛)과 왕생(往生)'**에서는 사경과 복장 발원문이 펼쳐진 공간에서 고려 여성들이 공덕을 쌓은 마음을 돌아보고, 아미타여래, 극락정토와 관련된 불화와 불상을 통해 여성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내세를 조망한다.

2섹션 **'암탉이 울 때: 유교사회의 불교여성'**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했던 조선시대의 왕실 여성들이 발원한 불상과 불화를 통해 불교도이자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의 의미를 헤아린다.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선보이는 문정왕후(1501~1565)가 발원한 〈영산회도〉와 〈석가여래삼존도〉 〈약사여래삼존도〉는 16세기 금선묘(金線描) 불화를 통해 한 시대의 불화 양식을 선도한 독보적인 후원자로서 왕실 여성의 영향력을 살필 수 있다.

마지막 섹션 **'여공(女工): 바늘과 실의 공덕'**에서는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자수와 복식을 여성의 일이자 예술이란 관점에서 새롭게 살펴본다. 순천 〈송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물〉 일습은 1662년 나인 노예성이 소현세자의 셋째 아들인 경안군 부부와 동료 나인들의 장수를 바라며 불상 안에 봉안한 것으로, 저고리와 배자를 포함한 556점의 복장물이 13년 만에 공개돼 눈길을 끈다.

전시를 담당한 이승혜 큐레이터는 "시대와 지역, 장르의 구분을 벗어나 여성의 염원과 공헌이란 관점에서 불교미술을 조명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전통미술 속에서 동시대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31-320-1801

민족사, 근대 개화기 불서 9종 원본 전시

4월 4~7일, 서울국제불교박람회서

도서출판 민족사(대표 윤창화)가 4월 4~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 근대 개화기 불서 원본 9종을 공개한다. '불서, 100년 전으로 가다'를 테마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총 9종의 개화기 불서 초판본이 공개될 예정이다.



허영호(1900~1958) 〈불교성전〉 (해동역경원, 1936)

일반적으로 '근대 출판'이라고 하면 과거 목판에서 수작업으로 한 장 한 장 찍어 내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판방식인 연활자를 이용해 다량 출판하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번에 선정된 9권은 1910년대~1945년대까지 근대 개화기 불서로 불교출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만해 한용운(1879~1944)의 조선불교유신론(불교서관, 1913), △불교대전(범어사, 1914) △백용성(1864~1940)의 귀원정종(중앙포교당, 1913) △각해일륜(대각교당, 1930)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성전인 허영호(1900~1958)의 불교성전(해동역경원, 1936) △조선사찰 31본산 사진첩(1929년) △신소천(1897~1978)의 금강반야바라밀경 강의(사바도원, 1936) △안진호(1880~1965)의 신편 팔상록(만상회, 1942) △김적음(1900~1961)의 극락 가는 길(선학원, 1936) 등이다. 모두 민족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들로, 전시에서는 간단한 해설도 포함됐다.

윤창화 대표는 "책은 글을 쓰는 저자와 출판사, 그리고 독자 세 사람이 만들어가는 지적 예술로 저자는 책 속에 자신이 탐구한 세계와 혼을 담고, 출판사는 정성 들여 그 혼집을 짓고, 독자는 그 혼집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게 된다"면서 "기대와 설렘 속에 탄생한 책이 지적유산으로서 영원히 독자의 가슴에 남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한국 사찰과 명상, 'K불교문화' 콘텐츠로

문화재연구원 · 불교방송
3월 26일, 업무협약 체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이 BBS불교방송(이사장 덕문스님)과 3월 26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자연유산을 활용한 K불교명상 콘텐츠 구축·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국내 유일 문화·자연유산 종합 연구기관과 불교계 공익 방송재단이라는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 자연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불교명상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의 제작과 전시·교육·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협약내용은 △국가유산(자연유산)의 가치증진 및 국내외 홍보 △명승으로 지정된 사찰과 사찰경관림을 활용한 K불교명상 콘텐츠 제작 △자연유산 명승 등으로 지정된 사찰의 전시·교육·홍보 △국가유산 체제 홍보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대표적인 전통 불교유산 중 하나인 명상은 인간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실현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행 방법의 하나이다. 이에 양 기관은 불교명상 문화의 보급·확산에 기여하고자 사찰경관림과 같이 우리나라 사찰 주변의 빼어난 자연과 함께 명상에 몰입할 수 있는 영상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은 명승으로 지정된 사찰 26개소의 자연유산적 가치를 조사하고 BBS불교방송은 영상촬영과 편집, 방송 프로그램 송출 등을 각각 담당해 K불교명상을 보급한다. 임은호 기자

마음여행 해외성지순례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대탑, 발리 6일
6월10일 출발~6월15일 도착(6일간)
동참금 | 239만원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불리우는 보로부두르 대탑은 1,200여 년전 불교가 찬란한 빛을 낸 세계 최대의 불탑으로 화엄경의 성지입니다.
그리고 신들의 섬이라 불리는 발리는 현대문명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의 보고입니다.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2024년 5월24일~6월2일
동참금 | 339만원
일 정 | 인천–서안(진시황 병마용갱,화청지) · 법문사(부처님 불지사리) · 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만리장성의 서쪽 최전방 성루) · 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베제크릭천불동,화염산,고창고성,교하고성)–우루무치(천산천지)

인도 히말라야의 고대왕국
라다크, 헤미스사원 축제 8일
2024년 6월13일~6월20일
동참금 | 문의
일 정 | 인천–델리–라다크–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초 호수–델리–인천
인도 히말라야의 고대왕국 라다크는 천년벽화로 유명한 알치사원과 헤미스 사원 축제 등 수많은 티베트의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2024년 6월07일~6월22일
동참금 | 519만원
일 정 | 인천–성도–라싸–갼체–시가체–사캬–라체–사가–파양–다르첸–수미산코라–구게왕국–마나사로바호수–사가–라싸–인천
※순례 신청하신 분에게는 우주의 중심 카일라스 책을 드립니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27~4/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보리도차제광론2(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2)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2	일곱번의 작별인사(무비스님의 49재 법문집)	무비	불광출판사	7	체계불학:신념체계로서의불교학	김성철	오타쿠
3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8	수구즉득다라니:금강정유가최승비밀성불수구즉득신변가지성취다라니의궤	불공금강/석법성	운주사
4	중관학 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9	숫타니파타-붓다의 말씀(소/A6)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5	해주스님의 법성게 강설	수미해주 강설	조계종출판사	10	부처님이 설하신 율장(비구편)	비구 범일	여시아독

책세상

세계 불교윤리 사상·쟁점들 '한눈에'



불교윤리1·2

다니엘 코조트 · 제임스 마크 쉴즈 편집

이동수 옮김/ 3만8000원 · 4만3000원

전문 학자 29명, 논문 31편 엮어
종파, 지역별 불교윤리 개론부터
안락사 등 현대 쟁점까지 망라해
불교윤리 전반 비판적 고찰 의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윤리(ethics)는 삶의 바람직한 방향이며,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관념의 표준이다. 조금 더 자세히 풀이하면 윤리는 사회적 존재로서 나와 타인이 서로 마땅하게 지켜야할 도덕적 규범이자, 사회적 관계의 도덕적 표준을 의미한다.

하지만, 상호가 지켜야할 도덕적 규범이라는 것이 쉽게 규정되지는 않는다. 소위 인간이 행해야 할 도리라는 것도 민족마다 다를 수 있고, 지역이나 세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불교에서도 '이것이 불교 윤리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불교는 2600여 년의 기나긴 역사를 지닌 만큼 시대적, 지역적, 민족적 변용을 거친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생성,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하게 분화되고 정교화 돼, 각자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 놀라울 정도로 도덕적, 윤리적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의도와 행위에 의한 결과, 즉 업(業) 개념과 사성제(四聖諦), 팔정도(八正道)이다. 스스로 불교라고 칭하는 종파들은 필연적으로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이에 따라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열반을 지향한다. 그리고 만약 이 토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불교의 역사는 곧 출가 승가가 이끄는 전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승가는 공동체 생활을 기본으로 한다. 그리고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 할 계율들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윤리적 행동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다. 승가는 정교한 계율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며, 비구에게 227개, 비구니에게는 311개, 일견 과도하게 여겨지는 계율이 주어진다.

윤리가 불교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이유는, 불교의 종교적 이상이 어떤 특정 신에게 복속하거나 순종하는 데에 있기보다 덕행의 완성과 깨달음의 성취에 있기 때문이다. 즉 스스로 지은 바에 의해 그 결과가 이루어지므로,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하고 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

대원학술총서 14번째 시리즈인 〈불교윤리 1·2〉는 불교 윤리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다.

책에는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29명의 학자가 불교 윤리의 전통·현대적 주제에 대해 균형 있고 비판적으로 성찰한 31편의 논문들을 모아 엮었다.

논문들은 주요 불교학파나 중관파·정토종·선불교·탄트라 등 종파불교, 남아시아·동남아시아·동아시아·티베트 등 지역 불교의 전통적인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자살·낙태 등 현대 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실제, 최근 영화 〈플랜75〉와 연극 〈비Bea〉에서 다뤄지며 다시 사회적으로 불붙은 조력존엄사와 안락사 논쟁에 대해 불교윤리적 해법의 단초를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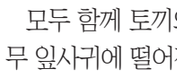
"불교도에게 죽음은 최후의 목적이 아니라 환생과 새로운 삶으로 가는 문이다.〈중략〉 붓다는 인간의 고통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그의 말과 본보기 사례를 통해 그의 추종자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도록 격려했다. 그러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붓다는 의료 치료 선택사항으로 안락사를 거부했다. 불교의 의사들은 2000년이 넘게 그의 선례를 따라왔고, 오늘날 불교도들이 이것이 바뀌어야 하는 설득력 있는 이유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다." –〈불교윤리2〉 620~621쪽

이처럼 이 책은 불교 윤리의 중요한 주제 대부분을 다루고 있는 대작이다. 당분간 '불교윤리'라는 주제로 이보다 더 방대하고 충실한 저서는 나오기 힘들 것이다.

〈불교윤리 1·2〉의 최대 장점은, 붓다 재세 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 주제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이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관점도 폭넓게 제시돼 있다는 것이다.

책을 번역한 이동수 씨는 "불교윤리와 종교윤리, 서양철학의 윤리를 비교·연구하고자 하는 불자나 불교의 가르침, 윤리를 알고자 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흥미를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불교 우화에서 뽑아낸 삶을 바꿀 실천과제들



물뿌리개를 손에 쥔 원숭이

미카엘 슈타인반트 지음

원당희 옮김/ 세창미디어

1만8500원

옛날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깊은 숲 속에 근심 많은 토끼가 살고 있었다. 근심 많은 토끼는 어느 날 풀을 먹다가 '만약 세상이 멸망하면 어디로 피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찰나, 사과 하나가 나무 잎사귀로 떨어져 '쿵'소리가 났다. 소리에 놀란 토끼는 겁에 질려 "세상이 멸망한다"면서 굴에서 뛰쳐나갔다.

이를 본 친구 토끼들과 다른 동물들도 함께 겁에 질린 채로, 숲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이 든 사자는 공포에 사로잡힌 무리들에게 이유를 물었고, 소문의 진원지를 찾았다. 이내 근심 많은 토끼와 대면한 사자는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하는 이유를 물었고, 토끼는 나무 아래 자신의 굴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모두 함께 토끼의 굴에 가보니 종려나무 잎사귀에 떨어진 사과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 전생담 중 하나인 〈다다바 자카타(Daddabha Jataka)〉에 담긴 것이다. 이 내용은 요즘 학술 용어로 부정적 소식이나 기억이 강렬하게 다가오고 오래 기억된다는 '부정성 편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독일에서 불교의 마음챙김과 묵언 수행을 지도하는 미카엘 슈타인반트가 지은 〈물뿌리개를 손에 쥔 원숭이〉는 부처님 생애와 전생담(자타카)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낸다. 이 책은 불교 전통에서 유래한 52가지 우화로 독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무엇보다 이 책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일상 속에서 안정·평안으로 나아가는 실천방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부처님의 생애에서 뽑아낸 교훈과 전생 이야기들은 인간관계, 자아 인식, 욕망과 집착의 극복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각 이야기 후에는 그 교훈을 현대적 맥락에 맞게 해석한 해설이 이어진다. 이러한 구성은 독자들이 각 우화 속에서 제시된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앞서 소개한 〈다다바 자카타〉를 통해서 저자는 다수가 옳다고 하는 일에 아무 생각없이 뒤따라가지 않았는지, 부정적 소식들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되돌아볼 것을 권유한다. 또한, 한 주의 목표로 뉴스를 하루에 한 번만 찾아보는 등 매체 이용을 줄이고, 모든 소셜미디어 활동을 포기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물뿌리개를 손에 쥔 원숭이〉는 불교의 깊은 지혜를 현대적 해석과 함께 제공하며,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 성찰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배우며,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를 얻게 된다.

저자는 "제 삶에서 개인적으로 불교 이야기와 연결되는 일화들을 통해 현시대에 통용되는 사고의 접점을 찾아보려 했다"면서 "그렇기에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이 이야기로부터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야기를 마친 저자는 책의 말미에 묻는다.

"나는 내 삶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을까? 나는 나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 내는 대장장이일까?"

신중일 기자

가장 간결한 260자의 불교 철학

『반야심경』의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뿐만 아니라
핵심 사상인 공의 세계로 이끌어 주는 길잡이

화제의 신간



도표와 함께 읽으면 반야심경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산스끄리뜨본, 한역본, 에드워드 콘즈의 영역본을
비교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해설,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반야심경』은 자주 접하는 경전이지만
막상 내용을 모르거나,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돼서
차마 주변에 물어보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반야심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명료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글 김명우 · 그림 배종훈 | 280쪽 | 18,500원



도표로 읽는 시리즈

도표로 읽는 명상 입문
2023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혜명 김말환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입문
2016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우수도서
글 이자랑 · 이필원 그림 배종훈 / 13,800원



도표로 읽는 유식 입문
글 안환기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불교 교리
글 법상 · 그림 용정운 / 15,000원



도표로 읽는 부처님의 생애
글 묘장 · 그림 배종훈 / 15,800원



도표로 읽는 경전 입문
글 정운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글 목경찬 · 그림 배종훈 / 15,0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MZ세대에 전하고픈 불교이야기들



인생 백년 절집 반나절 쉼만 못하다
허상녕 지음
민족사
1만7500원

85세 불자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불교설화, 스님 이야기들 풀어내
MZ세대에게 불교 흥미 유발 유도
"스토리텔링으로 전법하려 합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MZ세대는 현재 한국사회를 이끌어가는 주축 세대이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MZ세대들이 소비하는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MZ세대의 소비 행태를 변화시키고, 기업 브랜드와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도 유도하는 것이다. 불교 역시 마찬가지다. MZ세대, 바로 아랫세대인 알파세대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낼 전략을 수립해 이들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야 미래 신도와 수행자를 확보할 수 있다.

민족사가 발간한 〈인생 백년 절집 반나절 쉼만 못하다〉는 85세 불자 오피니언 리더가 MZ세대와 함께 기억하고 전하고픈 불교이야기를 담아냈다.

저자인 허상녕 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하고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조정위원·금융발전 심의위원·세제발전 심의위원·한일중소기업협력 위원장 등을 거친 경제계 인사이다. 이렇듯 불교와 무관한 듯한 그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것은 대학 시절 한국 고대사와 동양 미술사를 부전공하며 미술사학자 황수영 교수와 감포 앞 동해에 있는 문무대왕릉과 감은사지를 현지의 보재기(잠수부)들과 같이 답사하고, 황 교수의 강의를 통해 불교의 교리와 문화, 사상과 철학 등 불교적 소양을 쌓은 덕분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어려운 불교 철학에 대해 논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님(원효 대사, 나옹 선사, 달마 대사 등)과 불교 설화를 통한 교훈, 왕오천축국전, 이차돈의 순교, 삼국유사 같은 친숙한 소재로 어려운 불교 이야기를 쉽게 풀어나가고 있다.

저자는 "어려운 철학적 이론보다는 불교에 관하여 궁금했던 점과 불교 상식 및 역사에서 변곡점이 된 유명 스님들의 스토리텔링을 소개하면, 미래 세대가 쉽게 불교에 접근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또한 "MZ세대에게 우리 정신문화의 DNA가 깊이 녹아 있는 불교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는 것이 불교 전법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것도 어려운 불교의 열반으로 가는 3가지 수행인 계율·선정·지혜의 철학적 이치보다는 젊은 그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어 불교에 쉽게 다가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붓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 책을 읽으며 역사적 이야기들을 메모하다 보면 불교의 시작인 인도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불교, 문화, 역사가 한눈에 보인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는 인간의 스토리텔링 결과물이고, 불경은 역사적 보물창고라는 것이다.

"우리 젊은이의 혈맥에는 불교적 DNA가 알알이 박혀 있다. 이제 2,000여 년을 답습해 온 중국불교에서 벗어나 '새로운 K-불교문화'를 구축하여, K불교문화를 배우고 익히려 세계인이 구름처럼 몰려들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천년 후의 우리 후손들이 불교 철학과 문화, 사상에 의지하여 사는 국민이 되도록 하는 구상과 실행을 이끌어 낼 기회다."

–저자의 마무리 말 중에서–

문화는 한 나라의 정체성이다. 문화가 발전하면 그 나라의 위상도 높아진다. 지금의 세계적인한류 붐의 기저에는 K-불교문화가 있었다. 그러므로 미래세대에게 한국불교를 전법하는 것은 한류를 이어가는 힘이 될 것이다.

선승이 전하는 중국 선문화 '진면목'



중국선 로드맵
법지 지음
운주사
3만 3000원

불교의 역사는 융합과 습합, 변용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의 포용성은 지역, 민족, 세대, 문화, 철학 등의 경계를 무장해제시킨다.

중국에 전래된 불교 역시 중국 전통의 사상과 문화, 관습 등과 융합하여 중국적 특색을 가진 종파를 탄생시켰으니 바로 선종(禪宗)이다. 선종은 종교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이후 중국의 사상과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중국과 문화적 교류가 활발했던 한국 역시 선종을 받아들여 발전시켰으며, 선종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장자종단인 조계종도 선종을 표방하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의 선불교를 이해하는 것은 동아시아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선(禪)'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한다. 지금도 적지 않은 선수행자들이 중국의 선종사찰들을 순례·기행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 숭산 소림사의 달마동. 초조 달마 대사가 면벽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실참과 교학을 겸비한 수행자이자 선학자인 법지 스님(부산 대원사 주지)은 한국선의 뿌리가 되는 중국선을 연구하기 위해 중국 남경대에서 수학하며 박사학위를 받았고, 15년 동안 중국 선종사찰들을 순례하며 조사들이 가르침을 찾아왔다. 〈중국선 로드맵〉은 그 치열했던 여정을 오롯이 담아낸 기록들이다.

15년의 세월 동안 틈틈이 광활한 중국 전역을 유행하며 25명 조사들의 행적과 사상, 그들이 주석했던 사찰을 더듬어 기록했다. 사찰로는 숭산의 소림사부터 서안의 와룡선사, 인물로는 선종 초조 보리달마부터 근대의 허운 선사까지, 시대로는 1500여 년 세월을 아우른다.

수행자로서 선사들이 주석한 사찰을 찾아 그들이 남긴 선의 향기를 직접 맡아보고, 스스로 각성의 계기로 삼고자 한 정진심과 노고가 온전히 담겨 있으며, 함께 실린 사진들은 투박하지만 그 여정의 진정성을 느끼게 해준다.

법지 스님은 발문을 통해 "선사들의 깨달음이 사무쳐 약 15년의 세월을 중국을 왕래했다"며 "지금 〈중국선 로드맵〉은 저자가 본 선 맥락인 '길 없음'에서 역으로 종장(宗匠)들의 선리(禪理)의 길을 조견(照見)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불교 잡지 톺아보기

광개토대왕은 전륜성왕을 꿈꿨다

〈월간 불광〉 4월호



불광미디어가 발행하는 불교 대중문화 잡지 〈월간 불광〉 4월호(통권 594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 주제는 '광개토왕과 불교'다. 우리나라 최대 정복군주로 알려진 광개토왕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 '영락태왕(永樂太王)'과 '호태성왕(好太聖王)'이다. 영락(永樂)은 '영원한 즐거움'을 뜻하는 불교적 의미를 지니며, 성왕(聖王)은 전륜성왕을 뜻한다.

광개토왕은 소수림왕 시대 고구려의 불교 공인 이후,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아 통치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 즉위 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으며, 평양에 9개의 사찰을 세워 고구려의 평양 천도를 준비했다. 또 왕이 정복한 요동 지역에 '아육왕탑'을 세웠다. 아육왕은 인도의 아쇼카왕으로 전륜성왕을 대표한다.

즉, 광개토왕은 고구려의 전륜성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불법을 믿어 복을 구하라'는 교시를 내려,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이 모든 일이 왕이 즉위하고 3~4년 내 이뤄진 일로 추정된다. 이번호에서는 광개토왕이 통치이념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살펴봤다.

광개토왕의 능비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고구려 역사를 알려주는 능비의 역사적 가치, 특히 능비의 쟁점인 '신묘년(辛卯年)' 관련 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살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글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불교신앙'이다. 고구려 불교는 문헌 기록이 많지 않아, 연꽃과 예불도 등 고분벽화에 나타난 불교적 요소는 고구려 불교를 이해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는 일반적으로 사신도, 수렵과 무용 등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죽은 이의 연화화생(蓮花化生)을 염원하는 불교적 요소다. 한반도 역사상 불세출의 정복군주로만 알려진 광개토왕. 전륜성왕을 닮고자 했던 광개토왕의 면면을 이번 〈월간 불광〉에서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불교, 뇌과학을 만나다

〈불교문화〉 4월호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이 발행하는 불교계 대표 대중 문화지 월간 〈불교문화〉4월호(통권 제284호)가 발간됐다.

〈불교문화〉4월호 특집은 '불교와 뇌과학'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인 불교와 21세기 과학의 선두주자인 뇌과학은 서로 다른 분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두 분야는 놀랍게 연결돼 인간 마음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불교와 뇌과학의 연관성 연구,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오래 수행한 승려의 뇌기능이 일반인과 다르다는 것이 첨단 뇌과학 연구 통해 밝혀졌음을 설명했다.

이상헌 서강대 전인교육원 교수는 '뇌과학은 불교의 깨달음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서 현재 뇌과학은 깨달음의 경험 자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며, 깨달음을 뇌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으려면 인간의 마음은 모두 뇌의 활동 결과라는 가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 교수는 '명상은 뇌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뇌파의 연구를 통해 명상과 같은 깊은 이완의 상태에 있으면서 깨어 있는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문일수 동국대 WISE캠퍼스 의과대학 교수는 '뇌과학 연구는 불교 수행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서 뇌과학의 발달은 추상학적이던 마음을 뇌라는 구체적 물질로 이해하게 했고, 이는 그대로 불교 수행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미국 아이비리그 브라운대학교 학생들이 선택한
마음챙김 명상의 마스터클래스!

전 세계 명상 교육·연구의 중심지 브라운대학교가 개발하고
카이스트 명상 전문가가 추천하는 과학적인 명상 프로그램
'마음챙김에 기반한 대학 생활'을 소개하다
(Mindfulness-Based College, MBC)

스무 살, 명상을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나이!
10년 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위해 지금 당장 마음챙김하자!

에릭 B. 룩스 지음 | 김완두, 박용표, 김경희, 김윤희 옮김
320쪽 | 20,000원

추천의 말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완벽한 책."
- **존 카밧진**,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완화 창시자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캠퍼스에서 계속해서 주고받아야 할 선물 같은 책."
- **팀 라이언**, 오하이오주 하원의원

"대학이나 대학원을 가려고 짐을 꾸릴 때 함께 챙긴 것을 기뻐할 만한 책."
- **제프 슈만 올리비에**,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내면과 외면을 탐색하고자 하는 모든 젊은 성인을 위한 필수적인 안내서."
- **저드슨 브루어**, 브라운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지상백고좌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송암 혜승 대종사

“부처님 말씀대로 살라… 삶이 어렵지 않다”



봄의 전령사인 산수유가 노란 꽃을 무겁게 달고 있다. 경기도 양주 연화사는 초입에서 일주문까지 깔끔하게 잘 가꿔져 있어 마치 화원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 양주 연화사 극락보전 앞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다보탑이 있다. 동서남북 네 방위를 지키고 있는 다보탑 위의 네 마리 사자상에는 널리 전법을 펴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양주 불국산 연화사는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송암 혜승 대종사가 회주로 주석하고 있는 도량이다. 주석처에서 친견한 혜승 스님에게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올 겨울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여쭸다.

“아직 코로나 후유증이 있어 의사가 힘든 일은 못 하게 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봄이 됐으니 나무도 옮겨 심고, 땅에 거름도 주고 조심스레 일을 하고 있어요.”

연화사가 자리잡고 있는 산을 불곡산이라 부르지만, 고려 때까지는 ‘불국산’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불곡산으로 바뀌었지만, 혜승 스님은 ‘불국산’이라 이름한다. 연화사는 부처님 나라(佛國)인 듯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하다.

“200종이 넘는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곧 목련과 벚꽃, 영산홍이 필 겁니다. 초가을부터는 백일홍이 피어서 상사화와 함께 도량을 장식하면 화엄의 세계가 따로 없어요. 내 꿈은 우리 절을 전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롭고 청정한 백화도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화사에 오면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어요.”

스님은 두 해 전에 신품종 백일홍을 200그루 심었는데, 꽃 한송이가 얼굴보다 크다면서 활짝 웃는다. 사찰에는 볼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다보탑도 세우고, 불자들이 좋아하는 포대화상도 모셔놓았다.

환희심 났던 9년 행자생활

누구보다도 행자생활을 오래 한 혜승 스님에게 ‘오래 시봉하신 포산 스님의 가르침 중 지금까지도 수행의 지침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여쭸다.

“저는 일찍 죽음을 경험했어요.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전생에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자신을 많이 꾸짖었어요. 17살 때 조카가 스님이 되어 잠시 집에 왔는데 아는 것도 많고 참 좋아보였습니다. 조카를 따라 논산 개태사의 포산 스님 회상으로 출가를 했지요. 그때는 무엇을 해도 신심이 나서 기쁘기만 했어요. 그저 환희심만 났습니다.”

포산 스님의 시봉을 들거나, 심부름을 할 때면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 신바람 나게 일했어요.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은 바로 자기 복을 짓는 일인데 얼마나 좋습니까”라는 스님의 말씀에 ‘복을 짓는다’는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대선객인 포산 스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공부였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을 바쳐 노스님을 시봉하는 것이 부처님 공부라고 생각하고 ‘계를 받아라’는 말씀도 듣지 않고 포산 스님이 입적하실 때까지 스스로 행자생활을 9년이나 했어요.”

사람들이 질문하면 포산 스님은 막힘없이 답을 했는데, 어린 행자는 스님의 법문을 오래도록 가슴에 새겼다.

‘중생은 번뇌로 인해 업을 일으키고 괴로움을 받게 돼 생사가 거듭되는 미혹 세계를 떠나지 못한다. 번뇌를 끊어 번뇌가 없는 데에 이르는 것을 열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런 문답을 옆에서 들으면서 혜승 스님은 공부도 하고 싶고 좌선도 하고 싶었다. 모두 잠든 밤에 냉골이 흐르는 방에서 홀로 경전을 봤다. 포산 스님이 장기로 출타하실 때는 좌선을 했다. 좌선을 하면서 며칠씩 먹는 것도 잊은 채 공부에 들어갔다.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채 7일 용맹정진도 했다. 몸을 너무 혹사한 탓으로 폐결핵에 걸렸다. 당시를 회상한 혜승 스님은 “수행자의 삶을 살면서 이때가 제일 신심나게 살았다”면서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스님은 개태사를 떠나 꿈에 그리던 해인사 백련암으로 갔다. 여기에서 정영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폐병이 있으니 한 절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남해 보리암으로 부산 대각사, 범어사 등 여러 절을 떠돌았다. 그때 혜승 스님은 ‘몇 달을 머물더라도 아침저녁 예불에 빠지지 않고, 도량을 청소하고 닦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어떤 이는 혜승 스님을 두고 ‘불청병객(不請病客)으로 남한 일대를 방황하던 투병객이 드디어 방황하는 신도들을 한데 모아 의정부 불교를 부흥시킨 포교사’라고 말한다.

세상 변해도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인연 잘 지으면 잘 살고 행복할 것이고

계행 잘 지키면 두려울 것 없고 행복해

아침저녁으로 3분만 할애해 자신을 보라

아침 3분동안 하루 무엇을 할지 생각하고

저녁 3분동안 염불하며 하루를 반성하길

의정부 불교 일으킨 ‘포교의 달인’

혜승 스님은 ‘포교스님’으로 통한다. 도봉산 원각사를 일신시켰고, 의정부포교원 정혜사를 창건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건립한 포교원은 전국의 소도시에서 최고의 포교당으로 꼽힐 정도로 잘 지었다. 불교가 열악한 의정부에 포교당을 짓고 신도회 법회, 어린이 법회, 중고등학생 법회, 청년회 법회, 거사회 법회, 군인 법회, 운불연 법회 등 여러 법회를 만들었다. 유치원을 운영하며 새싹 포교에 힘을 쏟고, 군포교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의정부포교원이 자리를 잡자, 혜승 스님은 노인복지로 눈을 돌렸다. 양주에 부지를 마련해 연화사를 건립하고, 연화원을 지어 무연고 노인들을 모셨다. 혜승 스님은 ‘노인들이 불자로 착실히 신행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까지 아미타불 염불 소리를 들으면서 부처님 품속에서 편안하게 눈감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은 열망을 지니고 있다. 지금은 양로원과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절에 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아름답게 장엄하는 것도 첫째는 꽃을 보고 행복해하는 노인들을 위함이었다.

양주에서는 처음으로 불교대학을 개설해 시민들이 불교교양과 함께 신행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대학교수를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올 음력 4월부터는 초하루와 보름에 신도들에게 〈초발심자경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청년들에게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드는지를 물었더니, 생각지도 못한 〈초발심자경문〉이라고 했어요.”

13면에 계속

송암 혜승 대종사는… 1936년 충남 대덕에서 태어나 1951년 논산 개태사로 출가했다. 개태사에서 은사 포산 스님을 만나 스님의 입적 때까지 9년 동안 시봉했다. 오랜 행자 생활 끝에 1956년 해인총림 해인사에서 정영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0년 남양주 봉선사에서 석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도봉산 원각사를 일신시켰고, 의정부포교원 정혜사를 창건하며 의정부 불교 중흥을 이끌었다. 의정부 사암연합회장,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7년 4월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됐으며, 2008년 10월 종단 최고의 지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받았다. 현재 양주 연화사에 주석하며 대중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지상백고좌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송암 혜승 대종사

“1일 1선행 실천하면 보살될 수 있습니다”

12면에 이어

먼저 자판기의 커피 한 잔 뽑아주는 것도
지하철 탔을 때 자리 양보하는 것도 선행
복의 인연 좋아한다면 여러 선행을 닦아야

종단본 ‘통일 법요집’ 모든 사찰서 활용을
정기적으로 종단 차원 포교지 발행 제안도
“‘불교성전’ 문구들만 읽어도 법회에 도움”



양주 연화사 연화원에 있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혜승 스님.



구순의 노구에도 혜승 스님은 직접 괭이질을 하며 매일 도량을 가꾼다.

처음 불문(佛門)에 들어온 사람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초발심자경문〉을 통해 불자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가르치고 싶단다.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에 나오는 ‘수많은 중생이 불집의 고해 속에 드나드는 것은 한량없는 윤회 속에서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탐진치 삼독을 오히려 집안의 보물로 삼고, 오욕을 마음의 보배로 삼기 때문이다. 고요한 산에 들어가서 수도는 못하여도 스스로의 힘에 따라 선행을 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서 스님은 불자라면 오계 정도는 외우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다.

“누가 불교의 오계를 물으면 바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수경〉을 읽을 때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고, 읽는 데 그치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탐진치 삼독만 잘 다스려도 마음이 편하고, 사는 데 자신이 생기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불자가 됩니다.”

남에게 기쁨 주는 불자가 돼라

함허 선사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근기가 날카로운 이도 보살이 될 수 있고, 근기가 낮은 사람도 천상에 태어날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했다. 스님도 “남이 나를 기쁘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남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법문을 이어갔다.

“하루에 한 가지 선행을 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것이 보살로 가는 길입니다. 내가 먼저 자판기의 커피 한 잔을 뽑아주는 것도 남에게 주는 것이 기쁨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탔을 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선행입니다. 복의 인연을 좋아한다면 마땅히 여러 선을 닦아야 하고, 많은 선을 다 닦지는 못할지라도 하나의 선은 충분히 행할 수 있잖아요.”

세납 구십인 혜승 스님은 눈이 아파 예전처럼 책을 마음껏 볼 수 없음을 안타까워했다. 요즈음 역경원에서 새로 발간한 〈불교성전〉을 하루에 한두 장씩 본다고 했다. 스님께서는 날마다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화엄경〉을 하루에 두어 장씩 읽어서 다 완독했어요. 적은 분량이지만,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불교성전〉이 간단하게 명료하게 번역이 잘돼 있어 누구라도 읽게 되면 부처님 생애부터 다양한 불교 가르침을 알 수 있는 책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종단의 원로로서 이 같은 제안도 했다.

“저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행한 〈통일 법요집〉을 모든 사찰에서 사용하면 좋겠어요. 조계종에서 제작한 기초교리가 있는데 그 책자대로 가르치면 전국 불자들이 기초교리에 대한 이해는 공동으로 똑같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단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초하루와 보름에 한 번씩 포교지를 발행해서 전국 각 사찰에 보내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게 만든 〈불교성전〉에서 나온 글을 담은 포교지나 소식지를 각 사찰에 보급하면 주지스님들이 읽어주기만 해도 법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포교 일선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원로스님이 제안한 종단 〈통일 법요집〉 활용과 종단 포교소식지 발행은 일관되고 표준화된 의례로 법회를 봉행하고 설법을 할 수 있다는 데에서 후학들은 새겨야할 대목이다.

아침저녁 3분만 투자해보세요

이내 스님께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작금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혜승 스님은 “부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다. 우문에 대한 현답이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산다고 해서 삶이 힘들 것은 하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으면 됩니다. 잘 살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인연을 잘 지으면 됩니다. 계행을 잘 지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아침저녁으로 3분씩만 할애하면 자신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오늘 하루 무슨 일을 할 것인지 3분 정도 생각해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3분 정도 염불하고 오늘 하루 한 일을 했는지 반성해보면 됩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한없이 기쁘고, 좋지 못한 일을 했으면 얼른 참회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면 그게 수행이 되고 인격이 향상되는 것이지요.”

하루 6분, 아침저녁으로 3분씩 무엇을 할지, 무엇을 했는지 점검하고 참회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스님의 말씀은 ‘인생을 헛되이 살지 말라’는 따뜻한 충고였다.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씩 실천하면 인격이 높아져요. 부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된다면 인격이 달라지고, 자신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지요. 부처님과 점차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스님께서는 하루에 6분은 길지 않은 시간인데도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면서 안타까워한다.

올 설날에는 혜승 스님이 직접 쓴 ‘수처작주(隨處作主)’를 프린트해 족자로 만들었다. 1000개를 제작하여 세뱃돈으로 나눠줬다. ‘어디에서나 주인의 삶을 살라’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 중 하나다.

“보는 것이 내 것이고, 듣는 것이 내 것이고, 향내를 맡는 것이 내 것이고, 먹는 것이 내 것이고, 쓰는 것이 내 것이니 우주의 주인은 ‘나’입니다. 우주가 내 것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소중할까요. 내 것은 모두 소중하잖아요. 주인의식으로 자연을 대한다면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목욕탕에 가서도 물을 아끼고, 깨끗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면 가는 데마다 복을 짓게 됩니다.”

노령에도 괭이질로 직접 사찰 일궈

인터뷰가 끝나자 혜승 스님은 바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괭이를 챙겨서 뒷산으로 갔다. 종종걸음으로 따라가니 괭이로 묵은 풀을 걷어내고 땅을 고르는 작업을 했다. 노령이 걱정돼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 스님은 웃으며 “일할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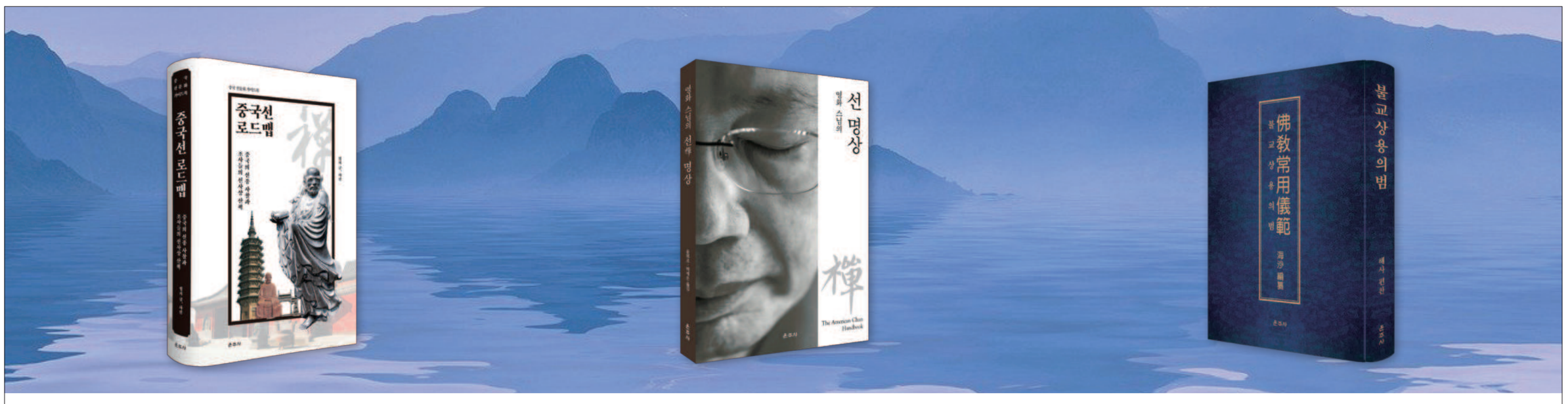
“수목장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옮겨 심는데 나무도 함부로 심으면 죽어요. 며칠 전 옮겨 심은 나무들이 잘 자리잡았는지를 살펴야 해요.”

혜승 스님은 “마음 건강 몸 건강을 다 챙길 수 있는 도량이 필요한 시대”라고 했다. 연화사 대웅전 앞에 의상 조사 법계도를 그려놓고 모래로 채웠다. 모래 위를 걸으면 몸이 건강해지고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신도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신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노스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연화사 대지가 1만5000평인데 양주에서 제일 큰 사찰을 조성해 시민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도량을 만들겠다는 꿈이 있어요. 선원을 만들어서 사찰의 격을 갖춰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을 위한 명상센터를 짓고, 불자들의 수행처 100여 세대 지을 계획도 하고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량을 가꿀 것입니다.”

혜승 스님은 인터뷰 내내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 부처님과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늘 하루 부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은 행복한 삶을 위한 시간이요, 좋은 업을 쌓아가는 행위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문윤정 / 작가



중국의 선종 사찰과 조사들의 선사상을 찾아서!
중국선 로드맵
선종 초조 달마대사부터 허운선사에 이르기까지 역대 조사들이 머물던 사찰의 역사와 현황, 선사상을 정리해 놓은, 한권으로 만나는 ‘중국선종사’이다.
법지 글, 사진/신국판/양장/496쪽/값 33,000원

혼자 명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서!
영화 스님의 선 명상
초심자를 위해 기초적인 앉는 자세부터 경험 있는 수행자를 위한 기본 마음가짐과 주의사항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명상 안내서이자 지침서’이다.
영화 스님 지음, 윤희조, 박재은 옮김/신국판변형/무선/244쪽/값 15,000원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설행하는 재 의식 총망라!
불교상용의범
조석예불과 사시마지, 각단 예경의식, 천도재나 각종 재회 시 설행되는 제반의식문, 각단에 올리는 불공의식문, 각종 시식과 영반 등 누구나 편리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편찬!
해사 편찬/사륙배판/양장/696쪽/값 5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목경찬의 사찰 설화탐사대 ❼ 천안 각원사

▶한줄 요약
현몽대로 불모는 부처님의 자세를 바꿔 지금처럼 모시게 되었다. 필자는 가끔 이렇게 바꿔 설명한다. "왼쪽에 오십견이 왔으니 오른손을 들게 해다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 왼팔이 아프다고 하셨을까?



태조산 '뷰 맛집'…현몽 이야기도 한가득

충남 천안 태조산 각원사는 꽃구경을 오는 사람들로 주말은 물론 평일도 늘 붐빈다. 4월 초부터는 화려하게 핀 벚꽃을 시작으로 영산홍 등 각양각색 꽃들이 넓은 사찰 경내를 장엄한다.

각원사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지만, 전국에서 오는 순례객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1977년 청동대불 아미타부처님을 모신 창건 초창기부터 전국에서 많은 순례객이 다녀갔다. 천안톨게이트에서 10분 거리 정도로 접근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청동대불을 모신 기도처로서 유명하기 때문이리라. 각원사 청동대불로 천안이 널리 알려져 천안대불이라고도 한다.

창건 당시 심은 벚꽃부터 이후 수시로 심은 꽃들이 화려하게 장엄한 사찰 모습은 온라인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각원사로 옮기게 한다. 소위 '뷰(view) 맛집'이다. 각원사는 천안 8경 가운데 하나다.



벚꽃이 만개한 태조산 각원사 전경. 1977년 조성한 청동대불이 순례객을 맞이한다.

남북통일 원력이 大佛 조성으로

각원사 창건은 법인 스님(1931~)의 원력으로 시작되었다. 1946년에 해인사로 출가한 스님은 1950년 11월 어느 날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을 참배하였다. 세상이 전쟁으로 북새통이 된 상황에서 스님은 불국토를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리고 신라 김대성이 통일된 국가의 번영을 바라며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웠다는 생각에 이르러 제2의 김대성이 되고자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석굴암 부처님 앞에서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도량 건립을 서원하였다.

스님의 원력은 동경 유학 중에 만난 재일동포 각연거사의 인연으로 이어졌다. 1969년 일본 동경으로 유학길에 오른 스님은 학업과 수행을 겸하여 정진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1974년 6월 21일 지인이 한 중년 부부를 소개하였다. 바로 각원사 창건의 인연이 된 각연 김영조 사장 부부였다.

각연거사는 지병으로 2~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 소견을 받은 상태였다. 그래서 스님의 기도에 영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것이었다. 스님은 거사에게 말하였다. "무엇보다 2~3년밖에 살 수 없다는 생각을 10년 이상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자연의 법칙은 누구도 어길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100일 동안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100일 기도 후 거사는 불심과 건강이 매우 좋아졌다. 이후 거사는 동경 명월사 창건의 큰 시주자가 되었다. 어느 날 각연거사는 현몽하고 스님에게 말하였다. "스님이 종종 말씀하시던 크나큰 부처님이 드넓은 광야에서 솟아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더러 대불(大佛)을 조성하라는 현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님께서 땅을 사서 절을 지어내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저는 대불을 조성할 자금을 마련하겠습니다."

1975년 6월 12일 귀국한 스님은 절터를 물색하였다. 11월 29일 중부권 이남에 절터를 찾던 중 지인으로부터 좋은 땅을 찾았다는 연락이 왔다. 어느 유명 정치인이 은퇴한 후 유원지를 개발하려고 길까지 어느 정도 닦아 놓고는 개인 사정으로 매물로 나온 산이란다. 바로 지금의 태조산, 각원사 자리였다. 인연을 기다리고 있었던 땅이었으리라.

일본 유학 중 각연거사 인연
대불 조성할 불사금 책임져
대원 스님 모든 불사 도맡아
카페 수익금 '이웃돕기' 회향

왼손 · 오른손 자세 바뀐 이유

각연거사의 시주금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의 정성 어린 성금이 모였다. 그러한 정성이 모여 1977년 5월 9일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청동대불인 아미타부처님을 태조산 중봉에 봉안하였다. 높이 15m, 둘레 30m, 귀 길이 1.75m, 손톱 길이 0.3m, 무게 청동 60t의 청동좌불이다.

청동대불을 친견하는 길은 둘이다. 무량공덕계단을 오른 뒤 아미타부처님 정면을 바라보며 친견하는 길, 대웅보전에서 칠성전을 거쳐 아미타부처님 뒷모습을 먼저 보고 앞으로 나아가 친견하는 길이다. 대부분 후자의 길을 택한다. 후자의 길로 청동대불을 돌아본 어느 보살이 말하였다.

"교수님, 각원사 부처님은 엉덩이가 제일 멋있어요."

어느 비평가도 그렇게 표현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박수를 보냈다. 후자의 길을 택하면 당연히 부처님 뒷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보살에게는 부처님의 엉덩이가 멋있어 보였다.

전자의 길, 무량공덕계단으로 가는 길은 조금 힘들다. 무려 203계단이다. 108번뇌를 없앤다는 뜻을 담은 108계단, 아미타부처님의 48원을 상징하는 48계단, 관세음보살 32응신을 뜻하는 32계단, 12인연법을 상징하는 12계단, 불법승 삼보를 의미하는 3계단으로 도합 203계단이다. 무량공덕계단을 오르면, 연꽃 모양의 크고 작은 77개의 봉우리 안에 계신 아미타부처님이 평온한 미소로 맞이해 주신다.

아미타부처님은 왼손은 무릎 위에 두고 오른손은 올리고 계신다. 이 손 위치에도 이야기가 있다. 조성 당시 조감도나 모형 사진을 보면 왼손이 올라가고 오른손은 무릎 위에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불모(佛母. 부처님을 조성하는 이)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다. "왼팔이 아프니 오른손을 들게 해다오." 현몽대로 불모는 부처님의 자세를 바꿔 지금처럼 모시게 되었다. 필자는 가끔 이렇게 바꿔 설명한다. "왼쪽에 오십견이 왔으니 오른손을 들게 해다오."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 왼팔이 아프다고 하셨을까?

산신의 허가 받아 불사하다

청동대불 뒤쪽으로는 산길이 있다. 그렇게 가파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만하지도 않은 산길을 20여 분 올라가면 태조산 능선에 이른다. 초입 바위에 새겨진 관세음보살을 만난다. 각원사 불사 과정 중에 모셨다. 전문가도 오래된 불상으로 오해할 정도다.

법인 스님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래서 법인 스님의 상좌 대원 스님(1943~)이 각원사의 모든 불사를 도맡아 책임졌다. 어느 날 스님은 태조산 포행에 나섰다. 태조산 능선에 이르자 큰 바위가 보였다. 문득 그곳에 관세음보살을 모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석공 일행과 함께 바위에 작업대를 설치하고 하산하였다. 그런데 작업하기로 한 날 석공은 나타나지 않았다. 늦은 시간에 석공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스님, 지난밤에 호랑이에게 옆구리를 물리는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허리가 아파 거동조차 힘듭니다. 이제 겨우 연락드립니다. 관세음보살을 조성해야 하는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 순간 스님은 '아차' 하였다. 꿈에 나타난 호랑이는 바로 산신이다. 산신에게 제대로 고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니, 산신이 제동을 건 것이다. 절 집안 이야기가 있다. '혹 불사할 때 잘못하면 산신이 기분 나빠한다. 그래서 절을 지을 때, 산신각을 높은 곳에 먼저 짓고 이후 다른 법당을 짓는다. 이후 진행되는 불사도 산신이 먼저 결재해야 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스님은 산신재를 지내고 불사를 고하였다. 곧 석공은 건강한 몸으로 불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태조산 능선 관세음보살상 앞에 서면, 저 멀리 '하늘 아래 편안한 동네' 천안(天安)이 펼쳐진다. 여력이 되면 그곳까지 가보자. 물론 각원사 경내를 돌아보고 청동대불이 계신 주위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좋다.

청동대불 옆에는 야외 카페 무량수가 있다. 카페가 생긴 것도 관세음보살의 가피다. 어느 보살이 대웅보전에서 기도를 드렸다. 꿈인지 생시인지 불단에 계신 관세음보살이 다가와 당신의 옷을 벗어 입혀주셨다. 그 가피를 받은 보살은 이후 평온한 삶이 이어졌다. 법명도 관세음보살과 관계 깊은 보덕심이다. 사찰 봉사를 하던 보덕심 보살은 이 좋은 도량을 찾아온 사람이 잠시 차 한 잔할 공간도 없다는 것에 마음 쓰였다. 야외 카페를 만들면 어떨까? 보살의 생각으로 그렇게 무량수 카페가 생겼다. 무량수 카페의 수익금은 백혈병 및 소아암 어린이 환우 치료비 후원금, 장학금 등에 쓰인다. 카페 봉사자들 역시 미소를 머금고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벚꽃이 화려한 날 각원사 무량수 카페에서 차 한 잔하는 여유가 모든 이들에게 있었으면 한다.

〈불교학자〉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전품목 10~30%
승복·가방 50% / 가구·병풍 30% 할인
※ 제품 소진시 까지 ※ 일부 품목 제외 ※ 택배비 포함된 가격입니다.

사월초파일 제품 할인
인등 신제품 출시, 주문제작 가능
충전 전기초 출시 (1회 충전시 30일 지속, 5종류)
반야심경/산신/용왕/연꽃 84,000원

입춘대길 수제 인쇄부적 할인
수제부적 50장 20,000원
국산 전기선 LED전구 100개 이상 1,300원

- 보시 용품 염줄
- 각종 연등 탄생불 관욕단
- 각종 미니 만월등 100개 ····· 140,000원
- 만월등 사업등
- 연잎 리본
- 방수전선 전구엘리드국산
- 등 승강기 설치

2024 초파일 미리 준비하세요

삼베, 검정삼베 개당 2,000원 / 50개 100,000원
길베, 소창 개당 2,000원
오색종이 개당 450원

식물성 양초 - 그을음 없는 최상급 (흰색, 노랑색 가격동일)
7일초 팝초 20개, 노란색 최상급 20개
소진시까지 ····· 65,000원
5일초 24개 ····· 70,000원
3일초 40개 ····· 70,000원
1일초 90개 ····· 80,000원
15일초 12개 ····· 100,000원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흰색 식물성 양초 B급 (※반품 안됨※)
7일, 5일, 3일 ····· 50,000원
15일 ····· 70,000원

천왕배 오색길배-최상급
개당 4,500원 / 30개 135,000원

삼베 삼제풀이 100개 60,000원
일년 신수맞이 100장 120,000원

대통부 6,000원
삼베옷 6,000원
속옷 남자 여자 각각 100장 이상 가격 15만원
베네저고리 1,500원 50장 이상 가격 75,000원

파라핀 오일 1BOX(12개) 65,000원
부정풀이 1BOX(100개) 100,000원

불상 7치 500개 12.000원 / 1000개 11.000원

※칠보 개금 할인 (기존 불상 가능, 3자 기준 좌포함 220만원)
※불상 조각 조성 (소불 500불 이상 1불 당 12,000원, 1000불 이상 11,000원)

부적 파라핀 입춘 대길 수제부적 인쇄부적 할인행사 대방출!!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054-762-8200 /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 찾아오시는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

2024년 4월 3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78호 | 15 | 전면광고

다른 사람이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항상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지 그른지를 알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시내 •부지 : 180평
•법당 : 40평 •요사 : 60
•매가 : 17억2천

•위치 : 인천 •부지 : 200평
•법당 : 60평 •요사:60평
•매가 : 15억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채권 인수합니다. 사찰컨설팅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지 : 약 340평
•건물 : 1, 2층 – 1층 26평, 2층 법당 20평, 요사채 15평(거실2칸, 해우소 3칸)
•가격 : 상담 후 결정

010-8914-1762

사 찰 안 내

•법당 요사채 2개, 방 5개, 임야 2100평
•사찰 밑 아파트 3000세대 거주
•시내 8분 거리
•가격 2억 5천만원(절충가능)
•창원시 마산 합포구

010-4192-0334

사 찰 안 내

•위치 : 전남 해남군 계곡면
•대지 : 350평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 : 약85평 (법당 요사채)
(건물 3층 180평까지 증축 가능)
•가액 : 4억 5천

010-7710-8334

사찰(급)안내

스님 병환으로 급매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위치 : 강원도 삼척시
•대지 : 약 600 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위치 : 동해시
•여법한 목조건물(법당30평, 산신각, 주지실, 요사채, 공양간, 창고, 주차장) 동해시와삼척 중간지점으로 포교 최적지임 / 인근에 휴양지 근접 (추암, 망상, 증산, 삼척해변)
•원력과비젼을 가진분께 양도함
•주지스님의 건강상 가액은 시세 이하로 협의합니다.
•좋은 인연을 기대합니다

010-9279-454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인천 광역시 서구 신석로 111번길 3–1
• 2층 : 법당 30평
• 1층 : 요사채 30평
• 지하 : 15평
• 가액 4억원
• 스님 건강상 내놓습니다.
• 교통 아주 편리함

010-9286-1008

사찰(급)안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 9500만원



010-4180-1788

포 교 당 안 내

•위 치 : 경북 청도군 소재
•대구 1시간, 경산 팔공산 갓바위 30분 거리
•경치좋고 물좋은 곳으로 고찰이 많은 불자동네
•5분 거리내 대형마트 3곳
•법당 · 주방 · 방2 · 화장실2
실평수 약 60평
•비품시설 1800만원, 보증금 500/40
•사주 방편으로 포교 하실 분

010-7942-9015

사찰(급)안내

•위 치 : 충남 부여군 은산면
•임 야 : 2,000평
•기도방 3개, 산신각, 용궁, 선황, 요사채
•매매가 : 2억 7천 (가격절충)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4799-9448

사 찰 안 내

•위치 :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소재
•종교 부지 적합함
•관광산업 단지로도 활용도가 높은 토지
•토지(과수) : 약 2800평 •대지 : 약 200평
•2층 건물 1동 : 약 60평
•매매금액 : 상호 협의하에관심 있으신 분께 영상 보내드립니다. 전화 · 문자 주세요.

010-3119-335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가액 : 4억 3천5백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고성
•대지 : 법당 26평, 요사채 공양간 산신각
•건물 : 종교부지 300평, 주차장 약 300평, 앞 화단 26평, 631평
•즉시 법회 가능함
2024년 초파일 즉시 하셔도됨
•가액 : 절충가능 6억 9천

010-5519-7711

사 찰 안 내

•위치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대로변
•대지 : 270평(텃밭 150평, 목조건물)
•건물 : 50평(삼존불, 산신, 칠성, 지장) 방3, 화장실
건물 1동(20평, 방, 화장실, 차고지, 창고)
화장실 1동(남.여,창고포함)
•가격 : 5억 8천 (답사후 절충)

010-3468-3928

사찰(급)안내

•주소 : 경남 통영시 정량동
•대지 : 106평(텃밭 포함)
공기 맑고 아늑한 절
•가액 : 1억 5천만원
오시면 바로 법회 가능합니다.

010-3344-6667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장호원 감곡KTX역 10분거리 깨끗한 사찰
•대지 계획관리 1000평, 대웅전, 종각, 휴게소, 연못, 잔디광장, 요사채 3동, 다도실, 리라이트
•광석찜질방, 가온기치료기실, 각종 암환자들 치료 완비
•같이 사찰 운영한 보살이나 도반 스님, 매매나 전세
•가격 상담 후 결정

010-7151-8546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주여고 옆 (시내버스 하차하면 5분거리)
•대지 : 100평(비봉산 자락)
•법당 : 27평(삼존불, 신중, 칠성, 영단) 정남향
•요사채(공양간 포함) 45평(화장실 3개)
•가액: 3억 7천(시중은행 1억 5백 담보대출 20년 상환)

010-5229-8445

사 찰 안 내

•사찰 임대합니다
•위치 : 창원시 마산 합포구 어시장 너른마당
•50평, 부처님 삼존불 · 칠성 · 신중 · 용왕 · 영가단
•방1 · 화장실 · 공양간
•보증금 1000만원/월40

010-4327-8688

사찰(급)안내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
• 대지 300평(종교부지), 농지 114평(논)
• 목조법당 25평, 요사채 30평(방 3개), 태양광, 기름보일러, 저장식 전기온수기, 지하수, 욕실2개, 실외화장실1개
• 가액 : 2억 5천만원 (절충 가능)

010-4835-1739

사 찰 안 내(토굴)

•위치 : 경북 영덕 동해안
•대지 : 326평, 40평 건물 2채
•법당 15평, 공양간 17평, 방 7개, 목욕탕 3, 외부화장실 2
•용궁당 노천산신 야외석불 지장입불
•편리한 아파트식
•가액 : 2억 4천만원 (절충 가능)

010-2008-0377

사찰(급)안내

•위 치 : 부산 연산동
•땅값만 받고 양도 합니다
•대지 124평
•법당 삼성각 용왕당 호심불(소불)
•공양간 종무소 스님방
•가격은 절충

010-7785-5577

사 찰 안 내

•위치 : 익산
•대지 : 약 300평 가량
•건물 : 법당 산신각 요사채
•집기일체 몸만 오시면 됨
•법회 즉시 가능함
•가액 1억 6천

010-5581-3081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찰(급)안내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가액 10억

010-6325-5112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매매금 : 3억원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3618-606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010-7384-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78호 | 16 | 전면광고

세간의 악들이 치성한 후에
악한 행이 없어지고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며
여러 악한 행이 다하여 진실되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수행본기경 출가품》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작명 및 개명안내

이름은 평생의 건강과 행복을 좌우하며 반드시 출생한 사주에 맞추어 작명해야 합니다. 이쁜 이름 지어드려요.
개명은 머리는 좋으나 학업성적 부진하고 각종 시험에 수차 이수하신분과, 일마다 실패하신 분은 이름을 개명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가능. 방문을 환영합니다.

도은작명소 010-8360-8673

개인 지도 (통변비법 전수)

사주 · 작명 · 관상 · 풍수 · 타로

NAVER 용인 수현 철학원 검색
NAVER 송파 조수현 철학원 검색

010-8436-0056
010-8232-0057



검색-손도사 자전 천기소설 운명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010-5270-8260
010-6785-1130

한국빙의퇴마 기 치료연구소

지장대사 원력 단 한번으로 조상 천도
빙의퇴마 · 천병 · 신병 · 우울증 · 불명증 · 가정우환
병명 없이 몸이 아픈 분 상담 환영

010-5152-1222 (정례)

불교무량법계종 (종교법인)

도반 수행자 모집
함께 모여 정진하실 분 찾습니다
위치: 대구시 동구 파계로 22길 7

010-4766-6358

부전스님 1분 사무장님(여) 1분 공양주님(여) 1분 모십니다

부여 미암사

010-5424-5555

부전 스님 비구니 스님 구합니다

경주 우황사

경주시 천북면 새터흥림길1-32

010-2239-0300

스님과 불자님들을 위한 자산관리

상속 · 증여 · 세금 보장자산
(밀착관리/비밀유지)

삼성생명 팀장 오은정
문의 010-9573-418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함께 하실 공양주 모십니다
함께 일할 거사님 모십니다
함께 수행할 행자님 모십니다

부산 만덕사

051-334-3009
010-3840-4355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347-5950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수행하며 오래도록 절에 계실 분 공양주를 모십니다

경북 예천 용화사

010-6529-2005

명품고서(佛經古書) 병풍, 불화 안내

▣ 불경고서(佛經古書) 총 512권(한문·한글팔만대장경 341, 화엄경 62, 원효사전집 6, 조선왕조실록 불교사료집 12, 고승열전테이프 20권 외 71권)
▣ 경명주사 병풍 및 탱화, 불화액자 다수(10여점 보유), 책장 4개

인연있는 스님에게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드립니다.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지장암 도은 합장 010-8360-8673 / 010-3468-3928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종단공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제7대 종정 취임 법회

재단법인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은 4월 3일 12시 제7대 종정 대륜 대종사 취임법회를 총본산 일붕선원 법당에서 거행합니다. 종도님들께서는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02)911-8175

불기 2568년(2024) 4월 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4월 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4월 3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⑦ 차를 즐기기 위한 조건

茶品 감별 안목, 제다 이해서 나온다

차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지름길은 차를 만드는 원리를 아는 것이다. 다사(茶事)의 핵심은 좋은 차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있고, 이에 따라 차의 격조가 다르게 구현되기 때문이다. 물론 차의 이치에 두루 밝은 다인(茶人)이라면 좋은 차를 감별할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차의 진수를 드러낼 조건이 무엇에 있는지를 간파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를 잘 즐기기 위한 첫째 조건은 차의 품질을 잘 감별할 안목을 갖추는 것인데, 이는 제다의 오묘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결국 다사는 차를 즐기는 전반 사항으로, 차의 진수는 제다를 통해 드러나므로, 제다의 원리 이해는 다사의 핵심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는 셈이다.

제다의 시작은 차를 따는 시점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요체는 제다인의 판단 능력과 경험에서 나온다. 그런데 좋은 찻잎을 얻었다고 하여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를 덖는 불의 강도를 균등하게 조절할 수 있는 순발력에 의해 차품의 80%가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외적인 조건 이외에도 차를 만드는 사람의 순선한 마음가짐이 명차로써의 수준을 드러내는 요소라 할 수 있으니 이는 제다인의 마음이 차에 오롯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차를 만드는 사람은 모름지기 도가에서 단약을 만드는 것처럼 불의 강약을 조리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바로 불과 찻잎 사이를 넘나드는 불의 기세를 어떻게 조절해야 찻잎을 알맞게 익힐 것인가, 그 적정한 순간을 판단할 순발력과 통찰이 절대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초의 선사는 "삼매(三昧)의 솜씨, 기이한 향이 피어나네(三昧手中上奇芬)"라고 말한 것이다. 바로 차에서 기이한 향이 핀다는 것은 화후가 적절하게 조절되었다는 뜻이며, 삼매의 솜씨란 차를 만들 때 제다인의 마음 상태와 몰입 정도를 언급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인문의 '연정수업'. 옛날 선비들은 제자를 가르칠 때에도 차를 끓여 마셨으니 이는 여름날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茶事 핵심, 좋은 차 감별에 있어
제다, 차 따는 시점 파악서 시작
차 덖는 불의 강도 조절도 필수

그런데 마음의 번뇌와 막힌 몸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선품(仙品)의 차란 어떤 품격을 갖춘 차를 말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명대 주권(朱權)의 〈다보(茶譜)〉 '품다(品茶)'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차에 여러 가지 향을 섞어 (차)자연적인 본성이 사라지면 차의 진미를 빼앗는다. 대개 (차)맛은 맑고 달며 향기로워 오랫동안 (입안에)단 맛이 감돌고 정신을 상쾌하게 할 수 있어야 상품의 차이다.(雜以諸香 失其自然之性 奪其真味 大抵味清甘而香 久甘回味 能爽神者為上)

윗글은 명대 문인의 품다(品茶) 관점을 드러낸 객관적인 관점이다. 문예의 감수성을 지닌 것으로, 이는 당시 차 문화의 흐름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문자향(文字香)과 감향(甘香)과 청온(淸溫)한 품색(品色)을 즐겼던 명대 문인들이 희구(希求)했던 차의 가치요, 안목의 반영인 셈이다. 그가 말한 차의 격조는 첫째 차의 천연적인 본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 차는 맑고 감미로워야 한다. 이는 차가 지닌 순수한 참맛의 조건을 밝힌 것이며, 입과 코로 느낄 수 있는 표면적인 차의 세계는 향기로움이요, 쓰거나 떫은맛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감미(甘味)가 오래도록 입안에서 회감(回甘)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선차(仙茶)의 특징적 요소는 정신을 상쾌하게 하며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는 차가 사람에게 주는 이로움 중에 단연 첫째로 거론될 덕목이다. 그렇다면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바로 번뇌·분노·우울함·공포·조급함·담담한 심리 상태 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의 어떤 향과 맛이, 그리고 기운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일까. 잘 만들어진 차에는 난향(蘭香)이 난다. 이는 화한 허브 향과 비슷한 향이다. 화한 난향이 드러난 차를 마시면 가슴이 시원해지며 경쾌한 기세가 온몸을 감싸는 듯하고, 차가 목젖을 타고 내려가면서 식도와 위까지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차에서나 난향이 나는 것은 아니다. 난향을 지닌 차는 차나무의 생육 조건이 좋아야 한다. 오염이 되지 않은 산하 계곡에서 자란 차로, 차 싹(一槍)이나 일창일기(一槍一旗), 즉 작설처럼 생긴 차 싹에서 잔존하는 향이다. 만약 차 싹이 자라 크게 퍼져 버리면 찻잎의 난향이 엷어져 희미해지며, 쓰고 떫은맛이 강해진다. 그러니 제다와 채다 시점이 적절하면 난향이 드러나는 차를 만들 수 있으니 이런 차는 명차 중의 명차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명대 주권(朱權)이 찬술한 〈다보(茶譜)〉 '품다(品茶)'에는 "차의 본성은 냉하므로 병이 든 사람이 아니면 (차를) 많이 마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茶性涼, 不疾者不宜多飮)"고 하였다. 이는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원래 차는 음(陰)하고 찬(冷) 성질을 지닌 초목인데 이런 기질 때문에 맑은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차의 냉한 기질을 순화시켜 차의 좋은 점을 취하고자 했다. 바로 뜨거운 증기나 불에 찻잎을 익혀 차의 독성을 중화시킨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차를 끓일 때 뜨거운 물로 우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아무튼 차가 답답함과 막힌 것을 풀어 주는 공(功)이 있다고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차의 폐해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차에는 좋고 나쁨이 양립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의 근원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명대 시인 악순(樂純)는 차의 폐단을 그의 〈설암청사(雪庵淸史)〉에서 "옛사람이 하는 말에 (차는) 응어리와 막힌 것을 풀어준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이로움으로 잠깐 좋은 것이다. (차가 사람의) 기운을 수척하게 하고 정기를 소모하여 끝내 몸에 해롭다(昔人有言釋滯消壅 一日之利 暫佳 瘠氣耗精 終身之害)"고 하였다. 이는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주의사항인 셈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⑭

1.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한 목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② 세속의 속박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③ 생로병사가 괴로워 현재의 삶에서 도피하기 위해
④ 나라의 왕이 되어 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
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해설 : 싯다르타 태자는 성의 네 문에서 생로병사와 이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출가수행자를 보고(사문유관)하여 출가하였다.

2. 수행자 '고타마'는 우유죽으로 기운을 회복한 후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장소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반석 위에 '숫티야'가 공양한 풀을 깔고 동쪽을 향해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들게 된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인연을 지은 이 풀을 무엇이라고 하나?
① 길상초(吉祥草)
② 무우수(無優樹)
③ 도리천(忉利天)
④ 사라수(紗羅樹)
⑤ 백상초(白象草)

해설 : 길상의 의미는 상서로운 조짐으로 태자는 이 풀 위에서 깨달음(상서로운 일)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3. 싯다르타의 출가 동기(動機)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현실에 대한 반항적인 충동으로
② 호화로운 일상생활이 따분하기만 해서
③ 단순한 허무에 빠져 우발적인 감정으로
④ 왕위를 물려받아야만 하는 중압감 때문에
⑤ 누구나 부딪치는 인생의 고뇌를 극복하고자

해설 : 불교는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 누구나 부딪치는 인생의 고뇌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해결이 가능함을 자신의 삶(태자로 태어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부처님을 이룸)으로 보여주셨다.

4. 수행자 고타마는 수자타로부터 우유죽을 공양받고 기력을 회복한 후 보리수 아래서 앉아 결심하면서 말씀한 내용은?
① 깊은 선정에 들어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리라.
② 깨달음을 이루어 세상에 도덕정치를 구현하리라.
③ 빨리 깨달음을 이루어 인도사회에서 탁월한 종교지도자가 되리라.
④ 도[道, 깨달음]를 이루지 못하면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⑤ 깨달음을 이루어 다른 종교지도자와 토론하고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리라.

해설 : 수행자 고타마는 6년의 수행 끝에 고행주의와 수정주의의 양극단을 여의고 중도의 수행을 시작하였을 때,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5.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행자 고타마는 마왕의 항복을 받고 지신에게 완벽한 깨달음을 증명받았다.
② 모든 번민과 고통은 사라지고 청정한 삶이 완성되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
③ 깨달음을 완성한 보살에게는 더 이상의 번뇌는 남아있지 않는 누진통(漏盡通)을 얻었다.
④ 깊은 선정에 들자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게 되는 고요한 삼매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⑤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천안통을 얻은 수행자 고타마는 중생들의 한없는 고통을 살펴보다 동쪽으로 새벽 별이 떠오를 때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갔다.

해설 : 부처님께서는 새벽 별(명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6. 6년 간의 고행 끝에 고행이 열반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고행을 버린 수행자 고타마에게 우유죽을 보시한 소녀는 누구인가?
① 마라 ② 땅하 ③ 수자따 ④ 아라띠 ⑤ 야소다라

해설 : 수행자 고타마에게 우유죽을 보시한 소녀의 이름은 수자따이다. 이 공양을 받으시고 수행자 고타마는 깨달음을 이루신다. 반대로 열반 때 마지막 공양을 올린 것은 대장장이 춘다이고 이 공양을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열반에 드신다.

정답 : 1.⑤ 2.① 3.⑤ 4.④ 5.⑤ 6.③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장보배의 사찰국수기행 스님이 웃는다 특별편–지인 스님의 오이 만두



▶한줄 요약
복잡하고 거창한 맛보다 소박한 오이 만두가 좋은 이유는 그 담백한 성질에 있다. 화려한 기교 대신 재료의 본질을 지키고 그 힘이 오롯이 느껴지는 오이 만두.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는 지인 스님과 어딘가 닮아있는 스님의 '승소'다.

"제 승소는 '오이 만두'…소박한 재료에 추억 가득"

불가의 '승소'란 탐식을 경계하는 수행자들마저 미소로 허락하게 만드는 먹을거리다. 국수와 떡, 두부, 만두 등이 바로 그것이다. 2주에 한 번 '승소'를 찾는 새로운 여정에서 이 봄, 제철 음식인 오이와 표고버섯으로 만든 오이만두를 만나본다. 〈편집자 주〉



안경 너머로 보이는 동그란 눈이 가만 웃는다. 자그마한 창문처럼 안경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는 눈에 한 수행자가 머무는 세상이 있다. 자유와 행복, 그 영원한 꿈을 고스란히 품은 세상. 그곳의 주인과 함께 나눈 어느 봄날의 소박하고 맛있는 이야기.

스님을 웃게 하는 맛

스님이 웃는다.

동그란 안경 너머로 눈이 반짝하고 빛나면, 여지없이 시원한 웃음소리가 함께 울려 퍼진다. 상대를 무장해제 시키는 따뜻한 미소의 주인은 바로 지인 스님(장성 백양사 포교국장).

아주 먼 옛날, 하얀 양들이 법문을 전해 듣기 위해 찾아왔다는 천년고찰. 그 설화를 이름에 담은 백양사에서 스님을 만난 날, 지인 스님은 이제 막 쪄낸 만두를 접시에 담으며 먼 길을 찾아온 객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오이 만두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두입니다. 스님을 웃게 하는 것, 나를 웃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니 금방 떠올랐어요. 이 만두, 정말 맛있거든요(웃음)."

불가의 '승소(僧笑)'란 탐식을 경계하는 수행자들마저 미소로 허락하게 만드는 먹을거리. 국수와 떡, 두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만두가 바로 그것이다.

본래 한국 전통의 오이 만두는 조선 후기의 궁중식으로, '규아상' 또는 해삼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미만두'라 불리는 그것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궁중식 오이 만두가 육류와 파, 잣가루 등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사찰 음식은 오이와 표고버섯, 고추의 단출한 재료가 만들어내는 담백한 맛이 큰 매력이다.

"2019년도 즈음, 당시 성균관대학원 석사과정을 한 학기 남겨두고 있었어요. 광주에서 매번 서울까지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기차표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사찰음식 전문가 과정이라는 것이 시작되어서, 서울에 가는 김에 뭐라도 더 배워오자 싶어 오전에는 사찰음식 수업, 오후에는 대학원 수업을 받았어요. 그때 이 만두를 처음 알게 됐는데 어찌나 담백하고, 맛있던지(웃음). 그 날부터 저에게 '승소'하면 이 오이 만두가 제일입니다."

누룽지와 아욱 된장국, 그리고 제철 재료로 만든 음식이야말로 최고의 성찬이라는 지인 스님. 그런 스님에게 소박한 재료로 최고의 맛을 끌어낸 오이 만두는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는, 별식 중의 별식이다.

맛과 추억

음식이란 찰나의 시공간을 저장하고, 추억을 소환하는 기억의 상자와 다름없다. 오이와 표고버섯, 매콤한 고추 한두 개로 만들어지는 이 소박한 만두에도 추억은 연신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견성암에서 처음 출가했을 때 다함께했던 표고버섯 울력이 있어요. 큰 숲에 참나무를 잘라낸 통나무를 이렇게 펼쳐놓으면, 어느 날 거사님들이 와서 구멍을 탁탁탁 뚫어 놓아요. 그러면 우리 행자들이 가서 그 구멍에 하루종일 표고버섯 종균을 심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표고버섯을 좋아해서 망정이지, 그 숲과 통나무들, 버섯 종균의 아릿한 냄새까지 지금도 표고버섯 하면 그때가 떠오릅니다(웃음)."

자그만 버섯 하나라도 그에 따른 추억의 크기는 큰 숲 못지않은 법이다. 하물며 오랜 소임을 맡았던 공양간 시절이야 오죽할까. 솥단지에도, 도마 위에도, 저 작은 수저 하나에도 옛 기억은 주렁주렁 담겨 있다.

"제가 출가를 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 재래식이라 불을 때서 가마솥에 밥을 했어요. 거의 100인분의 밥을 끼니 때마다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소임이 정말 좋았습니다. 세월의 변화도 공양간에서 많이 느꼈지요. 어릴 때는 그 커다란 가마솥 뚜껑을 한 손으로 들었는데, 7년 뒤에는 두 손으로 들어야 하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나이를 먹었구나, 이제 힘이 빠지는구나 하고 체감하게 되었지요(웃음)."

학인스님들은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면 종종 경책을 받아 공양간 소임을 살기도 한다. 부처님 공양을 짓고, 대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니 그만큼 매서운 규율과 책임이 머물기 마련. 어디 신심 나고, 웃을 일만 있었을까.

"견성암 뒷산에 가면 염불 연습도 하고, 잠깐 쉬기도 하는 '행자 바위'가 있어요. 혼이 나거나, 너무 힘든 날은 어쩌다 얻은 누룽지를 싸 들고 그곳에 갔지요. 서러우면 이제 먼저 울고, 다음엔 훌쩍거리면서도 누룽지 먹으며 마음을 달래고 돌아오는 거예요(웃음). 한 번은 몸이 너무 아픈데, 마침 절에 사람들은 없고 너무 힘들어서 엉엉 울며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울면서 청소도 하고, 과일도 올리고. 그때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도반 스님이 '그래도 스님은 어려서 울기라도 하지, 난 나이가 많아서 울지도 못해'하면서 부러워하던 기억이 나요. 돌아보면 다 추억이 되었어요(웃음)."



지인 스님은 "스님을 웃게 하는 것, 나를 웃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니 오이 만두가 떠올랐다"고 말했다.

지인 스님의 오이 만두 만들기

재료 오이 6개, 건표고 10개, 청고추 6개, 소금 1TS, 식용유 1TS, 참깨 1TS, 만두피 16장

만드는 법
1. 오이는 소금으로 문질러 씻은 뒤, 껍질 부분을 돌려 깎아 5×0.5cm 크기로 채 썬다.
2. 1에 소금을 약간 뿌려주고 살짝 주물러 물기를 제거한 뒤,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둘러 재빨리 볶아준다.
3. 건표고는 물에 불린 뒤 물기를 꼭 짜서 0.5cm 크기로 채 썰고 소금간하여 볶아준다.
4. 청고추는 0.5cm 크기로 다진 뒤 소금간하여 볶아준다.
5. 오이, 건표고, 청고추, 손으로 부순 참깨를 넣고 잘 섞어준다.
6. 만두피에 속재료를 넣고 빚어준다.
7. 끓는 물에 소금과 만두를 넣고 익힌 뒤, 찬물에 헹궈 식혀준다.

배우고 또 배우며

지나고 보니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행복을 찾는 여정이었다. 출가의 결심을 한 것도,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또 다음,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이 더 큰 행복으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었다.

"나는 어느 순간 행복한가, 어떤 때에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가 생각해 보니 아이들과 함께일 때였어요. 그래서 동국대 이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보육경영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훗날 영유아들을 위한 탁아기관을 설립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했다.

"재학 당시 자료 조사를 하던 중에 소외된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가슴 아픈 경우를 많이 알게 되었어요. 그때 불가의 품에서, 자비심으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요."

그즈음 어린이 포교 활동에 부단히 애썼던 것도 그 꿈을 향한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앞만 보고 달리던 지인 스님을 잠시 다른 세상으로 이끈 것은 예기치 못한 기회에서 비롯됐다.

2019년 광주에 자리한 마하보리사의 주지 소임을 받으며, 난생처음 홀로서기를 시작한 스님. 눈 뜨면 늘 스님들과 함께 살던 생활을 벗어나, 한 사찰의 살림을 꾸리고 대중들을 이끌며 또 다른 공부가 시작된 셈이었다.

"20년간 혼자 살아본 적이 없는데 하루아침에 스님은 저밖에 없으니 얼마나 어색하던지요. 외롭기도 하고요(웃음). 하지만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뭔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 다 이유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신도분들을 내 도반으로 삼고 살아야겠다 마음먹었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조바심도, 일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때의 괴로움이 집착이라는 것. 이 또한 수행자로서 홀로서기를 하며 배운 귀한 깨달음이다.

"돌고 돌아 다시금 선(禪) 수행, 명상 수행의 귀중함을 깨닫게 된 시간이었어요. 내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워야, 대중들에게도 좋은 길을 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간 살면서 배워온 것들이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기를 발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온전한 행복, 그 자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기를요."

맡은 소임의 일과를 마친 뒤 비로소 다시 시작되는 지인 스님의 하루. 명상 수업과 요가, 싱잉볼 테라피, 또 다른 스승들과 함께 하는 마음 수행의 시간까지. 그 시작과 끝은 끝내 모두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복잡하고 거창한 맛보다, 소박한 오이 만두가 좋은 이유는 그 담백한 성질에 있다. 화려한 기교 대신 재료의 본질을 지키고, 그 힘이 오롯이 느껴지는 오이 만두. 묵묵히 한 걸음을 내딛는 지인 스님과 어딘가 닮아있는, 스님의 '승소'다. 〈작가〉

'부처님 무지개로 나툰 가피도량'
천안 연화정사
'소원성취 도량에서 새해 기운을 얻어가세요'



2023년 8월 22일 새벽 6시, 법화경 기도 중 보리부처님이 무지개로 나투신 천안 연화정사는 소원 성취 기도가 항시 진행되는 법화 도량입니다.
연화정사 주지 백련화스님은 치악산 상원사 일대에서 스님으로 문수기도를 이어온데 이어 서울 봉천동에서 사찰을 운영하던 중 2002년 천안에 연화정사를 건립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연화정사에서 새해 부처님 나누신 현장을 보시고, 소원 성취의 기운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내방객 및 기도동참 불자님께는 직접 만든 지장수 보시합니다. 위, 간, 장 안 좋으신 분에 특효입니다. 구입 문의도 환영합니다.





연화정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우신새터길 77호 신행상담 010-7455-6742 (백련화스님)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를 위해 여주환을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불면증, 어지럼증, 이명(귀울림), 두통, 고혈압, 저혈압, 동맥경화, 만성설사, 목이 쉬었을때, 건망증, 협심증, 위염, 변비, 안면신경마비, 졸음병, 실어증, 삼차신경통, 간경화, 황달, 대상포진, 피부가려움증, 생리통, 생리불순, 다이어트, 귀머거리, 녹내장, 갑상선 이외
총 287종이 수록되어 있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열매, 옥수수수염, 복분자, 오미자, 구기자, 토사자, 사상자, 복령, 마가목열매, 뽕나무뿌리껍질, 참당귀, 천궁, 우슬, 오갈피, 두충, 질경이, 산사나무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대행 스님

모든 거에 착을 두지 않으면서도 여여하게 그냥 해나가라

(지난 호에 이어서)

잘 들으세요. 세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말 보시, 말 보시도 무주상 보시입니다. 내가 여러분처럼 학식을 많이 쌓아서 그걸 봐 가지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뽑아 가지고선 여러분에게 해 드리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한테는 마음이 있습니다. 요만한 마음이 전체의 우주를 덮고 받치고 굴리면서, 여러분한테 극진히 내 마음을, 내 몸을 조금도 가리지 않고 말씀해 드리는 이건 무주상 보시가 아닙니까?

또 물질 보시가 있습니다, 물질 보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참, 말은 안 합니다마는 없으면 없는 대로 물질 보시를 합니다. 여러분 알게 하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선 물질 보시도 많이 합니다. 물질 보시도 많이 받지마는 받는 나는 없습니다. 준 것도 없고. 대신에 나는 심부름꾼이니깐요. 여러분의 심부름 하는 사람이지 내가 극히 잘나서 내 돈이 있어서 여러분을 주는 것도 아니죠.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꿉장난할 때에 놀다가 해가 지면 소꿉장난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갈 때는 종이짝같이 다 버리고 들어갑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심부름을 할 때에 어떻게 심부름을 잘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실하냐는 거죠.

또 뜻의 무주상 보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참, 한생각 내 주는 그 마음이 물질로 주는 거보다 수백 배, 수만 배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에 위안이 되고 당장에 뭐 조금 됐다고 그것만 고마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세세생생을 내다보십시오. 한번 마음 뜻을 들인 것은 세세생생에 변치 않을 겁니다. 이것이 보살의 행이요, 바로 무주상 보시인 것입니다. 자기와 둘이 아니게끔 아픔을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둘로 본다면 상대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무주상 보시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세생생에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 깊숙한 뜻을 모르셔서 그렇지 어디 거지이든, 아프든, 죽어가는 사람이든, 죽어서 지금 헤매고 도는 사람이든, 살아서 헤매고 도는 사람이든 누구를 막론해 놓고 둘이 아니라고 그건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고생하는 거는 과거로부터 좇아 나온 그 업보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걸 놓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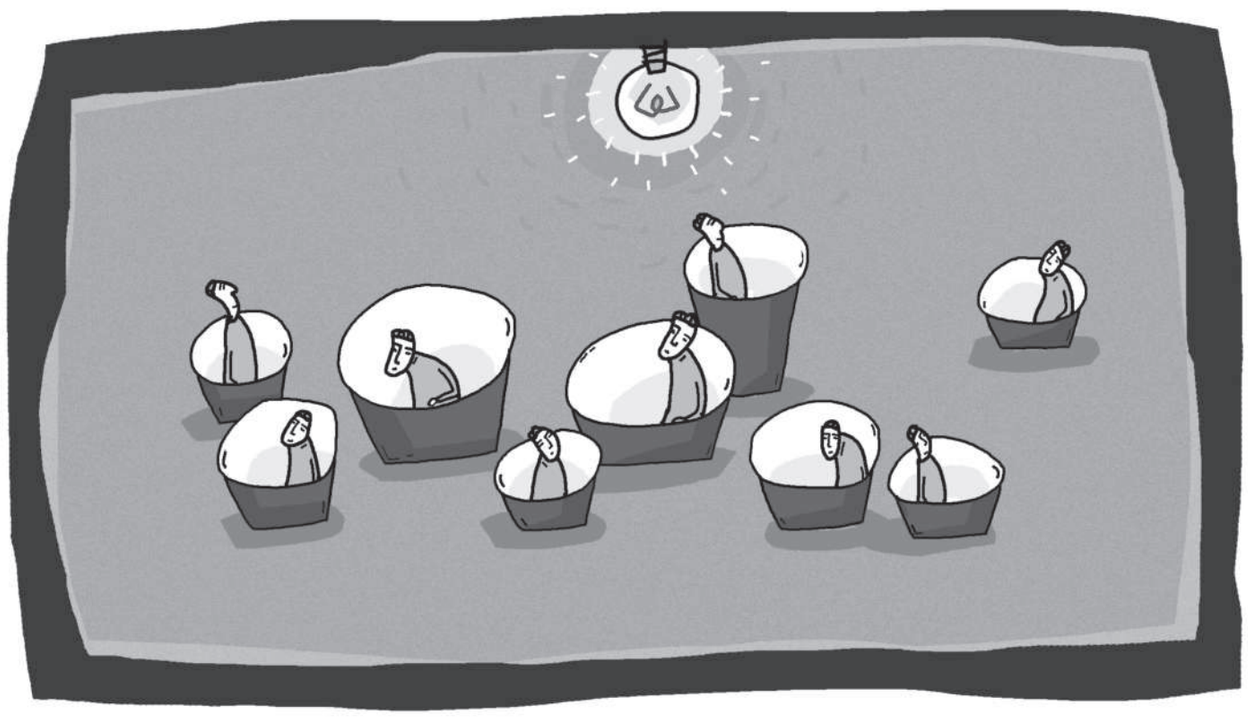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부딪칠 때에 그것을, 카세트에서 나오는 걸 카세트에다 되놓는다면 그 앞서 감겼던 것이 다 없어짐으로써 앞으로 여러분이 능력이 생겨서 에너지가 다 자식들한테도 갈 수 있으며 부모들한테도 갈 수 있으며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들한테 갈 수 있으며, 우리는 세세생생에 돌아가면서 금빛 나는 광력이, 자력이, 전력이 그대로 충만해서 이 우주에 어느 곳에 아니 닿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자들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섭리에 대해서,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의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렇고 어떠한 신비적인 일이, 신비적인 일이라고는 하지마는 신비도 신비가 아니라 본인 자신들이 알아야 신비가 있는 거고 신비가 있음으로써 타신의 모든 것을 알고 돌아갑니다. 타신의 모든 것을 앎으로써 그것을 내 자유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을 건지려면 세 집, 네 집을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말하기 좋아서 "스님, 사실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돈이 안 걷힙니다." 이러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세 집, 네 집을 거쳐야 그 돈이 걷혀. 한 사람 건지는 데 산 사람을 이렇게 하는 데도 그것이 얼마나, 만약에 몸으로 다닌다면 바빠서 못 다니고 못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마음이라는 거는 체가 없어서, 반야심경에도 있듯이 수만 개로 내 모습을 각각 해 가지고 그 수만 개가 여기에 들어와도 두드러지지가 않고, 수만 개로 나가서 모습을 각각 해 가지고 일을 해도 바로 줄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뜻을 아신다면 이 몸뚱이는 여러분이 보라고 놓고 또 내가 여러분을 봐야 하니까 이것이 집중적인 하나의 모습이지마는, 모습 없는 모습들은 수없이 나가서 손 없는 손으로 발 없는 발로 길 없는 길을 다니면서 어디고 아니 들르는 데가 없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보살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처가 되시렵니까?" 해도 부처라고 말 못 하고, "그럼, 보살이 되시겠습니까?" 해도 보살이라고 말 못 하고, "법신입니까?" 해도 법신으로 말 못 하고, "그러면 신중, 신장입니까?" 해도 신장이라고 말 못 하느니라. 갔다가도 뭐가 될는지, 요구하는 대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된다고 말 못 하느니라.

또한 내 부모를 내 부모라고 말 못 하는 원인은 사랑과 자비 때문이다. 남의 부모를 남의 부모라고 말 못 하는 것이다.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말 못 하며 남의 자식을 남의 자식이라고 말 못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행이라기보다도 우리 인간이 증득한 행이다 이 소립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죽은 사람 산 사람이 더불어…, 우리가 쇳송을 한번 "개경게 무상심심미묘법" 하고 칠 때 증득한 사람의 마음은 온 누리에 전부 퍼져. 왜 그러냐?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통하기 때문이지. 이 도리를 모르고 종성을 하는 사람은 자기밖엔 못 들어, 거기 있는 사람하고. 그 뜻도 모르고. 그러니 어찌 여러분한테 공덕이 가겠습니까?

공덕이라는 건, 복이 아니라 공덕 말입니다. 공덕 안에 복도 들어 있고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도리를 알아서 우리가 정녕코, 정녕코 나고 드는 것이 빈틈없는데, 이거는 여기서 모든 것을 맡겨 놓고 모든 것을 먹고 가고, 먹고 놓고, 감사하게 놓고 그저 '여기밖에는, 여기서밖에는' 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이 발전소라면 수없는 발전소에, 이거는 꺼지고 켜지는 발전소가 아니다 이거야. 우주의 섭리와 더불어 같이 원형으로 아주 에너지가 꽉 찬, 바로 여러분의 불성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가발전소. 에너지라면 수없는 전력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가설이 다 돼 있습니다, 우리 세포에 다 가설이 돼 있듯. 그리고 허공에도 다 가설이 돼 있습니다. 천체물리가 왜 생긴 겁니까? 그리고 천체통신기가 왜 생긴 겁니까? 무전통신기도.

그러니까 가설이 다 돼 있는데 쓰고 안 쓰는 건 여러분에 달렸다 이 소립니다. 작은 거나 큰 거나 다,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백만 가지라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전력은 으레 거기서 나오니까. 전력이 없어서 못 쓰는 법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전력이 다 가설돼 있는데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 19면에서 계속

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걸 안심하고 믿어야 됩니다. 전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전력이 없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전력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요걸 맡기고 요렇게 해라. 그러면은 병이 낫는다." 그러면 그 병만 거기다가 놓는 겁니다. 여러분 밥 해 먹는 그 가스레인지에다가 뭐 하십니까? 뭐, 별거 별거 다 하시죠. 밥 한 가지만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가스에다가는 물도 끓일 수 있고 밥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물 끓이는 한 가지만 여기다 해라' 했어도 딴 것도 다 할 줄 알아야죠. 이거는 일일이 와서 묻는 겁니다. 목 아프게 말입니다, 응? 이거는 도무지, 방에 앉았으면 일일이 와서 물으니 그걸 일일이 어떻게 오는 대로 요건 요렇게 해라 그러죠. 또 어쩔 수 없어서 말입니다, "아, 이거 하랬으면 이것도 거기다 하지, 왜 그래?" 그러죠. 또 얼마 있다가 보면, 그 사람 일이 이렇게 돼서는 쩔쩔맨다고, 지금 은행에 부채가 뭐, 어쩌고 그러면 "이거 봐, 그것도 그 가스에다 끓여." 그럽니다. 하하하.

이 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광대무변하고, 불성에서 다 나오는지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 가지고 뭘 받는다나요? 이거는 잘못되는 이치예요. 각자 나한테 충만하단 얘깁니다, 충만해. 지금 별성들이 은하계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싱싱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자기 마음들이 싱싱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 놓는 거예요. 왜들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것이 바로 업보라는 건지 도대체 그게 뭡니까?

또 한 가지는, 가만히 여러분 오시는 거 보면 속이 타서 불이 일어납니다, 하하하. 야! 한 집에 자식이나 하나 아프면 좋은데, 자식은 아프지 어른은 일 안 되지, 딸들은 나가서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지, 야, 술이나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온통 밤새도록 노름하다가 늦게 들어오지, 데모나 일으키지, 말썽부리지. 또 자식을 길러서 시집이라고 보내려고 하면 잘못 가 가지곤 싸움을 하고 한 대 얻어걸리고 이러곤 들어오지. 이러니 이게 하루나 편할 일이 있어야지, 도대체 이거는. 지금 애들이 예전 애들과 같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지금 걔네들 세대와 레벨이 맞아야 됩니다. 이건 꼭 맞아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는 대로 우리들 방편도 바뀌어야 되는 이치처럼. 그리고 말로 해서 아니 됩니다. 말로 하면 이건 점점 더 빗나가고, 욕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때려서도 아니 돼. 단 있다면, 미운 아기 떡 한 번 더 주랬다고 말을 곱상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안에다가 맡겨 놓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다가 에너지가 통합니다. 내 전화통을 돌리면은 그쪽의 벨이 울리듯이. 그러면 영락없이 착해집니다. 그건 뭐, 장담합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이든 자식지간이든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이 올 수가 있어야지. 거죽으로도 화목이 오지 못하면서 속으로도 그냥 자꾸 업보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누가 갖다 준 겁니까? 여러분의 전자로부터 좇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업보가 전자로부터 좇아 나오는 건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가슴에서 치올라 오는 거는…, 여러분 지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고 지금 다닙니다. 카세트 하나에 감긴 거를 지금 짊어지고 다닙니다. 지금도 솔솔 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 상해서 막 펄펄 뛸 때는 보살의 행으로, 보살은 지옥에 들어가도 그 펄펄 끓는 기름 도가니를 녹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칼산지옥이나 불탄지옥이나 그냥 다 없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왜 그런 소리를 했나? 여러분이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놓는다면 그냥 딱 가라앉습니다. 전자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그 자리에다가 되놔 버리는 겁니다. 그럭하면 지옥도 무너지죠, 자기는 보살이 되죠. 그러나 지옥이 한두 가집니까? 아수라지옥도 있죠.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주정을 부리는데 그런 것도 술을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음에서 그렇게 분기가 일어나고 조금만 보면 그냥 속상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대로 그냥 발산이 되는 거죠.

그 발산이 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길이는 팔십 리요, 넓이는 오십 리이니라. 그렇게 큰 솥에 펄펄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서 지옥고를 받으니…." 이럭하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돼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팔십 리라는 것은 유, 무를 말합니다. 저승, 즉 말하자면 내가 나기 이전으로부터 쫓아 나온 사무, 쫓아 나온 사유. 이렇게 해서 사, 사, 팔, 팔십 리. 그래 십이 들어가면 이게 동일하게 묶어집니다.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 같이 돌아가서 우리한테 그렇게 고가 자꾸자꾸 다가오는 거를 거기다가 놓게 되면 고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가 있다고 팔자 운명을 타령하지 말고 어떠한 지경에 이르렀다, 집안에 어떠한 자식들이 그렇다, 부부가 서로 맞지 않는다 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모든 것은 거기다 맡겨 놓고 생각을 깊이깊이 다잡고 '이거는 전자에서부터 좇아 나온 지옥이다. 이거를 무너뜨려야지. 이거는 내 주인공밖에는 없다.' 하곤 거기다가 놨을 때에 지옥고가 다 무너집니다. 해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정말인가.

그거는 그렇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체를 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나가는 데에 무시할 수 없는 국내의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든지 소기업이든지 또는 경제면에서라든가 또는 남북이 갈려 있는 거라든가 또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해야만 앞으로 자라나는 자식들한테 그 보배를 맡겨 줄 수 있고,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고, 뿌리를 싱싱하게 잘 해 줘서 역사를 좋게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지금 세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무역도 될 수 있고, 앉아서 호국불교도 할 수 있고, 앉아서 마음의 조절도 할 수 있고, 앉아서 모든 스위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스위치를 올리지 마시고, 중두난발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여러분이 잘되고 못되는 거 사량으로 해서는 아니 되니까 주인공에 맡겨서, 주인공이 적절하게 하게끔 맡겨 놓으시란 얘깁니다. 그래야 틀림없거든, 그게. 어느 것이든, 경제, 국방, 통일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부터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온 천하에, 저 하늘의 한울, '한울' 하는 거는 전체 통신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마음'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마는 '하늘' 하는 것은 지혜로도 돌아갑니다. '한울' 하는 거는, 즉 말하자면 통신을 말하고 '하나님' 하는 거는 내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 자체로서 세계, 우주의 섭리와 항상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게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한 생각 그냥 거기다가 맡겨서 이렇게…. 그러나 맡기기만 하면 되느냐. 무조건 스위치만 눌러도 안 돼. 스위치 올려놓고서도 뭐 갖다 놓고 하질 않으면 그거는 빈 가스만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잘못돼서 돌아가니까 거기에서 다 적절히, 당신은 할 거라고 믿고 놨을 때 나라도 적절히 돌아가. 나라뿐만 아니라 우주의 근본과 더불어 섭리가 같이 돌아가거든요. 다른 혹성들도 다 같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단면적으로 요 부분만 생각하는데, 세계가 있다면 우주가 있어요. 대천세계가 있고 소천세계가 있고 중천세계가 있어요. 전체가 돌아갑니다. 전체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한생각 내는 게 그게 요지라 이겁니다. 보배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깨닫고 못 깨닫고 간에 우선적으로는 여러분이 시급한 거를 막을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아무리 강을 막아서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새 발의 피입니다. 그거는 어디로 빼든지 전체, 보이지 않는 데서 마음이 도운다면요, 그까짓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위력을, 도도하고 당당한 위력이 여러분한테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놓고 빌고, 나한테 그냥 묻고 이러는 이게 불법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히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현실에서 적응하게 만들면서, 지금 웃고 묵묵히 가면서도 주장자 하나를 탁 들면 우주를 받쳐 들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여여하게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꿈에도 착을 두지 마라. 생시에 우리가 모든 거에도 착을 두지 않으면서도 여여하게 그냥 해 나가라. 한 번 꿈을 꿔도 생각을 하고서 그냥 거기다 놔 버리면 그대로 생각하기에 달린 거야. 나쁘다면 나빠질 거고 좋다면 좋아지는데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놔라 이거야, 거기서 다 해결하게. 자기가 사량으로 나빠지면 얼마나 나빠지고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 거기다 놔라 이거야, 거기서 다 해결하게.

난 길에 가다가 어떤 때는 이런 걸 많이 봅니다. 금귀고리에 금반지에 그냥 참 삐까삐까하게 하고 갑니다. '저거 며칠이나 또 갈까?' 이럽니다. 어려우면 얼마나 오래 어렵고 부자면 얼마나 오래 부자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놔라 이겁니다. 이것이 제일 빠르고 아주 편안한 일이야. 두 가지를 다 주인공에 놓되 착을 두지 말고, 그대로 중심으로서 사리를 잘 세워서 이것을 쓸 일이라면 쓰고 안 쓸 일이라면 안 쓰고, 이렇게 주장심은 언제나 가지고서….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부처님 될 수 있는 바로 금인데, 금에 빛만 낸다면 부처고 빛을 내지 못하면 그건 중생입니다, 똑같은 금이지만.

>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스위치를 올리면 안 됩니다.
> 경제, 국방, 남북통일 어느 것이든
>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부터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4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행선사 법훈록 그냥 목조건이야!

"업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오늘 그걸 알아내면
과거부터 끌고 오던 그 업은 순식간에
봄이 오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말입니다.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이 문제입니다
내일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지금, 오늘이 문제입니다."

-본문 중에서-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르치신
대행스님 법음의 정수!

"실생활에서 자기 마음 관觀하는 것을 일러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그것은 보배를 찾아주는 것이나 같습니다."

규격 신국판 (154*200) 페이지 232쪽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정가 15,000원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⑬ 부처님 10대 제자 MBTI는?

‘성격유형’ 얽매이기보다 ‘선한 의지’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감정수업’ 현장.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가까워지자 서로의 MBTI를 궁금해했다. 고학년들은 어느 정도 MBTI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자신과 잘 맞는 성격유형도 미리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에 대해 숨기기도 하면서 얼무적거리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마냥 신기하고 궁금했던 저학년들은 저돌적으로 질문에 답을 하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 핸드폰을 열어놓고서 이리저리 대답을 하다가 마침내 나온 결과에 당황스러워했다.

“내가 그렇다고? 나는 그런 성격 아니야!”

아이들은 인정하기 싫은 듯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여자아이 한 명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이었다. 고학년들이 놀리듯 이상한 방향으로 해석을 한 것도 한 몫 했고, 주변 친구들이 킥킥거리는 실소에 더 비참해하기도 했다. “내 성격은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왜 결과가 이렇냐?”며 나에게 다가와 묻는 아이들의 진지한 얼굴에 잠시 웃음이 나왔다.

“재미로 인터넷에서 찾아본 MBTI가 얼마나 정확하겠니?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 아니기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 언제든 변하고 성장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에 안심이 되었는지 금세 밝아진 표정으로 “야! 아니래! 아니라고!” 소리치는 아이들이다.

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는 몇 년 전부터 다시 유행하는 성격유형검사다.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카를 융의 심리유형론을 근거로 발전시킨 검사이며, 외향성-내향성,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으로 차원을 나눠 성격을 분류한다. 개인이 선호하는 경향과 행동을 모아 성격을 나누고 구분하는 심리검사로 유행하고 있다. 개인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대인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인기의 요인일 것이다.

하지만 MBTI는 사실 심리치료에서 크게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 과학적 근거가 아직 명확하지 못하고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타당성과 신뢰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MBTI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아이들에게도 설명했지만 성격은 개인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MBTI의 결과에 널뛰듯 요동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단지 자신이 현재 어떻게 주변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지 참고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장점만이 가득한 성격도, 단점만 가득한 성격도 없다. 성격은 다르지만 개개인이 가진 선한 의지가 모여 공동체의 힘을 만들듯 서로가 함께 돕는 지지대가 되는 것. 그뿐이다.

심리치료서 MBTI, 과학적 근거 미미

성격, 개인 경험 · 환경 따라 변화 가능

모든 이의 장 · 단점 함께 어울려가야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자면 부처님의 10대 제자는 다양한 성격에도 불협화음 없이 깨달음을 얻고 서로 탁마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제자들의 MBTI를 추측하고 주관적으로 풀어보자면 같은 유형은 거의 없을 듯하다.

상수제자로 불린 목건련은 아마도 ESFP(즉흥적인 연예인) 유형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흥적인 면모, 감정을 열렬하게 표현하는 모습을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천신 제석을 혼쭐내는 장면은 허세도 엿보일 정도다. 천신 제석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천상으로 돌아갈 때 목건련은 제석의 마음공부 경지를 알아보려 뒤를 몰래 쫓기도 하고, 쾌락을 쫓는 제석을 혼내주려 신통을 사용해 놀래게도 한다. 반성하는 천신의 모습에 우쭐해져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은 단순하면서 순진성도 보인다.

지혜제일로 불리는 사리불의 MBTI는 ISTJ(집행력 있는 조직가)로 추측된다. 사리불은 교단의 실무를 담당하며 조직하는 경영자적 역할을 담당했다. 신중하고 체계적이며 성실함의 대표주자다.

또 마하가섭이 만일 MBTI 검사를 한다면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원칙을 따르는 INTJ(용의주도한 전략가)로 나왔을 것 같다. INTJ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목표 지향적이며 목표를 달성했을 때 큰 행복감을 느낀다. 마하가섭은 중인도의 최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강요에 따라 결혼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출가를 꿈꾸며 성생활 없이 12년을 보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출가해 ‘염화미소 이심전심’의 주인공이 된다.

천안제일로 불리는 아나율은 어떤 MBTI일까? 사실 아나율의 출가 동기를 보면 그는 우유부단의 극치다. 아나율은 석가족 출신으로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었다. 부처님의 아버지 정반왕(숫도다나)의 막내 동생 감로반왕(아미또다나)의 둘째 아들이었다. 석가족의 왕위를 이어야 할 형제들이 모두 출가하자 막내 중의 막내인 아나율은 책임을 회피할 도구로 출가했다. 이런 면을 보면 ENFJ일지도. 하지만 부처님께 꾸중을 듣고 눈을 감지 않고 수행하는 강한 면모도 보였다.

분명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성격이 있고 단점과 장점이 있다. 부처님은 성격을 고치기보다는 깨달음을 향한 선한 의지를 갖도록 했다. 출가 이후 각자 자신이 가진 성격대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었다. 화엄의 또 다른 이름이 잡화다. 모든 대중이 스스로 빛나는 꽃이 되어 부처님을 장엄하는 꽃, 잡화장엄(雜華莊嚴). 우리 모두는 소중하게 빛나는 꽃송이들이다.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⑦ 걷기의 영성화 (2)

‘나’를 돌아보는 명상과 함께 자연을 걷다

‘건강, 여행, 레저, 의미, 영성의 회복, 경제성’

이처럼 걷기는 다양한 주제를 소화하면서 한국인의 놀이 문화를 바꾸어 가고 있다. 혼자도 할 수 있고, 여럿이도 할 수 있으면서 누구에게나 부담이 가지 않는 새로운 놀이 문화이다. 이제 우리는 생각날 때 아무 때나, 일상생활에서 입던 옷과 신발을 신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쉽게 걸을 수 있는 길을 즐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도시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을 걷는 길이라고 하지 않는다. 흙이 있고, 자갈이 있고, 낙엽이 있고, 숲이 있으면서 의미가 주어진 길을 걷는 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걷는다는 것의 지금의 한국적 의미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연에의 본질적 회귀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자연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걷기라는 메가트렌드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트렌드에 더 깊이 들어간 사람들 중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길을 맨발로 걷고 있다. 그들은 자연 즐기기와 건강 챙기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셈이다.

걷기를 즐기는 이들을 위하여 더 많고 좋은 길들이 조성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적이면서, 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응적인 레저를 찾는 요즘 걷기처럼 알맞은 야외활동이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걷기를 단순히 신체활동으로만 여기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사교활동은 물론 숲을 거닐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를 찾는 영성회복 활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앞으로도 걷기 열풍은 그 열기를 더해갈 것이 분명하다. 이제 사람들은 슬로우 레저, 올레길 식으로 표현하면 ‘놀멍 쉬멍 즐기기’가 새로운 대세가 되어가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행사는 종교계에서도 무관심하지 않다. 어쩌면 걷기 열풍의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종교, 그 중에서도 불교계가 될 소지가 크다.

애초부터 걷기 길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스페인의 까미노는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도 기독교 성지가 여러 군데 있기는 하지만, 숫자가 적을뿐더러 거리상 떨어져 있어 어떤 연관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사진출처=Unsplash

단순 신체활동서 나아가 사교활동

자신 돌아볼 기회 찾는 영성회복도

불교, 걷기 열풍 혜택 가장 큰 종교

‘삶과 자아성찰’ 주제로 길 개발해야

하지만 불교계는 다르다. 예를 들면 월정사에서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오대산 천년의 숲 옛길 따라 걷기대회는 월정사와 상원사가 가지고 있는 전설, 부처님 진신사리 그리고 천년의 숲이 어우러져 있다. 그야말로 현재의 걷기 열풍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인 종교적 이야기, 자연친화적 도로, 자아 성찰적 명상이 골고루 버무려져 있다.

이 같은 유리함은 산 속에 절이 많은 불교계로서는 활용도가 높은 새로운 이벤트의 출현이다. 현대 들어서 모든 종교의 신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종교계는 좀 더 많은 신도, 잠재적 신도와 능동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우선 자아 성찰적 명상은 불교의 기본 도리이다. 제주 올레길을 개척한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도 자아에 대한 고민 끝에 스페인의 까미노를 걸었다.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도 역시 삶과 자아성찰이 주제이다. 종교적 이야기는 한국의 어느 산골엔들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없을까.

또한 자연친화적 도로는 대부분의 절들이 산 속에 위치해 도시의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굳이 걷기용 길을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까지만 해도 불평거리였던 절로 연결되는 비포장도로야말로 걷기 마니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자연친화적 도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그저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 신발을 벗자고만 하면, 걷기 명상의 더없는 근거지가 되는 것이다. 베트남의 불교승려인 틱낫한이 주장했던 걷기 명상의 관념을 한국적으로 조금만 고치면 된다.

파울로 코엘료는 까미노를 유명하게 했고, 서명숙은 제주 올레를 만들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의 걷는 길의 길이와 아름다운 풍광이 더 많이 개발될 것이다. 하드웨어는 이제 꽤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걷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것이다. ‘왜 걷는가?’에 대한 성찰적 주제와 자연친화적인 요소가 어울리면서 우리를 흥겹게 하는 이야기를 가장 잘 만들어내는 길이 앞으로 한국의 까미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비바미(Viva!me) 대표〉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사찰경내외에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장엄등 설치

가야기획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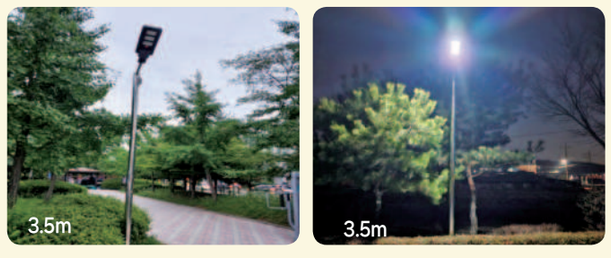
시공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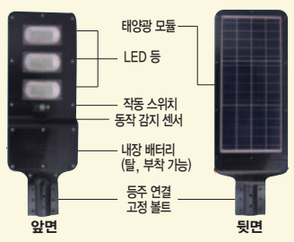
사찰경내 연등 공사



가로등·장엄등



제품 세부 소개



자비연등



칼라연등



세계 최초로 개발된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 제품건

- 전선없는 파동식 가로등은 전력공급없이 자체발전으로 햇빛이 많은곳은 초저녁에 디밍없이 5시간 동안 매우 밝게 켜지고 그 이후 아침까지 50포 낮게 유지되는 제품 개발 양산(50프로도 매우 밝음)
- 사찰 경내·외에 햇볕이 되는 위치에 매우 유용함. 참고로 배터리가 10년동안유지 됨. 즉 수명이 20년으로 바도 무방함. 이유는 케이스가 ABS 우레탄 코팅고 IP65라 가능합니다.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전법 일기

봄 오면 씨앗 뿌리듯 천진불의 불심 싹튼다

나의 입산출가일은 2011년 9월 2일이다. 다른 스님들도 출가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제법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날은 나의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일이기 때문이다.

군 생활을 시작하는 훈련소 5주 동안 나는 주말에 열리는 불교 종교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마지막 5주차 때는 삼귀오계를 수지하고 불자가 되었다. 광평(廣坪)이라는 법명도 받았다. 동기들이 햄버거와 여고생 찬양단에 흔들려 교회나 성당으로 흩어져 갈 때도 나는 꿋꿋이 불교 종교행사에 출석해서 간식으로 나온 백설기를 꼭꼭 씹었다. 주변에서는 내가 모태 불교신앙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수계식 날 두 눈을 조금도 깜빡이지 않고 연비(燃臂)를 받는 내 모습을 보고, 입대 전에 혹시 어느 절에 계셨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저 말 없는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왜냐하면 다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그저 2년에 한 번 사단급에서 뽑는 불교 군종병이 되어 군 생활을 조금 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고백하자면 생애 첫 수계식에서 나는 영 불량한 불자였고, 삼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오계는 지킬 생각이 없었다. 군대에서 만난 불교의 덕을 좀 볼 생각으로 신실한 불자를 연기하는 내 모습을 부처님께서 보셨다면 아마 실소를 금치 못하셨을 거다. '요놈 네가 똑똑한 줄 알지. 어디 한번 두고 봐라' 하셨던 걸까. "어어" 하는 사이에 나는 그 뒤로 꽤 많은 수계식을 치르게 되었다. 출가해 사미계를 받고, 보살계를 받고, 비구계를 받고 어느새 수계식을 진행하는 처지가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그리고 작년 10월, 매년 하반기 부산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열리는 불교행사인 팔관회 때의 일이다. 범어사 포교국장 소임을 보고 있던 나는 '선재동자 수계법회'의 교수아사리로 등단하게 되었다. 팔관회 3일 행사 중 첫 공식행사였기 때문에 나도 아이들도 많이 긴장했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으로 활동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야외수계법회였는데, 어린아이들 특성상 최대한 연습을 집중해 짧게 해야 한다는 것은 다년간의 어린이법회 지도를 통해서 숙지하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고 예행연습을 위해 아이들을 무대 위로 올렸다. '여러분의 연습 태도에 따라 앞에 있는 스님은 좋은 스님이 될 수도 있고 무서운 스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입으로 떠들면서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집중한 얼굴도 있고, 산만한 얼굴도 있었다. 또랑또랑한 눈망울도 있었고, 졸린 눈빛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얼굴이 십수 년 전 처음 수계를 받을 때의 내 얼굴과 같았다. 씨앗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서리와 눈바람으로 묻어 봄에 다시 싹이 움트는 그런 인연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다. 아주 오랜 세월 아이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기다려온 사람이 된 것처럼. 부처님도 활짝 웃고 계신 날이었다.



범어사 전 포교국장
눌은 스님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④ 소동파의 오도송

온 세상이 곧 부처의 세계이니…

계곡 물소리가 부처의 설법

계곡의 폭포소리가 바로 부처님의 무진장 설법인데(溪聲便是廣長舌)
어찌 산천의 아름다운 경치가 청정한 부처의 몸이 아니랴(山色豈非淸淨身)
밤새도록 쏟아진 팔만사천 미묘한 무정(無情) 법문을(夜來八萬四千偈)
다른 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이치를 설명해 보일 수 있을까(他日如何擧似人)

이 오도송은 소동파(蘇東坡, 1036~1101)가 중국 선종의 오가칠종인 임제종 황룡파의 개조 황룡 혜남(黃龍慧南)의 선법을 이은 상총(常總)선사로부터 인가(認可)를 받은 선시이다. 소동파는 중국 송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며 서예가이며 문장가이고, 아버지 소순과 동생 소철과 함께 당송팔대가에 들어가는 천재이다. 당시(唐詩)가 시의 기교면에서 극치에 달했다면, 송시(宋詩)는 시의 내용을 중시했다. 따라서 소동파의 시는 내용이 선불교의 깊은 깨달음이 담긴 철리시(哲理詩)를 많이 읊은 것이 특징이다.

소동파는 22세에 일찍이 과거 급제했으나 당시 왕안석의 신법(급진적 부국강병책)을 반대해 평생을 지방 오지의 외직과 유배생활을 한 고달픈 삶을 살았다. 그의 유일한 삶은 자연에서 시와 서예 그리고 그림을 그리며 유유자락하는 일과 산사의 고승과 벗하며 불경을 공부했다.

무정설법 화두 받은 소동파
여산 폭포소리 듣고 깨달아
자연 그대로가 법신불 자체

소동파는 1086년 천하 명산 여산 동림사에서 상총선사와 밤을 새워 불립문자의 선학(禪學)에 대해 토론했다. 상총선사가 "그대는 어찌해 무정설법(無情說法)은 듣지 않고 유정설법(有情說法)만 들으려 하는가"라고 묻자, 그는 아무 말을 못하고 무정설법이 화두가 됐다.

아침이 돼 동림사를 나선 소동파는 여산 호계(虎溪)의 폭포소리를 듣고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읊은 게송을 상총선사에게 올리게 된다.

유정설법은 생명체가 있는 유정(有情, 감정이 있는 동물) 즉, 중생을 위해 법사나 부처가 설한 팔만대장경을 뜻하고, 무정설법은 아무런 감정과 의식이 없는 산천 목석 즉, 자연이 설법하는 것을 뜻한다. 상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무정물이 설법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아는 경지가 불립문자를 종지로 삼는 선의 세계이다.

이 시는 먼저 경치를 묘사하고 나중에 일(주제)을 묘사하는 선경후사(先景後事)의 한시의 전형적인 창작 기법에 따라 전반부에서는 "계곡의 물소리와 산의 경치"를 통해 부처의 모습과 설법을 비유했고, 후반부에서는 "자신이 깨달은 자연 산천의 무정물이 설법하는 무궁무진한 팔만사천 무정설법을 훗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언어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선의 오도(悟道) 경지를 멋지게 갈파하고 있다. 선가의 언어는 언어도단(言語道斷)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이렇게 그들만의 언어로 표현한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보면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고정된 실체가 없이 서로 인연에 따라 의지해서 사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현상체는 무아(無我) 즉, 공(空)의 세계이다.

〈화엄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온 세상이 부처의 세계이고 정토인 사사무애법계이다. 청정한 자연 그대로가 진리의 부처인 법신불(法身)인 비로자나불이다. 선사들은 깨닫고 보면 세상 만물이 나와 같을 뿐이고 오직 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동국대 공짜로 다니려 출가했냐니

"너 동국대 공짜로 다니려고 출가한 거 아냐?"

설령 아무리 막역한 친구 사이일지라도 상대방에게 큰 실례라서 좀처럼 입 밖으로 내뱉을 순 없을 이 말. 놀랍게도 조계종 사미·사미니계 수계산림에 입교한 젊은 출가자가 선배스님격인 어느 습의사에게 들은 말이라고 한다. 출가자 급감으로 인해 많은 사찰이 주지도 없이 비어가는 현 시대에 가당키나 한 말인가. 후배의 발심을 마치 '위장 출가'로 보기라도 한 걸까.

조계종이 '청소년출가'를 특별법으로 다뤄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만 19세 미만 소년출가자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이하 청년출가자의 경우 사미·사미니계 수지 후 종립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과 수업료 전액을 종단이 지원한다. 그만큼 종단에는 젊은 출가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습의사의 저 말 한마디는 종단의 시대적 과제인 출가 장려를 걷어차는 것과 다름없다. 동국대 불교대학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면 출가할 마음이 생길 것 같은지 전국의 고등학생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다.

조계종 교육원이 2018~2022년 사미·사미니계를 받은 출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1%가 행자생활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이었다. 여기에 세부적인 항목은 없었지만 절집 내에 잔재하는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내가 선배니까 후배를 막 대해도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을 습의사의 발언도 별다를 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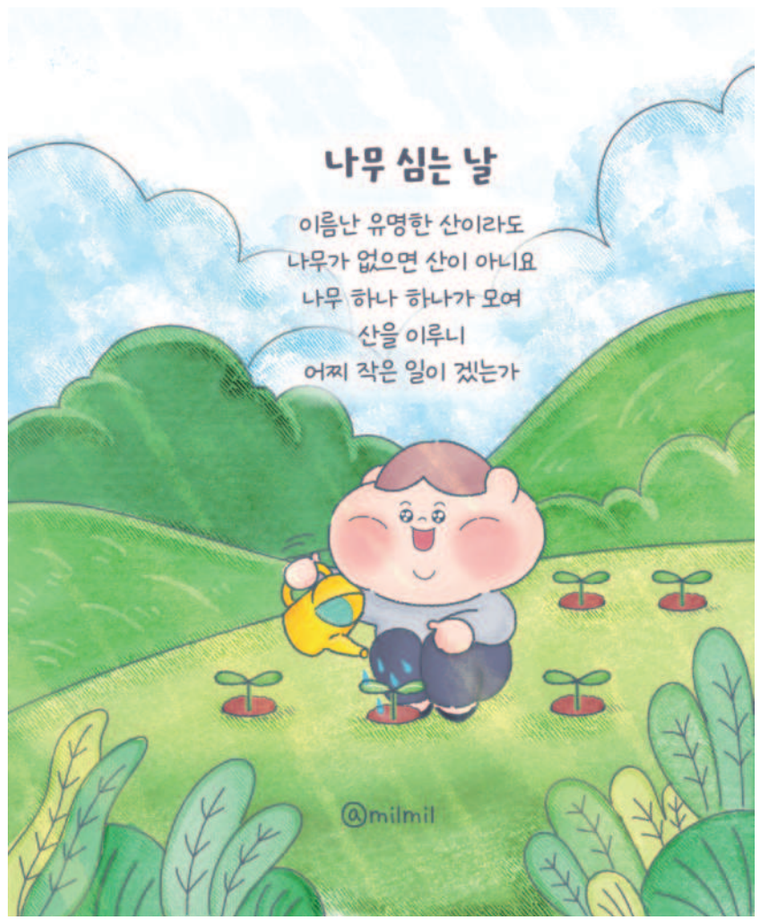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대표나 대선후보 시절에 한 말과 행동이 대통령 당선 이후 정반대여서 등장한 풍자의 표현 '박적박(박근혜의 적은 박근혜)'이 떠오른다.

종단은 출가 장려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데 정작 출가자가 후배들을 저렇게 생각한다면 이야말로 '출적출(출가자의 적은 출가자)' 아니겠는가.



윤호섭 편집국 차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전재산 다 팔았지만
아들 혈액암치료비 막막

몽골 아나르군, 림프종혈액암에 장기치료 불가피
미납된 병원비만 6천만원…후원받기도 어려워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3원 통합, '견제·균형' 바탕돼야

현불논단



조기룡 교수
동국대 대학원 부디스트비즈니스학과

조계종 중앙종회 제230회 임시회에서 '중앙종무기관 조직개편을 위한 종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94년 개혁종단 출범 이후 30년 만에 조계종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이다. 조계종 현 조직의 특징은 3권분립과 3원조직이다. 3권분립은 조계종 조직이 정부 조직처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분립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각각의 기능을 중앙종회·호계원·총무원이 수행해왔다. 그런데 조계종의 행정부에는 총무원 이외에도 교육원과 포교원이 있으며, 통상 이를 집행부 '3원'으로 지칭해왔다.

개혁종단이 출범하면서 총무원으로부터 승가교육과 포교업무를 분리하여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원(別院)으로 독립시켰다. 교육원과 포교원의 별원화는 △도제양성 △포교 △역경이라는 조계종 3대 지표를 실현함과 더불어 총무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종권을 분산시키고자 함이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30년이 흘렀고, 그동안 사회 환경은 매우 달라졌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종교인구가 감소하고, 출가자와 신도 수도 급감했다. 교육원과 포교원이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교육과 포교에 있어서 전면적 수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생존할 수 없다. 종교조직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계종의 3원 통합은 위기에 놓인 종교조직의 시대적 결단이다.

3원 통합, 변화에 따른 시대적 결단
승가교육, 포교 행정 효율성 기대돼
총무원장 인사권, 재정권 강화 예상
중앙종회 견제 중요…균형 발전 요구

분명, 3원 통합의 조직 개편은 3원 간 업무의 중복성 해소를 토대로 교육과 포교에 대한 종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줄 것이다. 그런데 3원 통합은 총무원장에게 인사권과 재정권이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조계종의 조직구조가 개혁불사 때처럼 총무원장에게 종권이 집중돼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러나 교육원과 포교원이 총무원으로 통합되는 것은 총무원장의 인사권 및 재정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중앙종회의 총무원 견제 기능이 그만큼 더 작동해야함을 시사한다. 물론 중앙종회가 총무원을 견제만 해서는 안 되고, 사안에 따라서 지원·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종단조직구조가 3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는 한 중앙종회의 총무원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종단의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다.

이런 차원에서 중앙종회에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제출되고 있는 '중앙종회의원의 겸직금지 완화'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문제다. 중앙종회의원 겸직금지 완화는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의 부·실장 겸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의 부·실장을 겸직하게 되면, 그 임명권자인 총무원장의 지시와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힘들어진다. 향후 종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는 총무원과 중앙종회 간 견제와 균형을 보다 고민해야 한다.

불교조직 관리에 있어 최고의 준칙은 화합이다. 인사관리도, 재무관리도, 그리고 조직관리도 교단·종단·승단의 화합이 깨지지 않도록 이뤄져야 한다. 이번 3원 통합의 결단이 조계종의 발전은 물론 화합을 이루어내는 촉매가 되었으면 한다.

중독, 상실감 탈출이 우선

세간과 출세간



효록 스님
다르마심리상담명상센터 대표

한 부모는 초등학생 아이를 해외 유학에 보냈다. 이후 성인이 된 자녀가 마약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자식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마약 사용 흔적을 모두 지웠다. 그 덕분에 자녀는 수감자 생활을 면하게 되었다. 하지만 자녀의 마약 사용은 멈추지 않았고 부모는 길을 잃었다. "그때 그만 잡히게 놔두었더라면, 그래서 치료를 받게 했더라면 지금은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모두 고통의 상태였다.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섹스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 의존 때문에 상담실을 찾는다. 도박중독치료센터에서 만난 분의 이야기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치료센터를 찾았다. 그는 공허함 때문에 계속 도박장에 갔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공허함이나 외로움 같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인지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고통이 유지되는 한 가지 요인은 고통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회피는 위험한 상황이나 대상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이다. 그는 공허함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도박으로 도망친 것이다. 방어는 감정을 느끼면서 생기는 고통과 압도적인 감각을 느끼지 않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는 일종의 보호막이자 무의식적인 마음의 장치이다.

중독자 대부분 의존감 상실 경험
'안전'하게 '의존'할 시기에 상실
의존에 더욱 집착하며 중독으로
우선 중독을 의존으로 바꿔보라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지 밝히겠다는 취지로, 1930년대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72년 동안 과학적이면서도 문학적인 연구에 돌입했다. 42년 동안 이 연구의 책임자였던 정신과 전문의 조지 베일런트는 "상처가 나면 몸 안에서 평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응에 따라 피가 응고된다. 혈액의 응고라는 현상 덕분에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 있는 반면 그것이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장마비로 이어지기도 하듯이, 방어기제 역시 우리를 구원할 수도 나락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

중독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치료의 중요한 부분은 자신의 몸에 쌓인(集) 부정적인 감정과 접촉하는 것이다. 붓다가 사념처(四念處)에서 알려준 그 방법이 치료에 활용된다. 중독자의 성장 과정을 탐색하면 대부분 가장 안전하게 의존해야 할 어린 시절에 그것을 상실한 경험이 있다. 불리한 환경에서 자라난 과정이 있다. 예컨대 부모의 말다툼, 학대, 유기, 정서적 방임, 과잉보호, 엄격하고 통제적인 양육환경,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불안정한 분위기 등이다.

'중독'을 '의존'으로 바꿔보라. 중독의 다른 면은 의존이다. '안전'하게 '의존'해야 할 시기에 그것을 '상실'한 아이는 의존에서 벗어나서 할 시기에 도리어 의존에 강박적으로 집착하게 된다.

인간의 욕망은 결핍에서 온다. 의존을 욕망한다는 것은 의존의 결핍을 의미한다. 중독자를 꾸짖고 비난하기 전에 그 존재가 상실한 것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보자. 어린아이가 해외에서 얼마나 긴장하고 불안했을지. 부모가 싸울 때 얼마나 무서웠을지. 안전감이 치료의 시작이고 안전하면 감정이 조절된다. 감정이 조절되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다.

社 說

'나눔의집' 존립, 국가가 나서야

개원한지 30년이 지난 나눔의집은 이제 자신의 역사적 소명을 다해가고 있다. 나눔의집에는 할머니 3명뿐이고, 모두 90대 중반을 넘어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복지시설인 나눔의집이 양로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위안부 피해 문제를 알리는 역사관을 운영할 법적 근거도 함께 상실한다는 점이다. 시설 자체가 역사인 나눔의집 존립 자체가 위기 상황인 것은 정말 씁쓸한 일이다. 특히 이제는 역사 기록과 추모·교육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데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지위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불교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그 고민은 3월 2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나눔의집 대표이사 성화스님은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시고 양로시설이 폐쇄되면 부설기관인 역사관을 운영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상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할 여성가족부는 김현숙 전 장관 사임 이후 후임 장관이 공석이다. 이에 따라 나눔의집은 '역사관 존치'를 기본 입장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운영, 특수법인 설립 등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징용은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이자 전쟁이 인간성을 어떻게 말살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다. 나눔의집은 그 역사를 간직한 장소이다. 이에 대한 존립은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이다.

스무 살 로터스월드에 거는 기대

지금 불교계는 국제구호 NGO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1990~2000년대 초반만 해도 불교 국제구호 NGO는 타 종교보다는 그 수나 활동이 뒤졌던 것은 사실이다. 2000년대 중반 불교계에는 이후 적지 않은 국제구호 NGO들이 창립됐다. 2004년에 출범한 로터스월드로 이 같은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하지만,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성과와 활동상을 보여주는 국제구호 NGO로 손꼽힌다.

로터스월드가 주 활동 국가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진출했던 캄보디아에는 BWC아동센터(Beautiful World of Cambodia)를 건립하고 현지 청소년들의 교육 사업을 펼쳤다. 이를 통해 50여 명의 졸업생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했고, 지금도 센터에는 17명의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처럼 로터스월드의 구호사업은 물품 지원에서 끝나지 않는다. 인프라 조성과 함께 현지인이 자립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는 것이 로터스월드 구호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메리트다. 이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고 자립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사장 성관 스님의 철학과 맞닿는다.

'처염상정(處染常淨)'은 연꽃을 표현하는 말이다. 더러운 곳에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정화한다는 말로, 연꽃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20살 청년이 된 로터스월드가 자비로 세계에 그려나갈 연화세계를 기대해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BTN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평일 아침 7시 30분!
보고 싶은 스님들을 만나보세요



법상스님의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본방송 월 07:30 재방송 월 19:30 / 토 23:15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 - 문광스님
본방송 화 07:30 재방송 화 19:30 / 토 12:00


송산, 일각, 지형스님의 이판사판 - 맛수다 시즌2
본방송 수 07:30 재방송 수 20:30 / 일 14:00


광우스님의 소나무 시즌3
본방송 목 07:30 재방송 목 19:30 / 일 19:00


동훈스님의 다음 생 이야기
본방송 금 07:30 재방송 금 16:00 / 일 23:15
스마트하게 BTN불교TV를 시청하는 방법
TV를 통해서 시청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케이블TV는 지역별 채널번호가 상이하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
www.btn.co.kr 홈페이지 접속 후 ' 온에어' 메뉴 클릭!
앱을 통해서 시청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 BTN불교TV' 검색 후 무료 다운로드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유튜브 검색창에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검색 후 구독과 알림설정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2024 어싱Earthing 제품 특판

어싱, "지구 표면 존재 에너지에 우리 몸을 연결하는 것!"

어싱이란? 어싱은 야외에서 맨발로 걷거나 앉아 있고 누워 있으며 대지의 자연적인 치유 에너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싱의 창시자 'Clinton Ober'는 맨발로 땅을 밟고 걷는 것에 인체를 회복시키는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고
10여 년 관찰과 실험 끝에 '어싱'(Earthing) 프로그램을 만들어 미국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어싱의 가장 쉬운 방법은 '맨발걷기'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문화가 보편화된 현대인들은 나무가 자라는 높이(4층) 이상에 살기에 대지의 자연에너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맨발로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황톳길, 숲길, 모래사장길을 맨발로 걷는 것이 어싱입니다.
어싱은 최소 30분 이상 하여야 하며 건강한 사람은 주 4회, 건강을 위해서는 3시간 이상 꾸준히 맨발걷기를 하셔야 합니다.
어싱 제품은 이러한 어싱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땅의 음이온이 전달되는 접지기능을 넣고 맨발걷기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신발, 그리고 매트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싱을 하게 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New
캔바스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어싱슈즈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베이지

어싱 매트·베개·방석 특판 할인

오직 들꽃잠이 엄선한 그래핀 신소재로
전하는 깊고 진한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열 에너지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S ~~판매가 1,880,000~~ ⇒ 할인가 1,780,000
그래핀 어싱 치유매트(매쉬) Q ~~판매가 2,250,000~~ ⇒ 할인가 1,980,000



그래핀 어싱 베개 (아치형) [어싱(접지)코드 포함]
~~판매가 120,000~~ ⇒ 할인가 84,000



좌훈 음파 케겔 운동기
~~판매가 1,200,000~~ ⇒ 할인가 1,080,000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